바스커빌 가의 개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902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The Strand Magazine 1901–02)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852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셜록 홈즈 씨

셜록 홈즈는 보통 아침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다. 밤을 꼬박 새우는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 말이다. 그날 아침, 홈즈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벽난로 앞 카펫 위에 서서 어젯밤 방문객이 두고 간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그것은 끝부분이 둥글고 두툼한,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 지팡이였다. 흔히 '페낭 로이어'라고 불리는 형태였다. 둥근 손잡이 바로 아래에는 폭이 1인치에 달하는 넓은 은색 띠가 둘러져 있었다. 그 위에는 'C.C.H. 친구들이 제임스 모티머 M.R.C.S.에게, 1884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옛날 방식의 마을 의사가 들고 다닐 법한 지팡이였다. 품격 있고, 단단하며, 보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지팡이 말이다.

"자,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홈즈는 나를 등진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은 뒷머리에도 눈이 달린 게 분명하군요."

"적어도 내 앞에는 아주 잘 닦인 은도금 커피포트가 하나 있군." 그가 말했다. "그런데 왓슨,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 남기고 간 지팡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운 나쁘게도 그를 놓치는 바람에 방문 목적조차 알 길이 없으니, 이 우연히 남겨진 유품이 아주 중요해졌네. 자, 그 지팡이를 살펴보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한번 추론해 보게나."

"내 생각에는," 동료의 추리 방식을 최대한 따라가 보려 애쓰며 내가 말했다. "모티머 박사는 성공한, 나이 지긋한 의사임이 분명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높게 평가하는 걸 보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인물인 것 같군."

"좋아!" 홈즈가 말했다. "아주 훌륭해!"

"그가 아마도 마을을 돌며 환자를 보러 다니는 시골 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진료를 직접 걸어서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어째서 그런가요?"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원래는 아주 멋진 물건이었겠지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도시의 의사가 들고 다닌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끝부분의 두꺼운 철제 장식은 이미 다 닳아버렸군요. 이 지팡이를 짚고 아주 많이 걸어 다녔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타당하군!" 홈즈가 말했다.

"게다가 'C.C.H.의 친구들'이라는 모임도 있지요. 제 추측으로는 '썸싱 헌트(Something Hunt)'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사냥 모임 말입니다. 아마 그곳 회원들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좀 주었을 테고, 그 보답으로 그 모임에서 그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말이지, 왓슨, 자네는 과찬이군." 홈즈가 의자를 뒤로 밀며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자네가 그동안 내 사소한 업적들을 친절하게 기록해 준 글들을 보면, 자네는 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자네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는 아닐지 몰라도, 빛을 전달하는 도구임은 분명하네. 어떤 이들은 천재성을 갖지 못했더라도, 타인의 천재성을 자극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지. 이 말은 진심이라네, 친구. 나는 자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

그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그의 말은 내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그동안 나는 나의 찬사나, 그의 수사 방식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나의 노력에 그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종종 마음이 상하곤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의 체계를 충분히 익힌 나머지, 그가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홈즈는 내 손에서 지팡이를 건네받더니, 잠시 동안 맨눈으로 그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내려놓고는, 지팡이를 창가로 가져가 볼록렌즈를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흥미롭긴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군."

홈즈는 소파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다.

"지팡이에 분명 한두 가지 단서가 남아 있어.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론을 해낼 수 있겠어."

"내가 놓친 게 있나?" 나는 약간 우쭐한 기색을 내비치며 물었다. "중요한 사실을 내가 간과한 건 아니겠지?"

"이런, 왓슨 박사. 유감스럽게도 자네의 결론은 대부분 틀렸네. 자네 덕분에 자극을 받았다고 말한 건, 솔직히 말해 자네가 범하는 오류들을 지켜보며 가끔 진실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네.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서 자네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 남자는 분명 시골 의사일 것이고, 걷는 것도 아주 많을 테니까."

"그럼 내 짐작이 맞았군."

"그 정도까지는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지."

"아니, 아니네, 친애하는 왓슨. 전부 다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다네. 예를 들어보지. 의사에게 전달되는 물건이라면 사냥 모임보다는 병원에서 왔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리고 그 병원 이름 앞에 'C.C.'라는 이니셜이 붙는다면, '채링 크로스'라는 이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겠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가능성은 그쪽에 있습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삼는다면, 정체 모를 방문객이 누구인지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될 겁니다."

"좋아, 그럼 'C.C.H.'가 '차링 크로스 병원'을 뜻한다고 가정해 보세. 거기서 우리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추론은 무엇인가?"

"떠오르는 단서가 전혀 없나? 내 방식이 어떤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게!"

"그자가 시골로 내려가기 전, 이미 도시에서 의사로 개업해 일했다는 결론밖에는 떠오르지 않는군요."

"우리의 추론을 조금 더 밀어붙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대체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런 선물이 전달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까?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선물을 건네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모티머 박사가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병원직을 그만두던 바로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물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도시의 병원을 떠나 시골에서 진료를 시작했다는 점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선물이 바로 그 이직을 기념하기 위해 전달된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우리의 추론을 너무 과하게 몰아붙이는 일일까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군요."

"자, 잘 보게나. 그가 병원 정식 의료진이었을 리는 없네. 런던에서 확고한 기반을 잡은 의사만이 그런 직책을 맡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굳이 시골로 흘러 들어올 리 없으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병원에 있었으면서도 정식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그저 병원 수련의나 주치의 정도였을 걸세. 상급 학생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지. 게다가 그는 5년 전에 떠났네. 이 막대기에 적힌 날짜를 보게나.

자, 왓슨. 자네가 말한 중년의 중후한 가정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른도 안 된 젊은이가 나타났지. 상냥하고, 야망도 없으며, 멍하니 딴생각에 잠기기 일쑤인 청년 말이야.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아끼는 개 한 마리가 있군. 대략 설명하자면 테리어보다는 크고 마스티프보다는 작은 녀석이라네."

셜록 홈즈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향해 흔들리는 작은 연기 고리들을 내뿜자,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나이나 경력 같은 세부 사항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작은 의학 서적 선반에서 『의학 명부』를 꺼내 그 이름을 찾아보았다. 모티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우리의 방문객일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나는 그의 약력을 소리 내어 읽어 내려갔다.

모티머, 제임스, M.R.C.S., 1882년, 데번주 다트무어 그림펜.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채링 크로스 병원 주치의 역임. '질병은 퇴행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비교병리학 분야의 잭슨 상 수상. 스웨덴 병

리학회 통신회원. ‘격세유전의 몇 가지 기형 사례’(《랜싯》, 1882) 및 ‘우리는 진보하는가?’(《심리학 저널》, 1883년 3월)의 저자. 그림펜, 토슬리, 하이 배로우 교구의 의료관.

“그 지역 사냥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네, 왓슨.” 홈즈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아주 예리하게 포착했듯이, 시골 의사라는 점이 핵심이지. 내 추론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네. 형용사들에 대해 말하자면, 내 기억이 맞다면 상냥하고, 야심 없으며,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했었지. 내 경험상, 이 세상에서 추천서를 받는 사람은 오직 상냥한 사람뿐이고, 런던에서의 경력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은 야심 없는 사람뿐이며, 자네 방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다 명함 대신 지팡이를 두고 가는 사람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뿐이라네.”

“그럼 개는요?”

“이 개는 주인의 뒤를 따르며 이 지팡이를 물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군요. 지팡이가 꽤 무거워서 개가 가운데 부분을 아주 꽉 물었나 봅니다. 이빨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이 자국 사이의 간격을 보니, 제 생각에 개의 턱은 테리어라기엔 너무 넓고 마스티프라기엔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아마도—아, 세상에, 맞군요.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스패니얼입니다.”

그는 말을 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다 창가 움푹 들어간 곳에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 실려 있었기에,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보게 친구,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네. 개가 우리 집 문턱까지 나타났고, 주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도 들리거든. 왓슨, 제발 움직이지 말게. 저분은 자네와 같은 의사라네. 자네가 곁에 있어 주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왓슨, 지금이 바로 운명의 극적인 순간이라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자네의 삶에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말일세. 과학자인 제임스 모티머 박사가 범죄 전문가인 셜록 홈즈에게 무엇을 요구하러 왔을까? 들어오시지요!"

방문객의 모습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나는 그가 평범한 시골 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키가 아주 크고 마른 체격이었는데, 부리처럼 길게 뻗은 코가 인상적이었다. 그 코 사이로는 금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가 가깝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전문직 종사자답게 옷을 차려입긴 했으나 다소 단정치 못한 차림이었다. 프록코트는 빛이 바래 칙칙했고 바지 끝단은 해져 있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등은 이미 길게 굽어 있었으며,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인자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홈즈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발견하고는 기쁨 섞인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왔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팡이를 여기 두고 왔는지, 아니면 선박 사무소에 두고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 지팡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받으신 물건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채링 크로스 병원에서 오셨다고요?"

"제 결혼식 때 그곳에 있던 친구 한두 명에게 받은 겁니다."

"이런, 이런, 정말 안 좋군요!"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티머 박사는 약간 놀란 기색으로 안경 너머를 깜빡이며 물었다. "어째서 나빴다는 말씀입니까?"

"그저 당신이 우리의 작은 추론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결혼이라니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상담 의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자, 자, 결국 우리가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자, 그럼 이제 제임스 모티머 박사님——"

"'미스터'입니다, 선생님, '미스터'요. 저는 그저 미천한 M.R.C.S.(영국 왕립외과대학 회원)일 뿐입니다."

"분명 아주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군요."

"홈즈 씨, 당신은 과학을 취미로 삼는 분이군요. 거대한 미지의 바다 해안가에서 조개껍데기를 줍듯, 여기저기서 지식을 주워 모으는 분 말

입니다.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셜록 홈즈 씨가 맞으시겠지요, 혹시 다른 분은—”

“아니요, 이쪽은 제 친구인 왓슨 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귀하의 성함을 친구분의 성함과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은 제게 무척 흥미로운 분이시군요. 이렇게 장두형인 두개골이나 눈썹뼈가 이토록 발달한 모습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두정 봉합선을 한번 따라 훑어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실물을 직접 얻기 전까지라도 당신의 두개골을 본떠서 석고상을 만든다면, 그 어떤 인류학 박물관에서도 아주 귀한 전시물이 될 겁니다. 아첨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의 두개골을 탐내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는 낯선 방문객을 의자로 안내하며 손짓했다. “보아하니 선생께서도 나처럼 본인의 분야에 열정적인 분이시군요.” 홈즈가 말했다. “검지 손가락을 보니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우시는 분 같습니다만. 망설이지 말고 한 대 피우시지요.”

그 남자는 종이와 담배를 꺼내더니 놀라울 정도로 능숙한 솜씨로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그의 길고 떨리는 손가락은 마치 곤충의 더듬이처럼 민첩하고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홈즈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번뜩이며 움직이는 그의 눈빛을 보니, 이 기묘한 동행자에게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다. 마침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 짐작이 맞다면 어제저녁과 오늘 다시 이곳을 찾아주신 이유가 단지 제 두개골을 살펴보기 위해서만은 아닐 텐데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홈즈 씨,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저 자신이 실무적인 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매우 심각하고도 기이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요. 당신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전문가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분이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홈즈가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베르티용 씨의 연구에 언제나 강한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분께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선생님처럼 철저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께 드린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독보적인 실력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심코 결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그러셨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모티머 박사님, 더 지체하지 말고 박사님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문제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제2장 바스커빌 가의 저주

제2장. 바스커빌 가의 저주

“제 주머니에 원고가 한 부 있습니다.” 제임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당신이 방으로 들어올 때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오래된 필사본입니다.”

“위조된 게 아니라면, 18세기 초반의 물건이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내 그 문서를 한두 인치 정도는 내게 보여주고 있었네. 문서의 제작 연도를 십 년 안팎의 오차로 맞히지 못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지. 아마 내가 이 주제로 쓴 짧은 논문을 읽어봤을지도 모르겠군. 내 계산으로는 그 문서는 1730년경의 것이네.”

"정확한 날짜는 1742년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가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이 가문의 문서는 찰스 바스커빌 경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약 석 달 전, 그분이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데번셔 전체가 발칵 뒤집혔었지요. 저는 그분의 주치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의지가 강하고 명석하며 실질적인 분이셨습니다. 저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편은 아니셨지요. 하지만 그분은 이 문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닥치고야 만 바로 그 결말을 예견이라도 한 듯,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홈즈는 원고를 향해 손을 뻗어 가져가더니 무릎 위에 평평하게 펼쳤다. "왓슨, 여기를 보게. 긴 s와 짧은 s가 번갈아 쓰인 게 보이지? 이 원고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단서 중 하나라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누런 종이와 빛바랜 글씨를 살펴보았다. 종이 상단에는 '바스커빌 저택'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1742'라는 숫자가 크고 휘갈겨 써 있었다.

"어떤 종류의 진술서인 듯하군요."

"네, 바스커빌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을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아주 현대적인 사건입니다.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할 만큼 매우 실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지요. 하지만 이 원고는 분량이 짧으면서도 이번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읽어 드리지요."

홈즈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더니,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댄 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모티머 박사는 원고를 빛에 비추어 읽어 내려갔다. 그의 높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기이하고도 고풍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바스커빌 가의 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하지만 나는 휴고 바스커빌의 직계 후손이며, 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직접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굳게 믿으며 이를 기록에 남깁니다.

아들들아, 너희도 이것을 믿어다오. 죄를 벌하는 정의는 동시에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한 아무리 무거운 저주라도 기도와 참회로써는 반드시 걷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결과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신중히 살피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우리 가문이 그토록 처참하게 고통받았던 그 사악한 열정들이 다시는 풀려나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지 않도록 말이다."

"잘 들어보게. 대반란의 시기에—그 역사는 학식 높은 클래런던 경이 저술했으니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하겠네—이 바스커빌 저택은 휴고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소유였네. 그가 매우 방탕하고 불경하며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사실 그 지역에는 성인(聖人)이 나기 힘든 환경이라 이웃들도 그 정도는 눈감아 주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에게는 방탕하고 잔인한 기질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의 이름은 서부 전역에서 악명 높은 대명사가 되었지.

그러던 중 이 휴고가 바스커빌 영지 근처의 땅을 가진 자영농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네. (과연 그토록 어두운 욕망을 '사랑'이라는 밝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일세.) 하지만 그 처녀는 신중하고 평판이 좋은 아가씨였기에, 휴고의 악명을 두려워하며 늘 그를 피했네.

결국 어느 미카엘 마스 축일날, 휴고는 놀고먹기 좋아하는 사악한 패거리 다섯여섯 명을 데리고 농가로 몰래 내려갔네. 그는 농장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 그들은 처녀를 납치해 저택으로 끌고 왔네. 처녀는 저택 위층 방에 갇혔고, 휴고와 그 일행은 평소 밤마다 하던 버릇대로 긴 술판을 벌였네.

위층에 갇힌 가련한 처녀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노래와 고함, 그리고 끔찍한 욕설 때문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을 것이네. 술에 취한 휴고 바스커빌이 내뱉는 말들은 듣는 사람의 영혼마저 말려 죽일 정도로 저질이었다고들 하니까 말이야. 마침내 공포가 극에 달하자, 처녀는 가장 용감하고 민첩한 사람이라도 주춤할 법한 일을 저질렀네. 남쪽 벽

을 뒤덮고 있는(지금도 여전히 덮여 있는) 담쟁이덩굴을 붙잡고 처마 밑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지. 그러고는 저택에서 아버지의 농가까지 이어지는 황야를 가로질러 집을 향해 달렸네. 그 거리는 무려 3리그나 되었네."

얼마 지나지 않아 휴고는 손님들을 뒤로한 채 음식과 술을 들고 움직였다. 어쩌면 음식보다 더 끔찍한 것을 들고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붙잡아 둔 여인을 보러 갔으나, 새장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그 순간 휴고는 마치 악마에게 홀린 사람처럼 변했다. 그는 식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 내려오더니, 식탁 위로 달려들었다. 술병과 접시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그는 모여 있던 사람들 앞에서 악을 쓰며 외쳤다. 그 계집을 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밤 당장이라도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악의 세력에 바치겠노라고 말이다.

흥청망청 즐기던 이들이 그의 광기에 질려 얼어붙어 있을 때, 다른 이들보다 더 사악하거나 혹은 더 취해 있던 누군가가 소리쳤다. 사냥개들을 풀어 그녀를 쫓으라고 말이다.

그러자 휴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마부들에게 자신의 암말에 안장을 얹고 사냥개들을 풀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여인이 쓰던 손수건을 사냥개들에게 맡겨 냄새를 맡힌 뒤, 개들을 그 냄새 자국 위에 풀어놓았다. 그렇게 그는 달빛이 비치는 황야 위로, 사냥개들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질주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축제를 즐기던 이들은 어안이 벙벙해진 채 멈춰 섰다. 대체 무슨 일이 이토록 급박하게 벌어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혼란에 빠졌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황야에서 벌어질 끔찍한 사건의 정체를 깨달은 것이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누군가는 권총을 찾았고, 누군가는 말을 불렀으며, 또 누군가는 와인병을 다시 찾았다. 그러다 마침내 광기에 휩싸였던 이들의 정신이 간신히 돌아왔다. 총 열세 명의 사내들은 모두 말에 올라타 추격을 시작했다. 머리 위로는 달빛이 맑게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길을 따라, 나란히 말을 몰아 빠르게 달려 나갔다.

그들이 황야를 따라 1, 2마일쯤 나아갔을 때, 밤을 지키는 양치기 중 한 명과 마주쳤다. 일행은 그에게 혹시 사냥하는 무리를 보았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내는 공포에 질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불행한 처녀가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걸 보았습니다." 사내가 말했다. "검은 암말을 탄 휴고 바스커빌이 내 곁을 지나갔는데, 그 뒤를 지옥에서 온 듯한 사냥개가 소리도 없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제 뒤에 그런 괴물이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술에 취한 지주들은 양치기를 저주하며 말을 몰아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곧 그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황야 너머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얀 거품을 입가에 묻힌 검은 암말 한 마리

가 고삐를 늘어뜨린 채, 빈 안장만 얹은 모습으로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큰 두려움이 엄습하자 흥에 겨워 달리던 이들은 서로의 말 곁으로 바짝 붙었다. 만약 혼자였다면 누구라도 당장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겠지만, 그들은 겁에 질린 채로 황야를 계속 가로질러 갔다.

그렇게 조심스레 말을 몰아 나아가던 일행은 마침내 사냥개 무리와 마주쳤다. 용맹하고 혈통 좋기로 유명한 사냥개들이었으나, 지금은 황야의 깊은 골짜기—우리가 '고얄'이라 부르는 곳—입구에 옹기종기 모여 낑낑거리고 있었다. 어떤 개들은 슬금슬금 몸을 숨겼고, 어떤 개들은 털을 바짝 세운 채 눈을 부릅뜨고 눈앞의 좁은 계곡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행렬은 멈춰 섰다. 짐작하시겠지만, 처음 출발할 때와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은 훨씬 침울해져 있었다. 대다수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직 가장 용감하거나, 혹은 가장 취해 있었을 세 명의 사내만이 골짜기를 따라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곳은 탁 트인 넓은 공터로 이어졌는데, 그곳에는 아주 먼 옛날 잊힌 민족이 세워둔 거대한 바위 두 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달빛이 공터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불행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공포와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 겁 없는 세 명의 술꾼을 전율케 한 것은 처녀의 시신도, 그 곁에 쓰러져 있는 휴고 바스커빌의 시신도 아니었다. 휴고의 머리맡에 서서 그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흉측한 존재 때문이었다. 그것은 거대하

고 검은 짐승으로, 개와 닮았으나 인간의 눈에 비친 그 어떤 개보다도 컸다.

세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순간, 그 괴물은 휴고 바스커빌의 목을 물어뜯어 버렸다. 괴물이 이글거리는 눈과 침을 흘리는 입을 그들에게 돌리자,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황야를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말을 달렸다. 비명은 황야 끝까지 이어졌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아 그날 밤 바로 사망했고, 나머지 두 명은 평생 정신을 놓지 못한 채 폐인이 되어 살았다고 한다.

"자, 아들들아, 이것이 바로 그 개에 관한 이야기란다. 그 개가 나타난 이후로 우리 가문은 줄곧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들 하지. 내가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막연한 암시나 추측보다는 차라리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 공포를 덜어주기 때문이란다. 우리 가문의 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겠지. 하지만 우리는 신의 무한한 자비에 몸을 맡겨야 한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의 대가가 삼사 대를 넘어 무고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들아, 나는 너희를 신의 섭리에 맡기노니, 부디 경계하거라. 악한 기운이 세상을 뒤덮는 어두운 시간에는 결코 황야를 건너지 말도록 해라."

[이것은 휴고 바스커빌이 두 아들 로저와 존에게 보낸 편지다. 편지에는 이 내용을 누이 엘리자베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모티머 박사가 이 기이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 올린 채 셜록 홈즈를 빤히 바라보았다. 홈즈는 하품을 한 번 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동화 수집가에게."

모티머 박사가 주머니에서 접힌 신문 한 장을 꺼냈다.

"자, 홈즈 씨. 조금 더 최근의 자료를 보여드리죠. 이건 올해 5월 14일 자 '데번 카운티 크로니클'지입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짧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사건은 이 신문이 발행되기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내 친구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표정을 진지하게 고쳐 잡았다.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안경을 고쳐 쓰더니 입을 열었다.

"차기 선거에서 미드 데번 지역의 자유당 후보로 거론되던 찰스 바스커빌 경이 최근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지역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찰스 경이 바스커빌 저택에 머문 기간은 비교적 짧았으나, 그의

온화한 성품과 아낌없는 관대함은 그와 인연을 맺은 모든 이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처럼 졸부들이 판치는 세상에, 몰락한 명문가의 후손이 스스로 부를 일구어 다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사례를 접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일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찰스 경은 남아프리카 투기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는 운이 다할 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이들과 달리, 적절한 시기에 이익을 실현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바스커빌 저택에 거처를 정한 지는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중단된 재건 사업과 지역 개선 계획들이 얼마나 방대했는지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는 자신의 생전에 이 지역 사회 전체가 자신의 행운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공개적으로 바랐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역 및 주 단위 자선 단체에 그가 기부한 관대한 후원금 소식은 이미 본지의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이 검시를 통해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역의 미신이 만들어낸 뜬소문들을 잠재울 만큼은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으며, 죽음의 원인이 자연사가 아닐 것이라고 상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찰스 경은 홀아비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다소 별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개인적인 취향은 소박했습니다. 바스커빌 저택의 실내 하인들은 배리모어라는 이름의 부부뿐이었는데, 남편은 집사로, 아내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여러 친구의 증언과 일치하는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찰스 경의 건강은 얼마 전부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안색의 변화나 숨 가쁨, 그리고 급격한 신경쇠약 증세로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친구이자 주치의인 제임스 모티머 박사 역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바스커빌 저택의 유명한 주목 산책로를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리모어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은 경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5월 4일, 찰스 경은 다음 날 런던으로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배리모어에게 짐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경은 평소처럼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할 때면 늘 시가를 피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저택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배리모어는 불안한 마음에 등불을 들고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린 뒤라 산책로를 따라 찰스 경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산책로 중간쯤에는 황야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경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경은 산책로를 따라 계속 걸어갔고, 그의 시신은 산책로 맨 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리모어의 진술에 따르면, 황야로 통하는 문을 지나면서부터 주인의 발자국 모양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부터는 발가락 끝으로 걷는 듯한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당시 머피라는 이름의 집시 말 장수가 그리 멀지 않은 황야에 있었

으나, 본인의 자백에 따르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방향에서 들려왔는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찰스 경의 몸에서는 어떠한 폭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티머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시신의 얼굴이 믿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모티머 박사는 처음에는 눈앞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이자 환자인 찰스 경이라는 사실조차 믿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호흡 곤란이나 심장 기능 저하로 사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오래된 기질적 질환이 확인되었기에 이 설명은 사실로 밝혀졌고, 검시관 배심원단 또한 의학적 증거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찰스 경의 후계자가 저택에 정착하여, 안타깝게 중단된 선행을 계속 이어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시관의 이 평범한 조사 결과가 사건과 관련해 떠돌던 낭만적인 괴담들을 잠재우지 못했다면, 바스커빌 저택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찰스 바스커빌 경의 남동생에게 아들인 헨리 바스커빌 씨가 직계 후계자입니다. 그가 살아 있다면 말입니다. 마지막 소식에 따르면 이 청년은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그에게 막대한 유산이 생겼음을 알리기 위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티머 박사는 서류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홈즈 씨,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공적인 사실들은 이 정도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확실히 흥미로운 구석이 있는 사건에 내 주의를 돌리게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로 몇 번 접하긴 했습니다만, 바티칸 카메오 사건에 너무 몰두해 있었거든요. 교황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영국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사건들을 몇 가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기사에 공개된 사실관계가 모두 담겨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건들을 보여주시지요." 그는 몸을 뒤로 기대며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었다. 그러고는 아주 무심하면서도 판결을 내리는 듯한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한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시관의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긴 이유는, 과학자로서 대중적인 미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바스커빌 저택의 이미 나쁜 명성을 더 악화시킨다면 저택이 완전히 비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을 다 밝혀봤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

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군요."

"황야에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삽니다. 그래서 이웃끼리는 서로 부대끼며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 덕분에 저는 찰스 바스커빌 경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래프터 홀의 프랭클랜드 씨와 박물학자인 스테이플턴 씨를 제외하면, 수 마일 이내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없거든요. 찰스 경은 본래 은둔하는 성격이었지만, 그가 병을 앓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과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과학적 정보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며 부시먼과 호텐토트족의 비교 해부학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찰스 바스커빌 경의 신경이 한계에 다다라 곧 끊어질 듯 위태롭다는 사실이 제게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전설을 경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저택 정원을 산책할 수는 있어도 밤에 황야로 나가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홈즈 씨, 믿기 힘드시겠지만 경은 자신의 가문에 끔찍한 운명이 드리워져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이 들려준 조상들의 기록 또한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지요. 무언가 소름 끼치는 존재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은 제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의사로서 밤에 진료를 다니실 때, 혹시 기이한 생명체를 보거나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느냐고요. 특히 후자의

질문을 던질 때면 경의 목소리는 늘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약 3주 전 저녁, 그분의 저택으로 차를 몰고 가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침 그분은 현관문 앞에 나와 계셨지요. 제가 마차에서 내려 그분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분의 눈동자가 제 어깨 너머를 향하더니,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질린 채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때 진입로 입구 쪽으로 커다란 검은 송아지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을 간신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흥분하고 겁에 질린 나머지, 제가 직접 그 동물이 있던 곳까지 내려가 주변을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 일은 그분의 마음속에 아주 깊고 불길한 인상을 남긴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그 격한 감정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읽어 드렸던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후에 벌어진 비극과 관련하여 이 일이 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그 일이 그저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며, 그분이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런던으로 떠나려 했던 건 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불안의 원인

이 아무리 허황된 것이라 해도, 그가 매일같이 겪는 극심한 초조함은 분명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잡한 도시 생활을 몇 달간 즐기다 보면 경의 기운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의 건강을 무척 걱정하던 공통의 지인 스테이플턴 씨도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사망한 날 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집사 배리모어는 마부 퍼킨스를 말에 태워 저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에 사건이 발생하고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스커빌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저는 검시에서 언급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뒷받침했습니다. 주목(yew alley)을 따라 발자국을 추적했고,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황야 입구의 지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지점 이후로 발자국 모양이 변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지요. 또한 부드러운 자갈밭 위에는 배리모어의 발자국 외에 다른 발자국은 전혀 없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시신을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찰스 경은 양팔을 벌린 채 엎드려 있었고, 손가락은 땅을 파고들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떤 강렬한 감정 때문에 심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 확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신체에는 분명 어떤 외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리모어는 검시 과정에서 한 가지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시신 주변 땅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지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시신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흔적을 말입니다."

"발자국이라고요?"

"발자국입니다."

"남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것입니까?"

모티머 박사는 잠시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대답하는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에 가까울 정도로 낮추었다.

"홈즈 씨, 그건 거대한 사냥개의 발자국이었어요!"

제3장 문제

제3장. 문제의 실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모티머 박사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에 깊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홈즈는 흥분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언가에 강렬하게 몰입했을 때면 나타나는, 눈동자에서 번뜩이는 날카롭고 건조한 광채가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걸 보셨다고요?"

"눈앞에 있는 당신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 흔적들은 시신에서 2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 전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황야에 양치기 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네. 하지만 이건 양치기 개가 아니었어."

"덩치가 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엄청나게 컸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시신 근처까지 다가오지는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오."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축축하고 으스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오."

"그 골목은 어떤 곳인가요?"

"높이가 12피트에 달하는 오래된 주목 울타리가 두 줄로 늘어서 있는데,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빽빽합니다. 그 가운데로 폭이 8피트 정도 되는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울타리와 산책로 사이에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네, 양옆으로 폭 6피트 정도 되는 잔디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주목나무 울타리 한쪽이 문으로 뚫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네, 황야로 이어지는 작은 쪽문 말입니다."

"다른 통로가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목 오솔길에 가려면 저택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황야 쪽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저 끝에 있는 여름 별채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여기까지 오셨던 건가?"

"아니요, 그는 거기서 5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모티머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사님이 보신 그 흔적들은 풀밭이 아니라 길 위에 있었던 게 맞습니까?"

풀밭에는 흔적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들은 황야로 통하는 문과 같은 쪽 길에 있었습니까?

“네, 황야로 통하는 문이 있는 쪽 길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쪽문은 닫혀 있었습니까?”

“닫혀 있고,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높았습니까?”

“높이는 4피트 정도 됩니다.”

“그럼 누구라도 그곳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쪽문 근처에서는 어떤 흔적을 보셨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단 말입니까?”

"모든 게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은 분명 그 자리에 5분에서 10분 정도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의 시가에서 재가 두 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군! 왓슨, 이 사람은 우리와 마음이 아주 잘 통하는 동료야. 그런데 이 자국들은 대체 뭐지?"

"그 작은 자갈밭에는 그의 발자국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셜록 홈즈가 초조한 듯 무릎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가 외쳤다. "이건 분명히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과학 전문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만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 자갈길 위에서 읽어낼 수 있었을 그 수많은 단서들은, 이미 오래전에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의 신발에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겠군요. 오, 모티머 박사, 모티머 박사! 어찌 나를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박사에게 따져 물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홈즈 씨, 이런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서는 당신을 불러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고 싶지 않은지는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게다가—"

"왜 망설이시는 겁니까?"

아무리 예리하고 경험 많은 탐정이라 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확실히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홈즈 씨, 그 비극이 일어난 이후로 자연의 섭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이한 일들을 몇 차례나 전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러 사람이 황야에서 바스커빌의 악마와 흡사한 괴물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생명체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동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 괴물이 거대하고, 빛을 내뿜으며, 소름 끼치도록 유령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고집 센 시골 사람과 편자공, 그리고 황야의 농부까지, 이들은 모두 전설 속의 지옥견과 똑같이 생긴 그 무시무시한 형체에 대해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담컨대 지금 그 지역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밤중에 황야를 가로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담력이 센 사람뿐일 것입니다."

"과학을 전공한 전문가이신 당신조차,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까지 내 수사는 이 세상의 일들에만 국한되어 있었네." 그가 말했다. "겸손하게나마 악과 싸워왔지만, 악의 근원 그 자체를 상대하는 건 아마 내 능력 밖의 일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자네도 저 발자국이 실재하는 증거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걸세."

원래 그 개는 사람의 목을 물어뜯을 만큼 실체가 분명한 짐승이었지만, 동시에 악마처럼 사악하기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셨군요. 하지만 모티머 박사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박사님의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대체 왜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을 조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저에게 그 조사를 맡기고 싶어 하시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한 시간 십오 분 뒤면 워털루 역에 도착할 헨리 바스커빌 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모티머 박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가 상속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사망했을 때, 저희는 이 젊은 신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캐나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더군요. 저희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찰스 바스커빌 경의 유언 집행인이자 수탁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더 없겠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다른 친척은 로저 바스커빌뿐입니다. 세 형제 중 불행한 찰스 바스커빌 경이 첫째였고, 로저는 막내였지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둘째가 바로 이 청년 헨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셋째인 로저는 가문의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는 바스커빌 가문 특유의 고집스러운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 휴고의 초상화와 판박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땅이 자신을 감당하기에 너무 좁다고 느껴 중앙아메리카로 도망쳤고, 1876년 그곳에서 황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헨리가 바스커빌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한 시간 5분 뒤면 워털루 역에서 그를 만납니다. 오늘 아침 그가 사우샘프턴에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자, 홈즈 씨, 제가 그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그곳에 발을 들인 바스커빌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찰스 바스커빌 경이 죽기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분

명 저에게 경고했을 겁니다.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후계자인 저를 그 죽음의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가난한 이 시골 마을 전체의 번영이 바로 그의 존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스커빌 저택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 찰스 바스커빌 경이 일궈놓은 모든 선한 업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혹여나 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사건을 가져와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쉽게 말해, 사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의견은, 다트무어를 바스커빌 가문의 사람들이 살기에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사악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군요. 당신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초자연적인 이론이 맞다면, 그 악령은 데번셔뿐만 아니라 런던에서도 그 젊은이에게 똑같이 해를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교구 위원회 수준의 국한된 힘만 가진 악마라니, 그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홈즈 씨, 당신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군요. 만약 당신이 이 사건과 직접 얽히게 된다면 아마 지금처럼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젊은이가 데번셔에 가더라도 런던에 있을 때만큼이나 안전할 것이라는 게 당신의 조언이군요. 그가 도착하기까지는 이제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제 제안을 따르시지요.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 집 앞문에서 긁어대는 저 스패니얼은 불러서 데려가시고, 곧장 워털루 역으로 가서 헨리 바스커빌 경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다음은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결정을 내리는 데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스물네 시간 남았습니다. 모티머 박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헨리 바스커빌 경도 함께 데려와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즈 씨." 그는 셔츠 소매 끝에 약속 시간을 휘갈겨 적더니,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살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홈즈는 계단 입구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님. 찰스 바스커빌 경이 사망하기 전에도 여러 사람이 황야에서 이 유령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홈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면의 만족감이 조용히 서려 있었다. 마음에 쏙 드는 흥미로운 과제가 눈앞에 놓였음을 의미하는 표정이었다.

"외출하나, 왓슨?"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아니,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바로 지금처럼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네. 그나저나 이건 정말 대단하군. 어떤 면에서는 정말이지 유례가 없는 일이야. 아, 브래들리의 가게를 지나게 되면, 아주 독한 샤그 담배를 1파운드만 올려달라고 전해주겠나? 고맙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녁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주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자네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내 친구에게는 고도의 정신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아주 작은 입자 하나까지 세밀하게 따져보고, 여러 가설을 세워 서로 비교하며, 어떤 점이 핵심이고 어떤 점이 부차적인지를 판단하는 그 시간 말이다. 그런 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독과 정적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클럽에서 하루를 보냈고, 저녁이 되어서야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다시 거실에 들어섰을 때는 거의 9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차, 탁자 위에 놓인 램프 불빛조차 뿌옇게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걱정은 이내 가라앉았다. 목을 죄어오며 기침을 유발한 것은 불길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독하고 거친 담배 연기였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홈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가운 차림으로 안락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입에는 검은 진흙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서류 뭉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감기라도 걸렸나, 왓슨?" 그가 물었다.

"아니요, 이 독기 어린 공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연기가 정말 꽤 자욱하긴 하군요."

"너무 두꺼워! 도저히 못 참겠군."

"그럼 창문이라도 좀 열게! 자네, 하루 종일 클럽에만 박혀 있었던 모양이군."

"이보게, 홈즈!"

"제 말이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그는 당혹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왓슨, 자네는 참 신선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자네를 상대로 내 미천한 재주를 부리는 게 아주 즐겁다네. 자, 어떤 신사가 비가 오고 진흙탕이 된 날 밖을 나갔다고 가정해 보세.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그 신사의 모자와 장화가 여전히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하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는 하루 종일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한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지. 게다가 그는 친한 친구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디에 있었겠나? 아주 명백하지 않은가?"

"글쎄요, 이건 꽤 명백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들이 가득하네. 내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 같나?"

"당신도 저처럼 꼼짝 않고 한곳에 붙박여 계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데번셔에 다녀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제 몸은 이 안락의자에 계속 붙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 두 포트와 엄청난 양의 담배를 해치

우고 말았군요. 당신이 떠난 뒤에 스탬퍼드에게 이 황야 지역의 군용 지도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지도 위를 마음으로 헤매고 있었지요. 이 정도면 지형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축척 지도 말씀이시군요?"

"아주 큽니다."

그는 지도의 한 구역을 펼쳐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이 바스커빌 저택이지요."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정확합니다. 비록 지도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길을 따라 주목나무 가로수길이 이어져 있을 겁니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그 길 오른쪽으로는 황야가 펼쳐져 있고요. 여기 건물들이 작게 모여 있는 곳이 그림펜 마을인데, 우리의 친구인 모티머 박사가 거처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반경 5마일 이내에는 듬성듬성 흩어진 집들이 아주 몇 채뿐이지요. 이야기에 언급되었던 래프터 저택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집은 아마도 그 박물학자의 거처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의 이름은 스테이플턴이었죠. 여기 하이 토어와 폴 마이어라는 황야의 농가 두 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4마일 떨어진 곳에 프린스타운이라는 거대한 죄수 교도소가 있고요. 이 흩어진 지점들 사이와 주변으로는 황량하고 생명력 없는 황야가 끝없이 펼쳐

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비극이 펼쳐졌던 무대이자, 우리 또한 그 비극을 다시 펼치는 데 한몫하게 될지도 모르는 무대입니다."

"참으로 거친 곳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배경이 아주 제격이군요. 만약 악마가 인간 세상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군요."

"악마의 대리인도 결국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저질러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모티머 박사의 추측이 맞아서 우리가 자연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힘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수사는 거기서 끝이 나겠지요. 하지만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모든 가설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창문은 다시 닫아두고 싶군요. 이상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공기가 밀폐되어야 사고가 더 집중되는 기분이 듭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상자 속에 들어갈 정도로 유별난 건 아니지만, 제 신념에 따르면 그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니까요. 자, 당신도 이 사건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어 보았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군요."

"분명 이 사건만의 독특한 성격이 있군요. 눈에 띄는 특징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발자국 모양이 변한 점 말입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티머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골목의 그 구간을 발끝을 세운 채 살금살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어떤 바보가 검시 절차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을 뿐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골목길을 발끝을 들고 살금살금 걷겠나?"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 달리고 있었네, 왓슨.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었어. 심장이 터져버릴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다가, 결국 얼굴을 땅에 처박으며 쓰러져 죽고 만 것이라네."

"무엇으로부터 도망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기 전부터 이미 공포에 질려 미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황야를 가로질러 찾아온 무언가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정신을 잃은 사람만이 저택 쪽으로 달려가기는커녕 저택에

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달아났을 겁니다. 집시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는 도움을 받기 가장 어려운 방향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 셈입니다. 게다가 그날 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신의 저택이 아니라 주목나무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남자는 노쇠하고 몸도 약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땅은 축축했고 날씨마저 궂었습니다. 내가 인정해 주었을 법한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감각을 발휘한 모티머 박사가 시가 재를 보고 추론한 대로, 그가 정말 그 자리에 5분에서 10분 동안이나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매일 저녁 황야의 입구에서 기다렸을 것 같지는 않네. 오히려 증거를 보면 그는 황야를 피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곳에서 기다렸지. 찰스 바스커빌 경이 런던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네. 이제 사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어, 왓슨. 모든 정황이 앞뒤가 맞기 시작했단 말일세. 실례가 안 된다면 내 바이올린 좀 건네주겠나? 내일 아침 모티머 박사와 헨리 바스커빌 경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세."

제4장 헨리 바스커빌 경

제4장. 헨리 바스커빌 경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친 뒤, 홈즈는 약속된 면담을 위해 가운 차림으로 기다렸다. 의뢰인들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시계가 막 열 시를 알렸을 때 모티머 박사가 들어왔고, 그 뒤를 젊은 준남작이 따랐다. 젊은 준남작은 서른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체구가 작고 눈매가 날카로운 흑안의 사내였다. 그는 몸집이 아주 단단하고 건장했으며, 짙은 검은색 눈썹에 다소 호전적인 인상을 주는 강인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붉은빛이 도는 트위드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야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 햇볕에 그을려 있었으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신사다운 품격이 느껴졌다.

“이쪽은 헨리 바스커빌 경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소개했다.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셜록 홈즈 씨, 정말 이상한 건 말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제 친구가 오늘 아침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혼자서라도 당신을 찾아왔을 겁니다. 당신이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탁월하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 제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자, 앉으시지요, 헨리 바스커빌 경. 그러니까 런던에 도착하신 이후로 직접 아주 기이한 일을 겪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홈즈 씨. 어쩌면 그저 농담일지도 모르죠. 오늘 아침에 받은 이 편지 때문입니다. 편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가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자, 우리 모두는 그것을 살피려 몸을 숙였다. 봉투는 회색빛이 도는 평범한 재질이었다. "노섬벌랜드 호텔, 헨리 바스커빌 경 앞"이라고 적힌 주소는 거친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소인은 "채링 크로스"였으며, 발송 날짜는 전날 저녁으로 찍혀 있었다.

"당신이 노섬벌랜드 호텔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홈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 앞에 앉은 방문객을 훑어보며 물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모티머 박사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결정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모티머 박사님은 분명 이미 그곳에 머물고 계시겠지요?"

"아닙니다,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말했다.

"우리가 이 호텔에 갈 계획이라는 걸 알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흠! 누군가 당신의 행적을 아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홈즈는 봉투에서 네 번 접힌 반 장 크기의 백상지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종이를 펼쳐 탁자 위에 평평하게 놓았다. 종이 한가운데에는 인쇄된 글자들을 오려 붙여 만든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목숨을 아끼고 싶거나 제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황야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황야'라는 단어에만 잉크가 묻어 있었다.

"자, 홈즈 씨."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대체 누가 내 일에 이토록 참견을 하는 건지 말해줄 수 있겠소?"

"모티머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 사건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점만큼은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 일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보낼 법한 내용입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헨리 바스커빌 경이 날카롭게 물었다. “제 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신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군요.”

“헨리 바스커빌 경, 이 방을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알아낸 사실을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죠.” 셜록 홈즈가 말했다. “우선 경의 허락을 구하여, 어제 저녁에 작성되어 발송된 것이 분명한 이 아주 흥미로운 문서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왓슨, 어제자 《타임스》지가 있나?”

“구석에 있습니다.”

“실례지만 그 신문 좀 볼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주요 기사가 실린 안쪽 페이지 말입니다.” 그는 기사들을 훑어보며 눈을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자유 무역에 관한 이 기사, 아주 훌륭하군요. 제가 이 기사에서 한 구절만 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호 관세가 당신만의 특수한 업종이나 당신이 종사하는 산업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감언이설에 속아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법안은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부를 몰아내고, 수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이 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홈즈가 만족스러운 듯 두 손을 맞비비며 기쁨에 겨워 외쳤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지 않나?”

모티머 박사는 전문가다운 흥미가 담긴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고, 헨리 바스커빌 경은 어리둥절한 기색이 역력한 검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았다.

"관세니 뭐니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그 편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군요."

"반대입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 오히려 우리는 지금 결정적인 단서를 아주 바짝 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왓슨은 저의 수사 방식에 대해 경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장이 지닌 진정한 의미까지는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왓슨,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네. '당신', '당신의', '당신의', '생명', '이성', '가치', '멀리하라', '~로부터'. 이제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보이진 않나?"

"세상에, 당신 말이 맞소! 정말 대단한 명석함이구려!" 헨리 바스커빌 경이 외쳤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남았다 하더라도, 'keep away'와 'from the'가 한꺼번에 잘려 나갔다는 사실이 그 의문을 완전히 종결해 줍니다."

"아, 이제야 알겠군. 바로 이거였어!"

"정말이지, 홈즈 씨. 이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경악한 눈으로 내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문구들이 신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 발췌한 것인지까지 정확히 맞히다니, 이건 제가 평생 겪어본 일 중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체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박사님, 제 생각에 박사님이라면 흑인의 두개골과 에스키모의 두개골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그게 바로 제 특별한 취미니까요. 차이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눈썹뼈의 돌출 정도나 얼굴의 각도, 상악의 곡선, 그리고—"

"하지만 이건 제 특기이기도 해서,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타임스》지의 정갈한 활자체와 저렴한 저녁판 신문의 조잡한 인쇄 상태가, 마치 흑인과 에스키모를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활자체를 식별하는 건 범죄 전문가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리즈 머큐리》와 《웨스턴 모닝 뉴스》를 헷갈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타임스》의 사설은 아주 독특해서, 이 문장들은 다른 어떤 신문에서도 가져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따져보면, 이 문장들이 어제 자 신문에서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즈 씨, 제가 이해한 바로는,"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누군가 가위로 이 메시지 부분을 오려냈다는 말씀이시군요."

"손톱깎이용 가위로군." 홈즈가 말했다. "날이 아주 짧은 가위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 '접근 금지(keep away)'라는 글자를 자를 때, 가위질을 두 번이나 해야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누군가 짧은 가위로 메시지를 오려낸 뒤, 풀로 붙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고무풀이군." 홈즈가 말했다.

"종이에 고무풀을 발라 놓았군요. 하지만 대체 왜 '황야'라는 단어를 써 놓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쇄된 글자 속에서는 그 단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모두 평범해서 어떤 신문을 펼쳐도 흔히 볼 수 있지만, '황야'라는 단어는 그리 자주 쓰이지 않으니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되는군요. 홈즈 씨, 이 메시지에서 다른 내용은 더 읽어내신 게 없습니까?"

"단서가 한두 개 보이긴 하지만,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온갖 정성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군요. 보시다시피 주소는 거친 글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지는 교육을 충분히 받은 이들이나 주로 읽는 신문이지요. 따라서 이 편지는 글을 쓴 사람이 마치 무식한 사람인 척 가장하려고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의 필체를 숨기려 애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당신이 자신의 글씨를 알아볼 수도 있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글자를 붙인 줄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훨씬 높게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Life'라는 단어는 제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요. 이는 단순히 부주의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고, 글자를 오려 붙이는 사람이 몹시 불안해하며 서둘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분명 중요했을 텐데,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이 단순히 부주의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만약 그가 서둘러야만 했다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이른 아침 전까지 우편함에 넣기만 하면 헨리 바스커빌 경이 호텔을 나서기 전에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에게 방해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걸까요? 대체 누구를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군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죠. 확률을 따져보고 가장 가능성 높은 쪽을 골라내는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상상력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추측은 언제나 구체적인 근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분명 이걸 추측이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 주소가 호텔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꼼꼼히 살펴보면 펜과 잉크 모두 작성자를 꽤나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단어 안에서도 펜이 두 번이나 잉크를 튀겼고, 짧은 주소란을 적는 동안 세 번이나 잉크가 끊겼습니다. 병에 든 잉크가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는 뜻이지요. 보통 개인용 펜이나 잉크병이 이런 상태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매우 희귀할 수밖에요. 하지만 호텔에서 쓰는 펜과 잉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내 확신하건대, 채링 크로스 근처 호텔들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져서 훼손된 《타임스》지의 사설 조각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기묘한 메시지를 보낸 범인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눈앞에서 불과 1, 2인치 정도 떨어진 곳에 종이를 바짝 가져다 댄 채, 글자들이 붙어 있는 그 반절 크기의 백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던지며 말했다.

"워터마크조차 찍혀 있지 않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일 뿐입니다. 이 기묘한 편지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제 다 알아낸

것 같군요. 자, 헨리 바스커빌 경, 런던에 머무시는 동안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홈즈 씨.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거나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마치 저렴한 통속 소설 속으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군요." 방문객이 말했다. "도대체 왜 누군가 나를 미행하거나 감시한다는 말입니까?"

"곧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에게 더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까?"

"글쎄요, 어떤 내용을 보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일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무엇이든 보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헨리 바스커빌 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거의 모든 시간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낸 터라, 아직 영국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 장화 한 짝을 잃어버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장화 한 짝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이보게, 선생," 모티머 박사가 외쳤다. "그건 그저 어디 둔 곳을 잠시 잊어버린 것뿐이라네. 호텔로 돌아가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사소한 일로 홈즈 씨를 번거롭게 해서 무엇하겠나?"

"글쎄요, 홈즈 씨가 일상적인 일과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말해 달라고 하셨잖습니까."

"정확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무리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화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어디선가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어젯밤 문밖에 두 짝을 다 내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한 짝밖에 없더군요. 청소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더 속상한 건, 어제 스트랜드에서 막 한 켤레를 산 거라 아직 한 번도 신어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신어보지도 않으신 부츠를 왜 닦으라고 내놓으셨습니까?"

"그건 황갈색 부츠였고, 한 번도 광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나가서 장화 한 켤레를 사셨다는 말씀이군요?"

"쇼핑을 꽤 많이 했습니다. 여기 모티머 박사께서도 같이 다니셨지요.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지주 노릇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차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부에서 지내다 보니 생활 방식이 조금 무뎌진

모양입니다. 여러 물건을 샀는데, 여기 이 갈색 부츠도 샀습니다. 6달러나 주고 산 건데, 신어보기도 전에 한 짝을 도둑맞고 말았군요."

"훔쳐 가봤자 도무지 쓸모도 없어 보이는 물건이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잃어버린 장화는 머지않아 발견될 거라는 모티머 박사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 신사 여러분." 바스커빌 경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것이 워낙 적다 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군요. 이제는 약속을 지키실 때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모였는지, 그 본론을 전부 말씀해 주시지요."

"매우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모티머 박사님, 방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얻은 우리의 과학자 친구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러고는 전날 아침에 했던 것처럼 사건의 전말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때때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여 그 이야기를 경청했다.

"글쎄요, 아주 지독한 유산을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긴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물론 그 사냥개 이야기는 유치원 시절부터 들어왔습니다. 가문의 단골 이야기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삼촌의 죽음에 관해서라면…… 글쎄요,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있어서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되는군요. 홈즈 씨는 이 사건이 경

찰이 맡아야 할 일인지, 아니면 성직자가 나서야 할 일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로 저에게 온 그 편지 건도 있습니다. 그 일도 분명 이 사건의 흐름 속에 맞물려 있겠지요."

"황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하군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게다가," 홈즈가 말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위험을 경고해 준 걸 보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네."

"아니면 그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나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것일지도 모르지."

"물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티머 박사님, 흥미로운 가설들을 여러 가지나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헨리 경,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는 당신이 바스커빌 저택으로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군."

"가문의 악령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에게서 오는 위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바로 그 점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제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홈즈 씨, 지옥에 악마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동족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최종 답변은 이겁니다."

그는 말을 내뱉으며 짙은 눈썹을 찌푸렸고, 얼굴은 거무스름한 붉은 빛으로 달아올랐다. 바스커빌 가문의 불같은 성미가 이 마지막 후손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음이 분명했다.

"그건 그렇고," 그가 말을 이었다. "방금 해주신 말씀들을 차분히 되짚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한자리에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할 내용치고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군요. 자, 홈즈 씨, 벌써 11시 반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시쯤 당신과 친구인 왓슨 박사가 저희 쪽으로 와서 점심을 같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편한가, 왓슨?"

"완벽합니다."

"그럼 저희를 기다리시면 되겠군요. 마차를 불러 드릴까요?"

"걷는 편이 좋겠네. 이번 일 때문에 마음이 꽤 어지러워서 말이야."

"기꺼이 같이 걷겠네." 동행이 말했다.

"그럼 두 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좋은 아침 되십시오!"

방문객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른한 꿈에 잠겨 있던 홈즈는 순식간에 행동파로 돌변했다.

"왓슨, 모자와 장화를 어서 챙기게! 한시가 급하네!" 홈즈가 가운 차림으로 서둘러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불과 몇 초 만에 프록코트까지 갖춰 입고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뛰어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옥스퍼드 가 방향으로 약 200야드 앞쪽에서 모티머 박사와 바스커빌 경의 모습이 여전히 보였다.

"제가 달려가서 그들을 막을까요?"

"전혀 그럴 생각 없네, 여보게 왓슨. 자네가 내 동행을 허락해 준다면, 나는 자네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하네. 우리 친구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군. 산책하기에 정말 더없이 좋은 아침이니까 말이야."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덕분에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고 나서도 그는 백 야드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우리 뒤를 따라 옥스퍼드 가로 들어섰고, 이어서 리전트 가까지 내려갔다. 도중에 일행이 멈춰 서서 상점 쇼윈도를 빤히 들여다보자, 홈즈도 그 옆에서 똑같이 쇼윈도를 살폈다. 잠시 후, 홈즈가 만족스러운 듯 짧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의 열띤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 보니, 길 건너편

에 멈춰 서 있던 한 한섬 택시가 마부와 승객을 태운 채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기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네, 왓슨! 어서 오게! 더 할 수 없다면, 일단 가까이 가서 제대로 살펴보기라도 하세."

그 순간, 마차 옆 창문 너머로 우리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날카로운 눈빛과 덥수룩한 검은 수염이 보였다. 곧이어 마차 천장의 해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마부에게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마차가 리전트가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홈즈는 다른 마차를 찾으려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빈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몰려드는 차량 사이를 뚫고 거칠게 뒤쫓아 나갔으나, 이미 거리가 너무 벌어진 뒤였다. 마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것 좀 보게!"

홈즈가 몰려드는 차량 행렬을 헤치며 씩씩거리고 나왔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지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 무슨 운도 없고, 이 무슨 형편없는 관리 상태란 말인가? 왓슨, 왓슨! 자네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일도 꼭 기록해 두게나. 내 성공담 옆에 이 실패담도 나란히 적어 두란 말이야!"

"그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스파이라니?"

"우리가 들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바스커빌 경이 런던에 머무는 동안 누군가에게 아주 밀착 감시를 당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노스엄벌랜드 호텔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첫날부터 그를 미행했다면, 둘째 날에도 당연히 미행했을 겁니다. 모티머 박사가 전설을 읽는 동안 제가 두 번이나 창가로 걸어간 것을 눈여겨보셨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네. 왓슨, 우리는 아주 영리한 자를 상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아주 뿌리가 깊네. 우리와 접촉하려는 이 세력이 선의를 품었는지 아니면 악의를 품었는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배후에 강력한 힘과 치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지네. 친구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그들을 즉시 뒤쫓았네.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놈은 아주 교활했어. 걸어서 뒤를 쫓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마차를 이용하더군. 덕분에 친구들 뒤에서 느긋하게 따라붙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앞질러 가며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네. 이 방식은 친구들이 마차를 탈 경우에도 즉시 뒤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단점도 있네."

"그렇게 되면 그는 마차꾼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번호를 알아냈어야 했는데, 정말 아쉽군요!"

"여보게, 왓슨. 내가 아무리 덜렁댄다 해도, 내가 번호를 확인하는 걸 깜빡했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2704번이 바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라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번호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군."

"당신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마차를 발견했더라면 곧장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야 했네. 그러고 나서 여유 있게 두 번째 마차를 잡아타고는, 첫 번째 마차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쫓았어야 했지. 아니면 노섬벌랜드 호텔로 가서 기다리는 편이 더 좋았을 걸세. 정체 모를 그자가 바스커빌을 집까지 따라가게 놔두었다면, 그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며 역으로 그자의 수법을 이용할 기회를 얻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상대에게 빌미를 주고 말았군. 상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주 빠르고 기민하게 파고들었어. 결국 우리의 경솔함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자를 놓치고 만 것이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리전트가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사이 모티머 박사와 그의 동행은 이미 우리 앞을 지나 멀리 사라진 뒤였다.

"그들을 뒤쫓아봤자 얻을 건 아무것도 없네." 홈즈가 말했다.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단력 있게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네. 마차 안에서 그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맹세할 수 있겠나?"

"수염에 대해서라면 맹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럴 수 있었지. 그걸 보니 아마도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군. 그렇게 정교한 임무를 맡은 영리한 사람이라면, 얼굴을 숨기려는 목적 외에 수염을 기를 이유는 없으니까. 들어오게, 왓슨!"

그는 인근의 전령 사무소 중 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지배인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

"아, 윌슨 씨. 내가 운 좋게 도와주었던 그 작은 사건을 아직 잊지 않은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명예를 지켰고, 어쩌면 제 목숨까지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보게, 자네는 과장이 심하군. 윌슨, 내 기억이 맞다면 자네 부하들 중에 카트라이트라는 친구가 있었지? 지난번 조사 때 꽤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던 친구 말이야."

"네, 선생님. 그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께 전화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5파운드짜리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군요."

밝고 영민한 인상을 가진 열네 살 소년이 매니저의 부름을 받고 나타났다. 소년은 지금 눈앞에 선 유명한 탐정을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호텔 안내서를 좀 주게." 홈즈가 말했다. "고맙네! 자, 카트라이트, 여기 차링 크로스 인근에 있는 호텔 이름이 스물세 개나 적혀 있군. 알고 있나?"

"예, 알겠습니다."

"이곳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방문하게 될 걸세."

"예, 알겠습니다."

"각 호텔에서는 먼저 바깥 문지기에게 1실링씩 주는 것으로 시작하게. 여기 23실링이 있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버린 폐지들을 보고 싶다고 전하게. 중요한 전보가 잘못 전달되어서 그걸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찾고 있는 건 가위로 구멍을 몇 군데 오려낸 타임스지의 중앙 페이지 아닙니까? 여기 타임스지 한 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예요. 눈에 확 띄니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건마다 외부 문지기가 홀 문지기를 불러올 겁니다. 그 문지기에게도 1실링을 주도록 하세요. 여기 23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3건 중 20건 정도는 전날 버린 쓰레기가 이미 태워졌거나 치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머지 세 건의 경우에는 종이 더미를 보여줄 텐데, 그 속에서 이 타임스지의 페이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낼 확률은 극히 희박할 겁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10실링은 여유분으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저녁 전까지 베이커가에 있는 저에게 전보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 왓슨, 이제 전보로 2704호 마차 운전사의 신원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화랑 중 한 곳에 들러 호텔에 가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도록 하죠."

제5장 끊어진 세 가닥의 실마리

제5장. 끊어진 세 가닥의 실마리

셜록 홈즈는 마음을 원하는 대로 분리해내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우리가 얽혀 있던 그 기묘한 사건은 두 시간 동안이나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보였다. 그는 벨기에 현대 거장들의 회화 작품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미술에 대해서는 아주 얄팍한 지식뿐이었지만, 갤러리를 나설 때부터 노섬벌랜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오로지 예술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헨리 바스커빌 경께서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말했다. "오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라고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의 장부를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을 보니 바스커빌이라는 이름 뒤에 두 이름이 더 추가되어 있었다. 하나는 뉴캐슬의 테오필루스 존슨과 그 가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알턴의 하이 로지에 사는 올드모어 부인과 하녀였다.

"분명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존슨일 거요." 홈즈가 문지기에게 말했다. "변호사 아닌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다리를 약간 저는 사람 말일세."

"아닙니다, 선생님. 이분은 탄광주인 존슨 씨입니다. 아주 정정하신 분이죠. 선생님과 연배도 비슷하실 겁니다."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손님! 그분은 오랫동안 저희 호텔을 이용해 오셨고, 저희도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아, 이제 확실히 알겠군요. 올드모어 부인도 말입니다. 그 이름이 기억나는 것 같군요. 호기심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친구를 마주치는 일도 종종 있는 법이니까요."

"그분은 몸이 약한 부인이십니다, 선생님. 남편분은 예전에 글로스터의 시장을 지내셨지요. 그분은 런던에 오실 때마다 항상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고맙네. 하지만 그녀를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군. 왓슨, 방금 나눈 질문들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네."

우리가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친구에게 이토록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가 묵는 호텔에는 머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들은 친구를 감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네. 자, 이 점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건 마치—어이, 여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헨리 바스커빌 경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한 손에는 낡고 먼지투성이인 장화 한 짝을 들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였다. 간신히 입을 뗐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말투와는 판이하게 다른, 아주 거칠고 투박한 서부 지방의 사투리였다.

"이 호텔 사람들이 나를 아주 바보로 아는 모양이군!" 그가 외쳤다. "조심하지 않으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거야. 맙소사, 그 친구가 내 사라진 장화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요. 홈즈 씨, 나는 농담을 아주 잘 받아주는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도가 지나쳤어."

"아직도 그 장화를 찾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로 산 갈색 부츠라고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 없어진 건 오래된 검은색 구두입니다."

"뭐라고요! 설마 그 말씀은……?"

"내 말은 바로 그 뜻이라니까요. 세상에 구두가 딱 세 켤레뿐이었단 말입니다. 새로 산 갈색 구두, 오래된 검은색 구두,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에나멜 구두 말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갈색 구두 한 켤레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검은색 구두 한 켤레를 몰래 훔쳐 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찾았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빤히 쳐다만 보지 말고 어서 대답 좀 해보쇼!"

안절부절못하는 독일인 웨이터 한 명이 현장에 나타났다.

"아닙니다, 선생님. 호텔 곳곳을 다 뒤져보며 물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장화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장 매니저를 불러서 이 호텔을 바로 나가겠다고 말할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선생님.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것만큼은 꼭 챙겨 주십시오. 이 도둑놈 소굴에서 제가 잃게 될 마지막 물건이니까요. 아, 아아, 홈즈 씨, 이런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신경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언가 아주 심각한 고민이라도 있는 표정이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저 설명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겪은 일 중 가장 미친 것 같고, 가장 기이한 일이니까요."

"아마도 가장 기이한 점은……."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당신은 직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군요. 헨리 바스커빌 경,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삼촌의 죽음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오백 건의 중대 사건 중에서도 이토록 깊이 파고든 사건이 있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실마리를 쥐고 있고, 십중팔구 그중 하나가 우리를 진실로 인도해 줄 겁니다. 잘못된 실마리를 쫓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결국 올바른 길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즐겁게 점심을 먹었다. 식사 중에는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만든 그 사건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이후 우리

가 이동한 개인 응접실에서야 비로소 홈즈는 바스커빌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바스커빌 저택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번 주말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홈즈가 말했다. "당신의 결정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에서 누군가 당신을 끈질기게 미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혹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만약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모티머 박사, 오늘 아침 제 집에서 나올 때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모티머 박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미행이라니요! 대체 누가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혹시 다트무어 근처에 이웃이나 지인 중에 검고 풍성한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잠시만요. 아, 그렇군요. 찰스 바스커빌 경을 모시는 집사 배리모어는 검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사람입니다."

"하! 배리모어는 어디 있지?"

"그가 저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런던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보 양식 하나 가져오게. '헨리 경을 맞이할 준비는 다 되었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수신인은 바스커빌 저택의 배리모어 씨로 적게. 가장 가까운 전보국은 어디인가? 그림펜이라고? 좋네. 그럼 그림펜 우체국장에게 두 번째 전보를 한 통 더 보내도록 하지. '배리모어 씨에게 직접 전달할 것. 만약 부재중이라면, 이 전보를 노섬벌랜드 호텔의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다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면 배리모어가 데번셔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저녁이 되기 전에 알 수 있을 걸세."

"그렇군요." 바스커빌이 말했다. "그런데 모티머 박사님, 도대체 배리모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옛 관리인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은 벌써 4대째 저택을 돌보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와 그의 아내는 이 지역에서 손꼽힐 만큼 품행이 단정한 부부입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바스커빌이 덧붙였다. "저택에 가족들이 머물지 않는 동안에는, 저 사람들이 아주 호사스러운 집을 차지한 채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배리모어가 찰스 바스커빌 경의 유언장으로 이득을 본 게 조금이라도 있나?" 홈즈가 물었다.

"그와 그의 아내가 각각 500파운드씩 받았습니다."

"하! 그자들은 자기들이 이걸 받게 되리란 걸 알고 있었나?"

"네, 찰스 바스커빌 경은 자신의 유언장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부디 부탁드리는 말입니다만,"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찰스 바스커빌 경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너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 또한 그분으로부터 천 파운드를 물려받았으니까요."

"정말입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은요?"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소액의 유산도 있었고, 여러 공공 자선 단체에 기부된 금액도 상당했다. 나머지는 전부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돌아갔다.

"남은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74만 파운드입니다."

홈즈가 놀란 듯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걸린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군.” 그가 말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부자라는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는 그의 유가증권을 조사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지요. 전체 자산 가치는 거의 백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필사적인 도박이라도 걸 법한 판이군요. 모티머 박사,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 여기 있는 우리의 젊은 친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불쾌한 가설이라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그렇다면 저택은 누가 물려받게 됩니까?”

“찰스 바스커빌 경의 남동생인 로저 바스커빌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저택과 영지는 먼 친척인 데스몬드 가문으로 상속될 예정입니다. 제임스 데스몬드는 웨스트모어랜드에 사는 연로한 성직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세부 사항들이 아주 흥미롭군요. 혹시 제임스 데스몬드 씨를 만나보셨습니까?”

“네, 예전에 찰스 바스커빌 경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모습에 성인 같은 삶을 사는 분이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찰스 경이 간곡히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소박한 취향을 가진 남자가 찰스 바스커빌 경이 남긴 수천 파운드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는 저택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될 겁니다. 상속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또한 현재 소유자가 유언으로 다르게 지정하지 않는 한, 그가 재산도 물려받게 될 겁니다. 물론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으니, 유언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헨리 바스커빌 경, 유언장은 작성해 두셨습니까?"

"아니요, 홈즈 씨, 아직 못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제야 겨우 알게 된 터라 그럴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작위와 영지는 반드시 재산과 함께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돌아가신 불쌍한 숙부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재산을 유지할 돈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스커빌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택과 토지, 그리고 자금은 반드시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 지체 없이 데번셔로 내려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셔서는 안 됩니다."

"모티머 박사도 저와 함께 가실 겁니다."

"하지만 모티머 박사님은 돌봐야 할 환자들도 있고, 댁과는 수 마일이나 떨어져 살고 계십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어쩌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 헨리 바스커빌

경, 반드시 누군가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말입니다."

"홈즈 씨, 혹시 직접 와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상황이 정말 위급해진다면 제가 직접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상담 의뢰가 워낙 많고 사방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을 기약 없이 비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금 당장도 영국의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협박범에게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파멸적인 스캔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트무어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홈즈가 내 팔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 친구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자네가 곤경에 처했을 때 곁에 둘 사람 중 그보다 더 든든한 사람은 없을 거네. 나만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 제안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바스커빌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힘차게 움켜쥐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왓슨 박사님." 그가 말했다. "제 사정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박사님도 저만큼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만약 바스커빌 저택까지 내려와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험의 예감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켰다. 게다가 홈즈의 말은 내게 큰 찬사로 다가왔고, 나를 동행자로 맞아준 바스커빌 경의 열정적인 태도 또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보다 더 보람차게 시간을 보낼 방법은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게 아주 상세히 보고해야 하네." 홈즈가 말했다. "위기가 닥치면, 분명히 닥칠 테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시를 내리겠네. 토요일쯤이면 모든 준비가 끝나겠지?"

"왓슨 박사님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완벽합니다."

"그럼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토요일에 패딩턴역에서 출발하는 10시 30분 기차를 타고 만납시다."

우리가 막 떠나려 일어서던 참이었다. 그때 바스커빌이 승리했다는 듯 환성을 내지르더니, 방 구석으로 몸을 날려 찬장 아래에서 갈색 장화 한 짝을 꺼내 들었다.

"없어졌던 내 장화잖아!" 그가 외쳤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난관도 이토록 쉽게 사라져 버리면 좋겠군!" 셜록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이 방을 샅샅이 뒤져보았거든요."

"나도 그랬소." 바스커빌이 말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 뒤졌소."

"그때는 분명히 그 안에 장화가 없었네."

"그렇다면 우리가 점심을 먹는 사이에 웨이터가 그걸 거기 놓아둔 게 분명하군요."

독일인은 불러냈으나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잡아뗐고, 그 어떤 조사로도 진상을 밝혀낼 수 없었다. 쉴 새 없이, 그것도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이는 작은 수수께끼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더니,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된 셈이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얽힌 그 참혹한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지난 이틀 사이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줄을 이었다. 인쇄된 편지가 도착한 일부터 시작해서, 한섬 택시 안에 숨어 있던 검은 수염의 스파이, 새로 산 갈색 장화가 없어진 일, 낡은 검은 장화가 없어진 일, 그리고 이제는 그 갈색 장화가 다시 돌아온 일까지 말이다.

베이커가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홈즈는 침묵을 지켰다. 미간을 찌푸린 채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나처럼 그 역시 이 기묘하고도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의 체계적인 계획 속에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며 머리를 풀가동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오후 내내, 그리고 밤늦도록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직전, 전보 두 통이 도착했다. 첫 번째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배리모어가 저택에 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음. 바스커빌.

두 번째는 이것이다.

지시하신 대로 호텔 스물세 곳을 방문했으나, 안타깝게도 《타임스》지의 오려낸 지면은 찾지 못했습니다. 카트라이트.

"왓슨, 내 추리의 실마리 두 개가 끊겨 버렸군.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사건만큼 자극적인 것도 없지. 이제 다른 냄새를 찾아 나서야겠어."

"그 스파이를 태워다 준 마차 운전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공식 명부에서 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려고 이미 전보를 보내 두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벨을 울린 소리는 답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문이 열리더니, 누가 봐도 바로 그 사람임이 분명한 거친 인상의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주소에 사는 신사분이 2704번을 찾으셨다고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마차를 몰아온 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신 건지 직접 여쭤보려고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곧장 달려왔습니다."

"이보게, 난 자네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네." 홈즈가 말했다. "오히려 내 질문에 명확히 대답만 해준다면, 사례로 반 소버린을 주겠네."

"허허, 오늘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이군요, 틀림없습니다." 마부 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손님, 무엇을 물어보려 하셨습니까?"

"우선 성함과 주소부터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고 싶을지도 모르니까요."

"보로, 터피가 3번지, 존 클레이턴입니다. 제 마차는 워털루 역 근처에 있는 시플리 마구간에 있습니다."

셜록 홈즈는 그 내용을 메모했다.

"자, 클레이튼. 오늘 아침 10시에 이 집을 찾아와 지켜보다가, 그 뒤에 두 신사를 따라 리전트가로 내려간 그놈에 대해 전부 말해봐."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약간은 무안해 보였다. "아니, 말해봤자 별 소용 없겠군요. 이미 저만큼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신사분께서 본인은

탐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이보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네. 나한테 무언가를 숨기려 들다간 자네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 방금 손님이 자네에게 형사라고 말했다고 했나?"

"네, 그랬습니다."

"그가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가 저를 떠났을 때 말입니다."

"그가 더 하는 말은 없었나요?"

"그가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홈즈가 승리했다는 듯 나를 향해 눈을 번뜩였다. "오, 그가 자기 이름을 말했단 말입니까? 경솔한 짓을 했군요. 그가 말한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분 성함은," 마부가 말했다. "셜록 홈즈 씨였습니다."

마차꾼의 대답을 들은 내 친구가 그토록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홈즈는 잠시 동안 망연자실한 채 침묵에 잠겼다. 그러더니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왓슨.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이야!" 그가 말했다. "내 검만큼이나 빠르고 유연한 펜싱 실력을 갖췄어. 아까는 아주 깔끔하게 나를 찔러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셜록 홈즈라고 했나?"

"네, 손님. 그분이 바로 그 신사의 성함이었습니다."

"훌륭하군! 그를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 보게."

"그는 아홉 시 반쯤 트라팔가 광장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본인이 형사라고 밝히더니, 하루 종일 아무 질문 없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기니 두 개를 주겠다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노섬벌랜드 호텔로 차를 타고 내려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신사 두 명이 호텔에서 나오더니 택시 승강장에서 마차를 잡아탔습니다. 우리는 그 마차를 따라갔고, 마차는 이 근처 어딘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글쎄요,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차를 탔던 손님이라면 분명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거리 중간쯤에서 멈춰 서서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신사 두 분이 걸어서 우리 앞을 지나갔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 베이커가를 내려가 그 길을 계속 따라—"

"알고 있네." 홈즈가 말했다.

"리전트가를 4분의 3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손님이 천장에 달린 작은 문을 열어젖히더니, 곧장 워털루 역까지 최대한 빨리 달려달라고 소리쳤지요. 그래서 제가 암말을 채찍질해 몰았더니 10분도 안 되어 역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은 아주 매너 좋게 2기니를 지불하고는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 떠나려던 찰나, 그분이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방금 셜록 홈즈 씨를 태워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면 흥미로워할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을 듣고 홈즈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뒤로 그를 더 본 적은 없습니까?"

"그가 역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셜록 홈즈 씨는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마부은 머리를 긁적였다. "글쎄요, 그분 인상을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는 마흔 살 정도로 보였고, 키는 중간 정도였는데 손님보다는 두세 인치 정도 작았습니다. 옷차림은 아주 귀티가 났고, 끝을 네모나게 다듬은 검은 수염에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군요."

"그의 눈 색깔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반 소버린 금화입니다. 정보를 더 가져오신다면 금화 한 닢을 더 드리죠. 그럼, 안녕히!"

"안녕히 주무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 클레이튼은 낄낄거리며 떠나갔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를 돌아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 번째 실마리마저 끊겼으니, 결국 제자리걸음이군." 그가 말했다. "교활한 악당 같으니! 이놈은 우리 번호를 알고 있었어. 헨리 바스커빌 경이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도, 리전트가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챈 것도 알고 있었지. 내가 마차 번호를 알아내어 운전사를 붙잡으려 할 거라 짐작하고는, 이런 뻔뻔한 메시지를 보낸 거야. 왓슨, 이번에는 정말이지 우리 검을 맞댈 만한 가치가 있는 적을 만났네. 런던에서 체크메이트를 당하다니. 자네가 데번셔에서는 부디 운이 좋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마음이 영 편치 않군."

"무슨 일 때문입니까?"

"자네를 보내는 문제 말일세. 이건 참으로 고약한 일이야, 왓슨. 고약하고도 위험한 일이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군. 그래, 친구여, 웃어도 좋네. 하지만 장담하건대,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 다시 베이커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난 정말 기쁠 걸세."

제6장 바스커빌 저택

제6장. 바스커빌 저택

약속한 날이 되자 헨리 바스커빌 경과 모티머 박사가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계획대로 데번셔를 향해 출발했다. 셜록 홈즈 씨는 역까지 나와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헤어지기 전 마지막 당부와 조언을 건넸다.

"왓슨, 이론이나 의심을 먼저 제시해서 자네의 판단을 흐리고 싶지는 않네." 홈즈가 말했다. "자네는 그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사실만을 나에게 보고해주게. 이론을 세우는 건 나에게 맡겨두고 말이야."

"어떤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사건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젊은 바스커빌과 이웃들 사이의 관계, 혹은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저도 지난 며칠간 직접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사실이 있다면, 차기 상속인인 제임스 데스몬드 씨는 성품이 매우 온화한 노신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괴롭힘이 그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헨리 바스커빌 경이 황야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될 사람들뿐입니다."

"우선 저 배리모어 부부를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결백하다면 그것은 잔인한 불의가 될 것이고, 만약 유죄라면 범인을 잡을 모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꼴이 될 테니까요. 아니요, 그들은 일단 용의자 명단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저택에 마부 한 명이 있습니다. 황야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도 두 명 있고요. 우리의 친구인 모티머 박사가 있는데,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지요. 자연학자인 스테이플턴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그의 누이도 있습니다. 래프터 저택의 프랭클랜드 씨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는 인물이며, 그 외에도 이웃이 한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신이 아주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상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기는 챙기셨겠지요?"

"네, 저도 그것들을 챙겨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밤낮으로 리볼버를 가까이 두십시오. 경계를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은 이미 1등석 객차를 확보한 채 승강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요,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의 질문에 모티머 박사가 대답했다. "한 가지는 확실히 맹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행당하지 않았습니다. 밖을 나설 때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우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두 분은 언제나 함께 지내오셨으리라 짐작합니다만, 맞습니까?"

"어제 오후만 빼고요. 저는 런던에 올라오면 하루 정도는 오로지 즐겁게 노는 데 쓰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외과 의사 대학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지요." 바스커빌이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문제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헨리 경, 부디 혼자 다니지 마십시

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다른 쪽 장화는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것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가십시오."

열차가 승강장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가 덧붙였다.

"헨리 바스커빌 경, 꼭 명심하십시오. 모티머 박사가 들려준 그 기묘한 전설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기운이 드높아지는 어둠의 시간대에는 절대로 황야에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말입니다."

우리가 승강장을 멀리 지나쳐 왔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엄격한 분위기를 풍기는 홈즈가 미동도 없이 서서, 멀어져 가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여정은 빠르고도 즐거웠다. 나는 두 동행과 더 친밀하게 안면을 익히고, 모티머 박사의 스패니얼 강아지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갈색이었던 흙은 붉은빛을 띠기 시작했고, 벽돌 건물들은 화강암 건물로 바뀌었다. 울타리가 잘 쳐진 들판에는 붉은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무성하게 자란 풀과 식물들을 보니 이곳의 기후가 더 습할지는 몰라도 훨씬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젊은 바스커빌은 창밖을 간절한 눈빛으로 내다보다가, 데번 지역의 익숙한 풍경을 발견하자 기쁨에 겨워 크게 소리쳤다.

"그곳을 떠난 뒤로 세계 곳곳을 꽤 많이 돌아다녔다네, 왓슨 박사."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 비견될 만한 곳은 단 한 군데도 보지 못했어."

"데번셔 출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내가 말했다.

"그것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만큼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여기 우리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둥근 머리 모양을 보니 켈트족의 특징이 나타나 있군요. 그 머릿속에는 켈트족 특유의 열정과 강렬한 애착이 깃들어 있지요. 불행히 돌아가신 찰스 바스커빌 경의 머리는 아주 희귀한 형태였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게일족과 아이버인족의 성질이 절반씩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마지막으로 바스커빌 저택을 보았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십 대 소년이었고, 저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남쪽 해안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 후 저는 곧장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로 떠났습니다. 왓슨 박사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은 제게도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 황야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소원을 쉽게 들어드릴 수 있겠군요. 저기 바로 황야가 보이니까요." 모티머 박사가 객차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푸른 들판과 완만한 숲의 곡선 너머로, 멀리 회색빛의 우울한 언덕 하나가 솟아 있었다. 기묘하게 들쭉날쭉한 정상은 멀리서 보아 흐릿하고 모호했는데,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환상적인 풍경 같았다. 바스커빌은 한참 동안 그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열망 어린 얼굴을 보니, 자신의 혈통을 가진 이들이 오랫동안 지배하며 깊은 흔적을 남긴 그 기이한 땅을 처음 마주한 소감이 어떠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는 트위드 양복을 입고 미국식 억양을 쓰는, 평범한 기차 객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둡고 표정이 풍부한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그가 고귀한 혈통을 지녔으며 열정적이고 지배적인 기질을 가진 그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껴졌다. 짙은 눈썹과 예민한 콧날, 그리고 커다란 담갈색 눈동자에는 자부심과 용기, 그리고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만약 저 험악한 황야에서 어렵고 위험한 탐색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해도,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열차가 작은 간이역에 멈춰 섰고, 우리는 모두 내렸다. 낮게 세워진 하얀 울타리 너머 밖에는 두 마리의 코브(cob)가 끄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도착이 꽤나 큰 사건이었는지, 역장과 역무원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어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평화롭고 소박한 시골 풍경이었지만, 나는 대문 곁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두운 제복을 입은 그들은 군인처럼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짧은 소총에 몸을 기댄 채 우리가 지나가는 모습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피고 있었다. 험상궂은 얼굴에 마디가 굵은 작은 체구의 마부가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경례를 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마차는 넓고 하얀 길을 따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길 양옆으로는 완만한 초원이 물결치듯 굽이쳤고, 짙푸른 잎사귀 사이로 박공지붕을 얹은 오래된 집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햇살 가득한 시골 풍경 뒤편에는, 들쭉날쭉하고 불길한 언덕들이 가로막은 황야의 길고 어두운 곡선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늘 검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차는 옆길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수레바퀴가 지나가며 깊게 파인 좁은 길을 따라 위로 굽어 올라갔다. 길 양옆으로는 이끼가 무겁게 드리워진 높은 둑이 이어졌고, 그 사이로 두툼한 혀고사리들이 무성했다. 저무는 햇살 아래 구리빛으로 빛나는 고사리와 얼룩진 가시덤불이 번뜩였다.

길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어졌다. 우리는 좁은 화강암 다리를 건너, 회색 바위 사이로 거품을 일으키며 세차게 쏟아지는 시냇물을 끼고 돌아갔다. 길과 시냇물 모두 떡갈나무와 전나무 덤불이 빽빽한 계곡을 따라 위로 굽이쳐 올라갔다. 바스커빌 경은 길을 꺾을 때마다 감탄사를 내뱉으며 주변을 열정적으로 살폈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으나, 내 눈에 비친 시골 풍경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저물어가는 계절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노란 낙엽들이 길을 카펫처럼 덮고 있었고,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잎들이 우리 위로 흩날렸다. 썩은 식물들이 쌓인 곳을 지나자 바퀴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잦아들었다. 내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자연이 바

스커빌 가문의 후계자를 맞이하며 마차 앞에 던져놓은 슬픈 선물처럼 보였다.

"이보게!" 모티머 박사가 외쳤다. "이게 대체 뭔가?"

황야의 외곽으로 뻗어 나온, 관목이 뒤덮인 가파른 언덕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언덕 꼭대기에는 기마상처럼 단단하고 선명한 형체의 기마병 하나가 서 있었다. 검고 엄숙한 모습의 그 병사는 팔뚝 위에 소총을 겨눈 채, 우리가 달리는 길을 주시하고 있었다.

"퍼킨스, 이게 대체 뭔가?" 모티머 박사가 물었다.

운전사가 좌석에서 몸을 반쯤 돌리며 말했다. "선생님, 프린스타운 교도소에서 탈옥한 죄수가 있습니다. 탈옥한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교도관들이 모든 도로와 역을 감시하고 있어도 아직 놈의 모습은커녕 그림자도 못 봤다고 합니다. 이 근처 농부들도 그 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글쎄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5파운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이 잘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5파운드를 노리는 건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는 보통 범죄자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저지를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는 대체 누구입니까?"

"노팅힐의 살인마, 셀던입니다."

그 사건은 내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다. 범행 방식이 유독 잔혹했던 데다, 살인범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난 까닭 없는 잔혹함 때문에 홈즈 역시 깊은 관심을 보였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범인의 행태가 워낙 악랄했던 탓에, 그가 온전한 정신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사형 선고가 감형되기도 했다.

마차가 언덕을 넘어서자 눈앞으로 광활한 황야가 펼쳐졌다. 울퉁불퉁하고 험준한 돌무더기와 바위 언덕들이 얼룩덜룩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황야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우리는 몸을 떨었다. 저 황량한 평원 어딘가에, 자신을 내쫓은 인류 전체를 향해 악의를 품은 채 짐승처럼 굴속에 숨어 있는 그 악마 같은 남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황량한 황무지와 서늘한 바람, 그리고 어둑해지는 하늘에 이런 상상까지 더해지니 분위기는 한층 더 음산해졌다. 바스커빌조차 침묵을 지키며 코트를 몸에 더 바짝 여몄다.

우리는 비옥한 평원을 뒤로하고 지나왔다. 이제 뒤를 돌아보니, 낮게 깔린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며 시냇물을 금빛 실타래로 바꾸어 놓았다. 쟁기질을 새로 한 붉은 흙과 울창하게 뒤엉킨 숲 위로도 햇빛이 눈부시게 일렁였다.

앞으로 뻗은 길은 거대한 적갈색과 올리브색 경사지를 지나며 점점 더 황량하고 거칠어졌다. 그 경사지 곳곳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흩어져 있었다. 가끔 돌로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린 황야의 오두막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그 어떤 덩굴 식물도 자라지 않아 외곽선이 투박하고 거칠게만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컵 모양으로 움푹 파인 지형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몰아친 폭풍우에 뒤틀리고 굽은 왜소한 참나무와 전나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무들 위로 높고 좁은 탑 두 개가 솟아 있었다. 마부가 채찍으로 그곳을 가리켰다.

"바스커빌 저택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기된 뺨과 번뜩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몇 분 뒤 우리는 저택의 정문 앞에 다다랐다. 정문은 기괴한 문양의 철제 장식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양옆에는 이끼가 얼룩진 채 풍파에 깎인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기둥 꼭대기에는 바스커빌 가문의 상징인 멧돼지 머리 장식이 놓여 있었다. 관리인의 집은 검은 화강암이 무너져 내리고 서까래가 뼈대처럼 드러난 폐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맞은편에는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남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금광 수익으로 짓기 시작한 첫 결실이었다.

우리는 정문을 지나 가로수길로 들어섰다. 낙엽이 깔린 길 위로 수레바퀴 소리가 다시 잦아들었고, 오래된 나무들은 머리 위로 가지를 뻗어 어둑한 터널을 만들었다. 바스커빌은 길게 뻗은 어두운 진입로를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끝자락에서 저택이 마치 유령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몸을 떨었다.

"여기였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주목(朱木) 길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젊은 후계자는 침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곳에 있으면 삼촌께서 왜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누구라도 겁에 질릴 만한 곳입니다. 반년 안에 이곳에 전기등을 한 줄로 죽 설치하겠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1,000촉광짜리 스완 전구와 에디슨 전구를 달아놓으면, 이곳을 다시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가로수길이 끝나자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나타났고, 그 너머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저택의 윤곽이 보였다. 중앙 건물은 육중한 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으로 현관이 돌출되어 있었다. 건물 정면 전체는 담쟁이덩굴로 뒤덮여 있었는데, 창문이나 가문 문장이 드러난 곳마다 덩굴을 깎아낸 듯 어두운 장막 사이로 군데군데 빈틈이 보였다. 중앙 건물에서는 고대의 성채처럼 톱니 모양의 총안이 뚫린 두 개의 탑이 솟아 있었다. 탑의 좌우로는 검은 화강암으로 지은 비교적 근대의 날개채들이 이어졌다. 격자무늬가 촘촘한 육중한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고, 가파른 경사의 지붕 위로 높게 솟은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 바스커빌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키가 큰 남자가 현관 그늘에서 걸어 나와 마차 문을 열었다. 현관의 노란 불빛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비쳤다. 여인은 밖으로 나와 남자가 우리의 가방을 내려주는 것을 도왔다.

"헨리 바스커빌 경, 바로 집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모티머 박사가 물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말입니다."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저녁이라도 좀 드시고 가셔야지요."

"아니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남아서 집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저보다는 배리모어가 안내해 드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밤낮 가리지 말고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마차가 진입로를 따라 멀어지며 바퀴 소리가 잦아들 때쯤, 헨리 바스커빌 경과 나는 홀로 들어섰다. 뒤이어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가 마주한 공간은 훌륭한 방이었다. 천장은 높았고, 세월에 검게 변한 거대한 참나무 서까래가 굵직하게 지나가며 웅장한 느낌을 주었다. 높은 철제 화로 뒤편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커다란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다. 긴 여정 탓에 몸이 굳어버린 헨리 경과 나는 불길을 향해 손을 내밀어 온기를 느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중앙 등불의 은은한 빛 아래, 오래된 스테인드글라스로 된 높고 좁은 창문과 참나무 벽판, 사슴 머리 박제와 벽에 걸린 가문 문장들이 어스름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상상했던 그대로군요."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전형적인 오래된 가문의 저택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문이 500년 동안 살아온 곳이 바로 이 홀이라니, 생각할수록 경건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볼 때, 어두운 얼굴에 소년 같은 열정이 가득 피어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가 서 있는 곳에는 빛이 내리쬐었지만, 벽을 따라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마치 검은 천막처럼 그의 머리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배리모어는 우리 짐을 방으로 옮겨다 주고 돌아왔다. 그는 잘 훈련된 하인답게 절제된 태도로 우리 앞에 섰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각진 검은 수염과 창백하면서도 기품 있는 이목구비를 지닌 아주 인상적인 외모의 사내였다.

"지금 바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릴까요, 주인님?"

"준비됐나?"

"몇 분이면 됩니다, 경. 방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동안 저희 부부가 곁에서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바뀐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저택에도 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라니요?"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경. 찰스 바스커빌 경께서는 아주 은둔적인 생활을 하셨기에 저희가 그분의 필요를 세심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께서는 당연히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하실 테니, 가사 인력도 그에 맞춰 조정하셔야 할 겁니다."

"부인과 함께 떠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손님께서 아주 편하실 때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귀댁의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저희와 인연을 맺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옛 인연을 끊어버리는 일은 저로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사의 창백한 얼굴에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스치는 듯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선생님.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찰스 바스커빌 경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곳의 모든 풍경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스커빌 저택에서는 앞으로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생님, 저희가 조만간 자리를 잡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께서 베풀어 주신 후의 덕분에 그럴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을 객실로 안내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래된 홀의 상층부에는 사각형 난간이 둘러진 회랑이 있었고, 이 회랑은 이중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심 지점에서 시작된 두 개의 긴 복도는 건물 전체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으며, 그 복도를 따라 모든 침실이 나 있었다. 내 방은 바스커빌의 방과 같은 구역에 있었

고, 거의 바로 옆방이었다. 이 방들은 저택의 중앙 부분보다 훨씬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다. 밝은 색의 벽지와 수많은 양초 덕분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을 짓누르던 침울한 인상도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었다.

홀에서 바로 이어진 식당은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식당은 긴 형태였는데, 가족들이 앉는 높은 단과 하인들이 사용하는 낮은 바닥 사이에는 한 계단이 놓여 있었다. 한쪽 끝에는 악사들이 머무는 발코니가 식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검은 들보들이 가로질러 지나갔고, 그 너머 천장은 연기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다. 만약 타오르는 횃불들이 줄지어 불을 밝히고, 옛 시절의 연회처럼 화려한 색채와 소박한 즐거움이 가득했다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검은 옷을 입은 신사 두 명이 가림등이 달린 램프가 만드는 작은 빛의 테두리 안에 앉아 있었기에, 목소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마음마저 가라앉았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기사부터 리전시 시대의 신사까지, 각기 다른 시대의 복장을 한 조상들의 초상화가 희미한 선을 그리며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침묵 어린 시선은 우리를 위압했다. 우리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나 역시 식사를 마치고 현대식 당구실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안도했다.

"세상에, 참으로 우울한 곳이군요."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이곳 분위기에 적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삼촌께서 이런 저택에서 홀로 사셨다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셨는지 이해가 가네요. 어쨌든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은 일찍 쉬도록 하죠. 내일 아침이 되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도 모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현관문 앞의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 너머로는 두 숲이 거세지는 바람에 몸을 흔들며 신음하듯 소리를 냈다.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의 차가운 빛줄기 속에서, 나무 너머로 울퉁불퉁한 바위 언덕과 쓸쓸한 황야의 길고 낮은 곡선이 보였다. 나는 커튼을 닫았다. 방금 본 풍경이 오늘의 마지막 인상으로 남기에 더할 나위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져,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였다. 멀리서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지만, 그 외에 오래된 저택에는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아주 명확하고 울림이 있으며, 결코 착각할 수 없는 소리였다. 그것은 여인의 흐느낌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숨이 막히는 듯한, 억눌린 신음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으며, 분명 저택 안에서 난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삼십 분 동안 기다렸으나, 시계 종소리와 벽을 타고 흐르는 담쟁이덩굴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7장 메리핏 저택의 스테이플턴 가족

제7장. 메리핏 저택의 스테이플턴 가족

다음 날 아침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은 바스커빌 저택에서 처음 겪었던 그 암울하고 잿빛 같던 기억을 씻어내 주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과 내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높은 격자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창문을 장식한 문장(紋章)을 통과한 빛은 바닥에 물감처럼 번지는 색채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황금빛 햇살을 받은 어두운 벽판은 마치 청동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전날 저녁,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짓눌렀던 방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집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할 것 같군요!"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여행하느라 지친 데다 마차를 타고 오느라 몸까지 으슬으슬 추웠으니, 이곳이 온통 음산하게만 보였던 겁니다. 이제 몸도 개운하고 컨디션도 좋아지니, 다시 모든 것이 밝고 활기차 보이는군요."

"하지만 단순히 상상력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예를 들어, 밤중에 누군가—제 기억으로는 여성이었습니다만—흐느끼는 소리를 혹시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군요. 반쯤 잠든 상태에서 분명 비슷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기다려 보았지만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그저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말로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였다고 확신합니다."

"당장 이 일에 대해 물어봐야겠네."

헨리 경이 벨을 눌렀다. 그리고 배리모어를 불러 우리가 겪은 일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주인의 질문을 듣는 집사의 창백한 안색이 한층 더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헨리 바스커빌 경, 이 집에는 여자가 둘뿐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한 명은 다른 쪽 별채에서 자는 식모이고, 다른 한 명은 제 아내입니다. 그 소리가 아내에게서 났을 리는 없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긴 복도에서 햇살을 온 얼굴에 받고 서 있는 배리모어 부인을 우연히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체구가 크고 무표정하며, 이목구비가 굵직한 데다 입매가 엄격하게 다물어진 여성이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눈만큼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나를 흘긋 쳐다보았다. 밤중에 울었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만약 그녀가 울었다면 남편인 배리모

어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며 들통날 위험을 자초했다. 그는 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일까? 창백한 얼굴에 잘생긴 외모, 검은 수염을 기른 이 남자의 주변에는 이미 미스터리와 우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도 바로 그였기에, 노인의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정황은 오로지 그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혹시 우리가 리전트가에서 마차를 타고 가던 인물을 보았던 것이, 결국 배리모어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수염이 같았을 수도 있다. 마차 운전사는 키가 다소 작은 남자라고 묘사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을 수도 있었다. 이 의문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을까? 우선은 그림펜 우체국장을 만나 확인해 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시험용 전보가 정말로 배리모어의 손에 직접 전달되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적어도 셜록 홈즈에게 보고할 내용은 생길 터였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아침 식사 후에 검토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덕분에 나는 여유롭게 산책을 나설 수 있었다. 황야의 가장자리를 따라 4마일가량 걷는 길은 무척이나 쾌적했다. 걷다 보니 마침내 작은 회색빛 마을이 나타났다. 그 마을에는 다른 건물들보다 높이 솟은 커다란 건물 두 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는 여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티머 박사의 저택이었다. 마을의 우체국장이자 식료품점 주인인 남자는 그 전보의 내용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그가 대답했다. "지시하신 대로 배리모어 씨에게 전보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누가 가져왔습니까?"

"여기 우리 애가 있네. 제임스, 자네 지난주에 저택에 있는 배리모어 씨에게 그 전보를 전달했었지, 그렇지?"

"네, 아버지. 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의 손에 직접 들어갔단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때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해줄 수가 없었죠. 대신 배리모어 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인은 곧바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배리모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분명히 그자가 다락방에 있었다니까요."

"그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가 다락방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분명히 부인이라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체국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전보를 못 받았단 말입니까?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그건 배리모어 씨 본인이 직접 항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사를 더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하지만 홈즈가 꾸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배리모어가 내내 런던에 없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설령 그가 정말로 런던에 없었다고 가정

해 보자. 찰스 바스커빌 경의 마지막 생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그였고, 영국으로 돌아온 새로운 후계자를 미행하기 시작한 사람도 그였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그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대리인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불순한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인가? 그가 바스커빌 가문을 박해해서 얻을 이득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더 타임스》지의 사설에서 오려낸 그 기묘한 경고문을 떠올렸다. 그것 역시 그의 소행일까, 아니면 그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누군가가 꾸민 일일까?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헨리 바스커빌 경이 제안했던 내용뿐이었다. 즉, 바스커빌 가문을 겁주어 쫓아낼 수만 있다면 배리모어 가족이 편안하고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가설 말이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젊은 준남작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그물을 짜듯 얽혀 있는, 이 깊고 치밀한 음모를 다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홈즈 스스로도 수많은 자극적인 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이보다 더 복잡한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잿빛의 쓸쓸한 길을 되돌아 걸으며, 나는 친구가 하루빨리 이 고민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나누어 짊어지러 이곳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다. 나는 모티머 박사일 것이라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나를 뒤쫓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낯선 이였다. 그는 체구가 작고 날씬했으며, 수염 없이 깔끔하게 면도한 단정한 얼굴의 사내

였다. 서른에서 마흔 사이로 보이는 그는 금발에 턱이 갸름했고, 회색 정장에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깨에는 식물 표본을 담는 양철 상자를 메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초록색 나비채를 들고 있었다.

"왓슨 박사님, 무례를 범했다면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달려와 말했다.

"이 황야에서는 다들 소탈하게 지내는 편이라, 격식을 차려 인사를 나누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공통의 친구인 모티머에게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군요. 메리핏 저택의 스테이플턴이라고 합니다."

"그물과 상자만 보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스테이플턴 씨가 박물학자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아보신 겁니까?"

"모티머 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당신이 지나갈 때 박사가 진료실 창가에서 당신을 가리키더군요. 마침 가는 길이 같아서, 따라가 인사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여정 중에 별다른 일 없이 무사하신지요?"

"그분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께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뒤라, 새로 작위를 이어받은 분이 이곳에 머물기를 거부할까 봐 우리 모두 내심 걱정했습니

다. 부유한 분이 이런 곳까지 내려와 은둔하듯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곳 시골 마을에 그분이 머물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께서는 이 일과 관련해 혹시 미신적인 두려움을 품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가문을 괴롭히는 악마 같은 개의 전설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 사람들은 어찌나 잘 믿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황야에서 그런 괴물을 봤다고 맹세할 준비가 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이야기가 찰스 바스커빌 경의 상상력을 강하게 사로잡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경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은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라도 나타난다면 병든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지요. 제 생각에 그분은 마지막 밤, 주목(朱木)이 늘어선 골목에서 정말로 그런 무언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무척 아꼈고 그분의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혹여나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내심 두려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 친구 모티머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가 찰스 바스커빌 경을 뒤쫓았고, 그 때문에 경이 공포를 느껴 사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더 나은 설명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셜록 홈즈 씨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곁에 있던 동료의 평온한 얼굴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슬쩍 보니, 그는 나를 놀라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왓슨 박사님, 모르는 척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사님이 탐정으로서 남기신 기록이 여기까지 전해졌으니, 그 업적을 기리면서 박사님 본인만 모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모티머 박사가 박사님의 성함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박사님을 몰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건, 셜록 홈즈 씨가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홈즈 씨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저 또한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질문에는 답해 드릴 수가 없군요."

"그분이 직접 저희를 찾아와 주실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지금 당장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할 다른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분이라면 우리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어두운 사건에 실마리를 던져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또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움이나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저 친구인 헨리 경을 방문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경계심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참견을 했다는 꾸지람을 들어 마땅합니다. 약속하건대, 다시는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갈라져 나와 황야를 가로질러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풀길에 다다랐다. 오른쪽에는 바위가 흩뿌려진 가파른 언덕이 솟아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곳을 화강암 채석장으로 썼다고 한다. 우리를 향해 깎아지른 절벽 면은 어두운 빛을 띠었고, 바위 틈새마다 고사

리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멀리 언덕 너머에서는 회색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황야 길을 따라 적당히 걷다 보면 메리핏 저택이 나옵니다." 그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제 누이를 소개해 드리고 싶군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헨리 바스커빌 경의 곁을 지켜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청구서들이 떠올랐다. 그런 것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홈즈는 내게 황야 근처의 이웃들을 조사하라고 분명히 일러두었다. 나는 스테이플턴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길을 따라 내려갔다.

"황야는 정말 경이로운 곳입니다."

그는 물결치듯 굽이치는 구릉을 둘러보며 말했다. 길게 이어진 초록빛 능선은 마치 거대한 파도 같았고, 그 꼭대기는 마치 기괴한 파도가 몰아치듯 들쭉날쭉한 화강암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황야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지요. 이 땅이 품고 있는 경이로운 비밀들을 당신은 상상조차 못 하실 겁니다. 이토록 광활하면서도 황량하고, 또 이토록 신비롭다니 말입니다."

"그럼,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곳에 온 지는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새로 온 사람이라 부르겠지요. 찰스 바스커빌 경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도 이사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워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 지역을 샅샅이 탐험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이 근방을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알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주 험난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북쪽을 보십시오. 거대한 평원 위로 기묘한 언덕들이 솟아 있습니다. 저 풍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까?"

"말을 타고 달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실제로 그 생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지금까지 여러 명이나 됩니다. 여기 여기저기 빽빽하게 흩어져 있는 저 밝은 초록색 점들이 보이십니까?"

"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비옥해 보이는군요."

스테이플턴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기가 바로 거대한 그림펜 늪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곳에서 발을 한 번 잘못 디디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예외 없이 죽음을 면치 못하죠. 바로 어제도 황야의 조랑말 한 마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놈은 결국 나오지 못했지요. 늪 구멍 밖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버티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지만, 결국 늪이 놈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건기에도 저곳을 건너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가을비가 내린 뒤에는 정말 끔찍한 곳이 됩니다. 그런

데도 저는 저 늪의 한복판까지 들어갔다가도 무사히 돌아오곤 하죠. 이런, 세상에! 저 불쌍한 조랑말이 또 한 마리 있군요!"

초록빛 사초 사이로 갈색 물체가 이리저리 구르고 뒤틀렸다. 그러더니 고통에 몸부림치는 긴 목이 위로 솟구쳤고, 황야에는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으나, 동행한 이의 담력은 나보다 훨씬 강해 보였다.

"사라졌어요!" 그가 말했다. "늪이 삼켜버린 겁니다. 이틀 사이에 벌써 두 마리째군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날씨가 건조할 때면 그곳에 들어가는 버릇이 들어서, 늪의 손아귀에 붙잡히기 전까지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거대한 그림펜 늪은 정말이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 그 늪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택할 수 있는 길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 길들을 찾아냈지요."

"하지만 왜 그렇게 끔찍한 곳까지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 멀리 보이는 언덕들이 보입니까? 저곳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년에 걸쳐 늪이 서서히 차올라 사방을 에워싸는 바람에, 언덕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거든요. 만약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지만 있다면, 희귀한 식물과 나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운을 시험해 보지요."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발 부탁이니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그가 말했다. "자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책임이 될 걸세. 장담컨대, 자네가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네. 오직 복잡한 지형지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네."

"이보게!" 내가 외쳤다. "저게 대체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픈, 길고 낮은 신음 소리가 황야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 소리는 공기 전체를 가득 채웠으나,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같던 그것은 이내 거대한 포효로 불어났고, 다시금 애처롭게 맥동하는 흐느낌으로 잦아들었다. 스테이플턴이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황야는 참으로 기묘한 곳이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게 먹잇감을 찾는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 소리라고들 합니다. 전에도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진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가슴이 서늘해진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앞에는 초록빛 골풀이 군데군데 얼룩진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 광활한 대지 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오직 우리 뒤편의 바위 언덕 위에서 까마귀 한 쌍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선생님은 교육을 잘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괴한 소리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늪에서는 가끔 기묘한 소리가 나기도 하네. 진흙이 가라앉거나 물이 차오르면서 나는 소리겠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이거나."

"아니요, 아니요. 그건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혹시 알락해오라기가 울어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거의 멸종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아주 보기 드문 새입니다. 하지만 이 황야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요, 우리가 들은 그 소리가 마지막 남은 알락해오라기의 울음소리였다고 해도 전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내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기괴하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으로 기묘한 곳이지요. 저기 언덕을 좀 보십시오. 저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파른 경사면 전체가 회색의 둥근 돌 고리들로 덮여 있었는데, 적어도 스무 개는 족히 되어 보였다.

"저건 뭐죠? 양 우리인가요?"

"아니요, 저곳은 우리 선조들이 살던 집입니다. 선사 시대 사람들은 이 황야에 빽빽하게 모여 살았지요. 그 이후로 특별히 그곳에 거주한 사람이 없었기에, 그들이 남긴 작은 생활 흔적들을 마치 그대로 둔 것처럼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저것들은 지붕이 벗겨진 채 남겨진 그들의 움집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안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쓰던 화로와 침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긴 꽤 큰 마을 아닙니까?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죠?"

"신석기 시대 인류—연대는 알 수 없음."

"그가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는 이 경사면에서 가축을 방목했습니다. 그러다 청동검이 석기를 대신하기 시작하자 주석을 캐는 법도 익혔지요. 맞은편 언덕에 파인 거대한 도랑을 보십시오. 저것이 그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왓슨 박사님. 황야를 조사하다 보면 아주 기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분명 사이클로피데스일 겁니다."

작은 파리나 나방 한 마리가 우리 앞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러자 스테이플턴은 엄청난 에너지와 속도로 그 벌레를 쫓아 돌진하기 시작했다. 내 눈앞에서 그 벌레가 거대한 늪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내 지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초록색 그물을 공중에 휘두르며, 풀숲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넘으며 벌레의 뒤를 쫓았다. 회색 옷을 입고 지그재그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

은 마치 거대한 나방 그 자체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놀라운 활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위험한 늪에서 발을 헛디딜까 봐 겁이 나 그 추격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인이 길가 근처에 서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을 보니 메리핏 저택이 있는 쪽에서 온 모양이었지만, 황야의 굴곡진 지형 때문에 아주 가까이 올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내가 전해 들었던 바로 그 스테이플턴 양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황야에는 어떤 종류의 숙녀라도 보기 드물뿐더러, 누군가 그녀를 미인이라고 묘사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내게 다가오는 여인은 분명 미인이었으며, 아주 보기 드문 분위기를 풍겼다. 남매 사이의 차이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을 정도였다. 스테이플턴은 밝은 색 머리카락에 회색 눈을 가진 중간 톤의 인상이었으나, 그녀는 내가 영국에서 본 그 어떤 흑발의 여인보다도 피부가 어두웠고, 날씬하고 우아하며 키도 컸다. 그녀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형태였는데, 그 선이 워낙 고르고 반듯하여 예민한 입술과 아름답고 검은, 열망에 찬 눈동자가 아니었다면 자칫 무표정해 보였을지도 모를 정도였다. 완벽한 몸매에 우아한 옷차림까지 갖춘 그녀는, 황량한 황야의 길 위에서 마치 낯선 환영처럼 보였다. 내가 몸을 돌리자 그녀의 시선은 오빠를 향해 있었고, 이내 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모자를 들어 올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그녀가 먼저 건넨 말에 내 모든 생각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돌아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장 런던으로 곧장 돌아가세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발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툭툭 쳤다.

"내가 왜 돌아가야 하죠?" 내가 물었다.

"설명할 길이 없군요." 그녀는 무언가 간절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끝마다 묘한 혀 짧은 소리가 섞여 나왔다.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그 황야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도착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녀가 외쳤다. "경고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왜 모르나요? 당장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밤이라도 떠나란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세요! 쉿, 오라버니가 오고 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마세요. 저기 말꼬리풀 사이에서 저 난초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황야에는 난초가 아주 풍부하답니다. 물론 당신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엔 너무 늦게 오셨지만요."

스테이플턴은 추격을 멈추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은 격렬한 움직임 탓에 상기되어 있었다.

"안녕, 베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인사가 아주 다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자, 잭. 자네 지금 아주 열이 올랐군."

"맞아요, 사이클로피데스를 좇고 있었거든요. 아주 희귀한 종이라 늦가을에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죠. 놓치다니 정말 아쉽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작고 빛나는 눈동자는 소녀와 나를 번갈아 가며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이미 통성명은 나누신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헨리 경에게 황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마도 헨리 바스커빌 경일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그저 미천한 평민일 뿐이지만, 그의 친구입니다. 제 이름은 왓슨 박사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풍부한 얼굴 위로 짜증 섞인 홍조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었군요." 그녀가 말했다.

"말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나 보군요." 그녀의 오빠가 똑같이 의아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왓슨 박사가 그냥 방문객이 아니라 아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 버렸네요." 그녀가 말했다. "난초에게 꽃이 피는 시기가 이른지 늦은지는 박사님께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계속 같이 가 주실 거죠? 머립핏 저택도 구경하러 가요."

조금만 걸어가자 목적지가 나타났다. 황량한 황야에 자리 잡은 저택이었다. 한때 번창하던 시절에는 어느 목축업자의 농장이었으나, 지금은 개보수를 거쳐 현대식 주택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택 주위로는 과수원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황야의 다른 곳이 그렇듯 나무들은 성장이 더뎌 뒤틀리고 꺾여 있었다. 그 때문에 집 전체에서 초라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풍겼다.

우리를 맞이한 이는 낯설고 주름이 깊으며 녹슨 빛깔의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 하인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택과 꼭 어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넓은 방들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고, 그 가구들을 보니 어떤 여인의 세련된 취향이 느껴지는 듯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화강암 조각이 박힌 황야를 바라보았다. 지평선 끝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풍경을 보며 나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교양 있는 신사와 아름다운 여인을 이런 곳까지 오게 만들었단 말인가.

"참으로 묘한 곳을 골랐지, 안 그래?"

그는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린 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렇지, 베릴?"

"아주 행복해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 있지 않았다.

"학교를 운영했었지요."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북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제 성격에 교사라는 일은 기계적이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젊

은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어린 정신을 형성하도록 돕고, 제 성격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제게 매우 소중한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저희를 돕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면서 학생 세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학교는 그 타격을 극복하지 못했고, 제 자본의 상당 부분도 돌이킬 수 없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즐거운 동료애를 잃은 것만 아니었다면 저는 제 불운을 오히려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식물학과 동물학에 깊은 관심이 있는 제게 이곳은 무궁무진한 연구 분야를 제공하니까요. 제 누이 또한 저만큼이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왓슨 박사님,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창밖의 황야를 바라보며 지은 표정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당신보다는 아마 당신 여동생에게 더 그렇겠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결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책도 있고, 연구할 거리도 있으며, 흥미로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님은 본인 분야에서 아주 박식한 분이시지요. 돌아가신 찰스 바스커빌 경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주 잘 알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제가 오늘 오후에 방문하여 헨리 바스커빌 경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실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분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려 두지요. 우리가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탠다면, 그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왓슨 박사, 위층으로 올라가서 제 나비 표본들을 좀 보시겠습니까? 영국 남서부에서는 아마 가장 완벽한 수집품일 겁니다. 표본들을 다 구경하실 때쯤이면 점심 식사도 거의 준비될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서둘러 내 임무로 돌아가고 싶었다. 황야의 우울한 분위기, 불운한 조랑말의 죽음, 그리고 바스커빌 가문의 섬뜩한 전설과 맞물려 들려오던 기이한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슬픔으로 물들였다. 게다가 이 막연한 감정들 위에 스테이플턴 양의 분명하고도 뚜렷한 경고가 더해졌다. 그녀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진지하게 경고했기에, 그 이면에 분명 중대하고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는 권유를 모두 뿌리치고, 우리가 왔던 풀이 무성한 길을 따라 곧장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지름길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다. 도로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길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스테이플턴 양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숨 가쁘게 달려온 탓에 얼굴이 아름답게 상기되어 있었고, 한 손으로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왓슨 박사님을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자를 쓸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지금 멈추면 오라버니가 저를 놓칠지도 몰라요. 박사님을 헨리 바스커빌 경으로 착각하는 어처구

니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은 박사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 부디 못 들은 걸로 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스테이플턴 양." 내가 말했다. "나는 헨리 경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의 안위는 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헨리 경이 런던으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겁니까?"

"여자의 변덕이에요, 왓슨 박사님. 저를 더 잘 알게 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일에 매번 이유를 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서려 있던 그 떨림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도 기억하고요. 제발,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테이플턴 양. 이곳에 온 뒤로 저는 사방에서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 거대한 그림펜 늪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곳곳에 초록빛 풀밭이 보이지만, 발을 들이는 순간 속절없이 빠져들고 말지요. 길을 안내해 줄 이조차 없는 그런 늪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전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경고를 반드시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스쳤으나, 내 물음에 답할 때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왓슨 박사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저와 제 오빠는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은 저희 집까지 황야를 가로질러 산책하는 것을 즐기셨기에, 저희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죠. 경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런 비극이 닥치니, 경이 표현했던 그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가족 중 다른 분이 이곳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을 때,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분이 마주하게 될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를 드려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제가 전하려던 말은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냥개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만약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를 그곳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곳은 그의 가문에 늘 비극만을 가져다준 곳입니다. 세상은 넓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가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곳은 위험한 곳이니까요. 헨리 바스커빌 경의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확실히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스테이플턴 양,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 정도의 내용뿐이었다면, 왜 오라버니가 당신의 말을 엿듣는 걸 꺼리시는 겁니까? 당신이 한 말은 오라버니나 그 누구라도 딱히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오라버니는 저택에 사람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저 황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저택에 사람이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만약 제가 헨리 바스커빌 경을 떠나게 만들 만한 말을 했다는 걸 아시면 오라버니께서 무척 화를 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할 도리를 다했으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네요. 안 그러면 오라버니께서 저를 찾으실 테고, 제가 당신을 만났다는 걸 눈치채실지도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몸을 돌려 흩어진 바위들 사이로 사라졌고, 불과 몇 분 만에 자취를 감췄다. 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인 채 바스커빌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제8장 왓슨 박사의 첫 번째 보고서

제8장. 왓슨 박사의 첫 번째 보고서

이제부터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셜록 홈즈에게 보낸 내 편지들을 옮겨 적으며 사건의 경과를 따라가려 한다. 한 페이지가 유실되긴 했으나, 그 외에는 내가 쓴 그대로를 옮겼다. 이 편지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아무리 기억이 또렷하다 한들,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의구심을 그 어떤 기억보다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바스커빌 저택, 10월 13일.

친애하는 홈즈에게,

그동안 보낸 편지와 전보 덕분에, 신에게 버림받은 듯한 이 외진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꽤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황야의 기운이 영혼 깊숙이 스며든다. 그 광활함과 더불어 기묘한 매력까지 말이다. 일단 이 황야의 품에 들어서면 현대 영국의 흔적은 모두 뒤로 밀려난다. 대신 발길 닿는 곳마다 선사 시대 사람들의 삶

과 일터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길을 걷다 보면 잊힌 민족이 남긴 집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그들의 무덤과 신전이었을 거대한 선돌들도 눈에 들어온다. 상처 입은 듯 울퉁불퉁한 언덕을 배경으로 늘어선 회색 돌집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살던 시대에서 멀어진 기분이 든다. 만약 가죽 옷을 입고 털이 덥수룩한 원시인이 낮은 문을 통해 기어 나와 부싯돌 화살촉을 활시위에 끼우는 모습을 본다 해도,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나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이상한 점은, 이토록 척박한 땅에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빽빽하게 모여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쫓기는 처지였기에 다른 이들이 탐내지 않는 이 땅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종족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나를 보낸 임무와는 거리가 멀며, 지극히 실용적인 당신의 사고방식에는 아마 전혀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아니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에 대해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무관심이 나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러니 이제 다시 헨리 바스커빌 경에 관한 사실들로 돌아가겠다.

지난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던 건, 오늘까지 딱히 전해 줄 만한 중요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때가 되면 차근차근 들려주겠다. 하지만 그전에 우선, 현재 상황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먼저 알려 두어야겠다.

내가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사건 중 하나는 황야로 도망친 탈옥수 사건이다. 현재로서는 그가 멀리 달아났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 덕분에 이 지역의 외딴 집들에 사는 주민들은 한시름 놓은 상태다. 그가 도주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그동안 그를 목격했다거나 그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 적은 전혀 없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황야에 계속 머물렀을 리는 만무하다. 물론 몸을 숨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황야에 널린 돌집 중 어디라도 그에게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야의 양 한 마리를 잡아 죽이지 않는 한 먹을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며, 덕분에 외곽 지역의 농부들도 한결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다.

우리 집에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네 명이나 있어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플턴 일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곳에는 하녀 한 명과 나이 든 하인, 그리고 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은 체격이 그리 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노팅힐의 범죄자처럼 악랄한 자가 침입하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과 저 모두 그들의 처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부인 퍼킨스를 그곳에 보내 하룻밤 자고 오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스테이플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친구인 바스커빌 경이 이 아름다운 이웃 여인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활동적인 성격임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 외딴곳에서는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흘러가는데, 그녀는 매우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서는 이국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풍기는데, 이는 차분하고 감정 변화

가 없는 그녀의 오빠와는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오빠 역시 내면에는 뜨거운 불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가 그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상당해 보인다. 그녀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치 자신의 말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끊임없이 오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눈빛에는 건조한 광채가 서려 있고, 얇은 입술은 단호하게 다물려 있는데, 이는 확고하면서도 어쩌면 냉혹할지도 모를 그의 성품을 보여준다. 그를 관찰해 본다면 꽤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는 첫날에 바스커빌 경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우리 둘을 데리고 사악한 휴고의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장소로 향했다. 우리는 황야를 가로질러 몇 마일이나 되는 길을 이동했다. 그곳은 전설의 분위기를 자아낼 만큼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었다. 험준한 바위 언덕들 사이로 난 짧은 골짜기를 지나자, 흰 솜풀이 점점이 흩뿌려진 넓은 풀밭이 나타났다. 그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바위 두 개가 솟아 있었다. 윗부분이 마모되어 뾰족하게 깎인 그 바위들은 마치 거대한 괴수의 부식된 송곳니처럼 보였다. 모든 면에서 그곳은 옛 비극의 배경과 일치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무척 흥미를 보였다. 그는 스테이플턴에게 인간의 일에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할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믿는지 한두 번 물은 게 아니었다. 경은 가볍게 말을 건넸지만, 실제로는 매우 진지한 태도였다. 스테이플턴은 답변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보다 훨씬 적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바

스커빌 경의 기분을 고려해 자신의 온전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듯했다. 그는 어떤 가문들이 악한 기운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스테이플턴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대중적인 믿음과 뜻을 같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메리핏 저택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스테이플턴 양과 처음 알게 된 것도 바로 그곳이었다. 헨리 경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강하게 매료된 듯 보였고, 그 마음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면 내가 크게 오해한 것은 아닐 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그녀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로 그 남매를 보지 못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다. 오늘 밤 그들이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이런 혼처라면 스테이플턴에게도 매우 반가운 일일 텐데, 이상하게도 헨리 경이 누이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 강한 불쾌감을 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가 누이를 몹시 아끼고 그녀 없이는 외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누이가 이토록 빛나는 결혼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지독한 이기심일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두 사람의 친밀함이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 그가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헨리 경을 절대로 혼자 내보내지 말라는 당신의 지시는 앞으로 더욱 까다로운 임무가 될 것 같다. 만약 우리가 마주한 다른 문

제들에 연애 사건까지 더해진다면 말이다. 당신의 명령을 글자 그대로 수행하다가는 나의 평판이 금세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정확히는 목요일에 모티머 박사가 우리와 점심을 함께했다. 그는 롱 다운의 고분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선사 시대의 해골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 사실에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다. 그토록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열정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을 정도다. 그 뒤에 스테이플턴 남매가 방문했고, 인자한 박사는 헨리 바스커빌 경의 요청에 따라 우리 모두를 주목나무 길로 안내했다. 그 비극적인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주목나무 길은 높게 다듬은 울타리 벽 사이로 길게 뻗은 음울한 산책로다. 길 양옆으로는 좁은 잔디밭이 깔려 있다. 길 끝에는 낡아서 무너져가는 여름 별채가 하나 있다. 길 중간쯤에는 황야로 통하는 문인 황야 문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노신사가 시가 재를 남겼다. 그 문은 걸쇠가 달린 하얀 나무 문이다. 문 너머에는 광활한 황야가 펼쳐져 있다.

나는 이 사건에 관한 당신의 이론을 떠올리며,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노신사가 그곳에 서 있었을 때, 황야를 가로질러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노신사를 너무나 공포에 질리게 했고, 결국 노신사는 정신을 잃은 채 죽음의 공포와 탈진 속에서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다. 노신사가 도망쳤던 길은 길고 어두운 터널 같은 그 길이었다.

그런데 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친 것일까? 황야의 양치기 개였을까? 아니면 검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괴물 같은 유령 사냥개였을까? 이 일에 인간의 개입이 있었을까? 창백한 얼굴로 주위를 살피던 배리모어가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흐릿하고 막연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난번 편지를 쓴 이후에 만난 이웃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라프터 홀에 사는 프랭클랜드 씨라는 분인데, 우리 집에서 남쪽으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삽니다. 백발에 얼굴이 붉은 노인인데, 성미가 아주 불같습니다. 영국 법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 소송에 엄청난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저 싸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싸우는 데다, 어떤 문제든 양쪽 입장 모두를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요.

때로는 통행권을 막아버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길을 열라고 협박해도 절대 안 열겠다고 버팁니다. 또 어떤 때는 남의 대문을 제 손으로 직접 부수고는, 아주 먼 옛날부터 그곳에 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인에게 무단 침입으로 고소해 보라고 맞서기도 합니다. 옛 영지나 공동체의 권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그는, 그 지식을 페른워시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공격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최근에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마을 거리에서 승전 행진을 하듯 환대를 받기도 하고, 혹은 허수아비가 불타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일곱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마 이 소송들이 그의 남은 재산을 전부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도 기세가 꺾여 앞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겠지요.

법 문제만 제외하면 그는 꽤 친절하고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하셨기에 굳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요즘 그는 아주 기묘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가인 그는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 지붕에 누워 탈옥한 죄수를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낼 요량으로 하루 종일 황야를 훑고 있습니다. 그가 에너지를 이런 곳에만 쓴다면 참 좋을 텐데, 소문에는 그가 모티머 박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사가 롱 다운의 고분에서 신석기 시대 해골을 발굴했는데, 유족의 동의 없이 무덤을 파헤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우리 삶이 단조로워지지 않게 도와주며, 때로는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약간의 웃음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탈옥한 죄수와 스테이플턴 일가, 모티머 박사, 그리고 라프터 홀의 프랭클랜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배리모어 부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리모어가 정말 이곳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런던에서 보내셨던 시험용 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우체국장의 증언을 보면 그 시험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즉, 전보가 전달되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은 특유의 직설적인 성격대로 즉시 배리모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전보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배리모어는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소년이 직접 당신의 손에 그것을 건네주었습니까?" 헨리 바스커빌 경이 물었다.

배리모어는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때 저는 상자 보관실에 있었고,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제게 올라왔습니다."

"답신은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오. 아내에게 뭐라고 답할지 일러주었더니, 아내가 내려가서 적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자진해서 그 화제를 다시 꺼냈다.

"헨리 바스커빌 경, 오늘 아침 경께서 던지신 질문들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혹시 제가 경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이라도 했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헨리 바스커빌 경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그를 안심시켜야 했다. 마침 런던에서 주문한 옷들이 모두 도착한 참이었기에, 경은 그에게 예전에 입던 옷들을 꽤 넉넉히 내주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배리모어 부인에게 흥미가 생겼네. 그녀는 체구가 크고 단단한 데다 식견도 좁지만, 아주 품행이 단정하고 금욕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지. 감정의 동요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던한 인물이라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첫날 밤, 그녀가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 이후로도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몇 번이나 목격했네. 무언가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게 분명해. 때로는 그녀를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배리모어가 집안의 폭군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 나는 전부터 이 남자의 성격에 무언가 기이하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느껴왔지만, 어젯밤의 사건으로 내 의구심은 극에 달했네.

그 자체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다시피 나는 잠귀가 매우 밝은 편인데, 이 저택을 지키기 시작한 이후로는 잠을 더욱 설치고 있다. 어젯밤 새벽 2시쯤, 누군가 내 방 앞을 살금살금 지나가는 발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살짝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길고 검은 그림자가 따라붙듯 움직이고 있었다. 촛불을 손에 들고 복도를 조용히 걷는 어떤 남자가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그는 셔츠와 바지만 입은 차림이었고 맨발이었다. 실루엣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키를 보니 배리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매우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는데, 그 모습 전체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은밀함이 느껴졌다.

복도는 홀을 둘러싼 발코니 때문에 끊겼다가, 건너편에서 다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쫓았습니다. 발코니를 돌아 나가니 그는 이미 건너편 복도 끝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니, 그가 방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들은 모두 가구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라, 그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미스터리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처럼, 빛을 일정하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따라 기어갔고, 문 모퉁이 너머를 살며시 엿보았습니다.

배리모어는 창가에 몸을 웅크린 채 유리창에 촛불을 바짝 대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얼굴을 반쯤 돌리고 있었는데, 황야의 어둠 속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 굳어 있었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무언가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그러다 깊은 신음 소리를 내더니, 초조한 듯한 몸짓으로 촛불을 꺼버렸다. 나는 즉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발소리가 돌아오는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은밀하게 들려왔다. 한참 뒤, 내가 얕은 잠에 들었을 무렵 어디선가 열쇠가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음울한 저택에서는 분명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실체를 밝혀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내게 오직 사실만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기에, 나의 추측을 늘어놓아 당신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다. 오늘 아침 헨리 바스커빌 경과 긴 대화를 나누었으며, 어젯밤 내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다. 지금 당장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보고서는 꽤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것이다.

제9장 황야의 불빛 — 왓슨 박사의 두 번째 보고서

제9장. 황야에 비친 불빛 [왓슨 박사의 두 번째 보고]

바스커빌 저택, 10월 15일.

친애하는 홈즈에게,

임무 초기에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지만, 지금은 그만큼 밀린 이야기를 몰아치듯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사건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으니까요. 지난 번 보고서는 창가에 선 배리모어의 모습에서 급히 끝맺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들은 당신을 꽤 놀라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명확해졌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상

황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험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 복도를 따라 내려가 배리모어가 전날 밤 머물렀던 방을 살펴보았다. 그가 그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응시하던 서쪽 창문에는 다른 창문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 창문이 황야를 가장 가까이서 내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 창문에서는 나무 두 그루 사이로 난 틈 덕분에 황야를 바로 내려다볼 수 있지만, 집 안의 다른 창문들로는 황야를 멀리서나마 겨우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리모어가 오직 이 창문을 통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 황야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밤이 워낙 어두웠기에 그가 어떻게 누군가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지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나는 혹시 어떤 연애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은밀한 움직임과 아내의 불안해하는 모습도 설명이 된다. 그는 인물이 꽤 훤칠해서 시골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내가 방으로 돌아온 뒤 들었던 그 문 열리는 소리 역시, 그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스스로 이렇게 추론했다. 비록 나중에 내 의심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지라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의심을 품었었는지 말해주겠다.

배리모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진실이 무엇이든,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서재에서 바스커빌 경을 만났고,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놀라워 보이지는 않았다.

"배리모어가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네. 그래서 그에 대해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지." 그가 말했다. "자네가 말한 그 시간쯤에, 복도에서 그가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를 두세 번 정도 들었거든."

"어쩌면 그가 매일 밤 그 창문만을 찾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안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만약 그렇다면, 그를 미행해서 대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걸세. 자네 친구 홈즈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군."

"그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이 제안한 대로 행동할 게 분명합니다." 내가 말했다. "배리모어를 뒤쫓아 그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 들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보세."

"하지만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귀가 좀 어둡다네. 어차피 그 점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지. 오늘 밤은 내 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려보세."

헨리 바스커빌 경은 즐거운 듯 두 손을 비볐다. 황야에서의 다소 정적인 삶을 보내던 그에게 이번 모험은 일상의 활력이 되는 듯 보였다.

바스커빌 경은 찰스 바스커빌 경의 설계도를 작성했던 건축가, 그리고 런던에서 온 건설업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조만간 이곳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될 모양이다. 플리머스에서 장식가와 가구 제작자들도 올라왔다. 우리 친구가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만큼 원대한 계획과 충분한 재력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저택이 개보수되고 가구까지 새로 갖춰지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완성해 줄 아내뿐일 것이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만약 상대 여성이 마음만 있다면 아내를 맞이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우리 아름다운 이웃인 스테이플턴 양에게 이토록 푹 빠진 남자는 나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길은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예를 들어 오늘, 사랑의 수면 위로 전혀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친구는 상당한 당혹감과 짜증을 느끼고 있다.

배리모어에 관한 대화를 마친 뒤, 헨리 바스커빌 경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나 역시 당연하다는 듯 그를 따라 나섰다.

"뭐라고, 자네도 오는 건가, 왓슨?" 헨리 경이 나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당신이 황야로 갈 건지 아닌지에 달렸지." 내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게 내려진 지침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홈즈가 저더러 당신 곁을 떠나지 말라고, 특히 황야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말라고 얼마나 간곡히 당부했는지 방금 들으셨을 겁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보게, 친구," 그가 말했다. "홈즈가 아무리 명석하다 해도, 내가 황야에 머무는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전부 내다볼 수는 없었네. 무슨 뜻인지 알겠나? 자네가 분위기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나도 잘 아네. 하지만 난 혼자 나가봐야겠네."

그 상황은 나를 무척 난처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이, 그는 지팡이를 집어 들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하지만 일을 곰곰이 되짚어보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를 내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었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이 뼈아프게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돌아가, 당신의 지시를 무시한 탓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해야 한다면 제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뒤쫓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 저는 즉시 메리핏 하우스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는 헨리 경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앞만 보고 전력을 다해 길을 따라 달렸다. 그러다 황야로 난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혹시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갔다. 어두운 채석장이 깎여 있는 바로 그 언덕이었다.

언덕에 오르자마자 그가 보였다. 그는 황야 길 위로 약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곁에는 스테이플턴 양임이 틀림없는 한 여인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고, 약속이라도 한 듯 만나기로 되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여인은 마치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려는 듯 손을 빠르게 움직이며 말했고, 그는 그 말을 경청하다가 한두 번은 강하게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바위 사이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혹스러웠다. 그들을 뒤쫓아가 친밀한 대화를 가로막는 것은 무례한 짓 같았지만, 그렇다고 헨리 경을 한순간이라도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명백한 임무였다. 친구를 스파이처럼 감시하는 일은 참으로 끔찍한 과업이었다. 하지만 언덕 위에서 그를 계속 관찰하는 것 외에는 딱히 더 나은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에게 내가 한 일을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덜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만약 갑작스러운 위험이 그를 덮쳤다면,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매우

난처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는 점에 당신도 동의하리라 믿는다.

우리의 친구인 헨리 경과 그 숙녀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대화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는 눈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중에 떠다니는 초록색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울퉁불퉁한 땅 사이를 움직이는 한 남자가 막대기에 매달린 그것을 들고 있었다. 나비채를 든 스테이플턴이었다. 그는 나보다 두 사람에게 훨씬 가까이 있었고,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듯 보였다.

그 순간, 헨리 경이 갑자기 스테이플턴 양을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헨리 경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그에게서 벗어나려 몸을 비트는 것처럼 보였다. 헨리 경이 그녀의 머리 쪽으로 몸을 숙이자, 그녀는 마치 항의하듯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지며 황급히 몸을 돌렸다.

대화가 끊긴 건 스테이플턴 때문이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나비채를 뒤로 늘어뜨린 채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연인들 앞에서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손짓을 해대며 거의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스테이플턴이 헨리 경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였다. 헨리 경은 해명하려 애썼으나, 스테이플턴이 이를 거부할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사이 숙녀는 오만한 침묵을 지키며 곁에 서 있었다.

마침내 스테이플턴은 발길을 돌리더니, 누이에게 단호한 손짓을 보냈다. 스테이플턴 양은 헨리 경을 망설이며 한 번 쳐다보더니, 이내 오빠의 곁을 따라 걸어갔다. 박물학자인 스테이플턴의 분노 섞인 몸짓을 보니, 그가 숙녀에게도 화가 난 모양이었다. 헨리 경은 잠시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군 채 왔던 길을 따라 천천히 되돌아갔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낙담한 사람의 전형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친구도 모르게 이토록 사적인 장면을 엿보았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곧장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가 바스커빌 경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미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여어, 왓슨!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가?" 그가 말했다. "설마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나를 뒤쫓아온 건 아니겠지?"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뒤에 남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사실부터, 그를 어떻게 뒤쫓아왔는지,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어떻게 목격했는지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순간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지만, 나의 솔직한 태도에 화는 이내 가라앉았다. 그는 결국 약간은 허탈한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저 넓은 들판 한가운데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에 꽤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내 구애 장면을 구경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모양이야.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구애를 말이지! 자네는 어디에 자리를 잡았나?"

"난 그 언덕에 있었네."

"맨 뒷줄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오빠라는 사람은 아주 앞줄에 있었는데요. 우리 쪽으로 걸어 나오는 걸 보지 못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녀의 오라버니 말이야, 혹시 미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나?"

"그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군요."

"아마 아닐 걸세. 오늘 전까지는 그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네. 그 사람이든 나든, 둘 중 하나는 구속복을 입어야 할 판이니까. 그나저나 내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왓슨, 자네는 몇 주 동안 내 곁에 있었지 않나. 이제 솔직하게 말해주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이 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결함이라도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내 사회적 지위를 문제 삼을 리는 없으니, 분명 나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게 틀림없어. 대체 그가 나한테 무슨 유감이 있다는 거지? 내가 아는 한, 평생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그는 내가 그녀의 손끝이라도 스치는 꼴을 못 보겠다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요. 왓슨, 정말이지 그녀를 안 지는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는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했다는 건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눈빛에는 말보다 더 강렬하게 진심을 전하는 빛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자가 우리를 단둘이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야 겨우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그녀는 저를 만나서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그녀가 하려는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막을 수만 있었다면 그녀는 제가 사랑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이곳이 위험한 곳이며,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난 이후로 이곳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떠나길 원한다면, 그녀가 저와 함께 갈 채비를 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죠. 말하자면 그녀에게 청혼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오빠라는 자가 미친 사람 같은 얼굴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밝은 눈은 격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 숙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감히 그녀가 싫어할 법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준남작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면서요. 만약 그가 그녀의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도 더 품위 있게 대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누이동생을 향한 제 감정은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그녀가 제 아내가 되어준다면 영광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더군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가 옆에 서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지나치게 격하게 대꾸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도 보셨다시피 그자가 그녀를 데리고 가버렸고,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갈피를 못 잡는 한심한 신세가 되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왓슨, 제발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는 셈입니다."

나 역시 한두 가지 가설을 세워보려 애썼지만, 사실 나조차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우리 친구의 작위와 재산, 나이와 성품, 그리고 외모까지 모든 조건이 그에게 유리했다. 가문에 내려오는 이 불길한 운명을 제외한다면, 그에게 불리한 점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가 청혼을 그렇게 무례하게 거절당하고, 정작 그 여인은 아무런 항의도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여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거절이 이루어졌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스테이플턴이 직접 찾아오면서 우리의 추측은 일단락되었다. 그는 오전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방문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서재에서 그와 긴 독대 시간을 가졌고, 대화의 결과는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이 완전히 풀렸다는 것이었다. 그 화해의 증표로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머리핏 하우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오늘 아침 그가 나에게 달려들었을 때 눈빛이 어땠는지 도저히 잊을 수가 없군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사과만큼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는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만큼은 인정해야겠습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던가요?"

"그의 삶에서 누이는 전부라고 하더군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가 누이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누이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아주 외로운 처지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이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그녀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말과 행동이 거칠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들에 대해 무척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누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평생 자기 곁에만 두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만약 누이가 그를 떠나야 한다면, 차라리 저 같은 이웃에게 가는 것이 다른 누구에게 가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그에게 큰 타격이었고,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누이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는 그저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했고,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수수께끼 중 하나가 풀렸군.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늪지대에서, 무엇이라도 실마리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야. 이제야 스테이플턴이 왜 누이의 구혼자를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알겠어. 그 구혼자가 헨리 바스커빌 경처럼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말이야.

이제 나는 엉킨 실타래 속에서 뽑아낸 또 다른 단서로 넘어가려 하네. 밤마다 들려오던 흐느낌, 눈물 자국이 가득했던 배리모어 부인의 얼굴, 그리고 집사가 서쪽 격자창으로 몰래 향하던 그 비밀스러운 행적에 관한 수수께끼 말일세.

나를 축하해주게, 친애하는 홈즈. 자네의 조력자로서 내가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낼 때 보여주었던 그 신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게나. 이 모든 일은 단 하룻밤의 노력으로 완벽히 해결되었네.

내가 아까는 "하룻밤 만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틀 밤에 걸친 작업이었다. 첫날 밤에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헨리 바스커빌 경의 방에서 그와 함께 새벽 3시가 다 될 때까지 깨어 있

었으나, 계단 위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참으로 우울한 밤샘이었고, 결국 우리 둘 다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다행히 우리는 낙담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등불을 낮게 내려놓고 아주 작은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흐르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사냥꾼이 짐승이 덫으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며 느끼는 인내 섞인 흥미 덕분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시계가 한 시를 쳤고, 이어서 두 시를 쳤다. 거의 두 번째로 절망하며 포기하려던 찰나, 우리 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피로에 지쳤던 감각이 다시금 날카롭게 깨어났다. 복도에서 발걸음이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소리는 아주 은밀하게 멀어지더니, 이윽고 저 멀리서 희미해졌다. 그러자 바스커빌 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를 뒤쫓아 나섰다. 이미 그 남자는 회랑을 돌아 지나간 뒤였고, 복도는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다른 쪽 날개채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움직였다. 마침 우리는 까맣고 긴 수염을 기른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을 언뜻 볼 수 있었다. 그는 발꿈치를 들고 복도를 내려가느라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다. 남자는 아까와 같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촛불이 어둠 속에서 문틈을 비추며, 침침한 복도 너머로 외로운 노란 빛줄기를 길게 쏘아 올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떼며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몸의 무게를 완전히 실기 전에는 발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폈다. 미리 장화를 벗어두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낡은 바닥판이 삐걱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가끔은 그가 우리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행히 그 남자는 귀가 좀 어두운 편이었고,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해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틀 전 내가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남자는 촛불을 손에 든 채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하얗게 질린 채 무언가에 집중한 얼굴을 창문에 바짝 밀착하고 있었다.

우리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다. 하지만 바스커빌 경은 언제나 가장 직설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창가에 있던 배리모어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채 몸을 떨며 우리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위로 번뜩이는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공포와 경악이 가득했다. 그는 헨리 바스커빌 경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배리모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그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가 든 촛불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 위로 어지럽게 일렁였다. "창문 때문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창문들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니거든요."

"2층 말씀입니까?"

"네, 선생님. 창문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봐요, 배리모어." 헨리 바스커빌 경이 엄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소. 그러니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요. 자, 어서! 거짓말은 안 통하오! 그 창가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요?"

그 사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마치 극심한 의구심과 비탄에 빠진 사람처럼 두 손을 맞잡고 비틀며 괴로워했다.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저 창가에 촛불을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창문에 촛불을 비추고 있었던 겁니까?"

"묻지 마십시오, 헨리 바스커빌 경.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장담컨대, 그건 제 개인적인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 자신에게만 관련된 일이었다면, 경께 숨기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들고 있던 집사의 손에서 촛대를 건네받았다.

"신호를 보내려고 들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내가 말했다. "답장이 오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그가 했던 것처럼 촛불을 들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탓에, 검게 물든 나무 숲과 그보다 조금 밝은 황야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환희에 찬 비명을 내질렀다. 창문이라는 검은 사각형의 한가운데, 어둠의 장막을 뚫고 노란 빛의 작은 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일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찾았다!" 내가 외쳤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가 말을 가로막으며 다급히 끼어들었다. "정말이지, 선생님, 결코 아닙니다!"

"왓슨, 창문 너머로 불빛을 비춰보게!" 바스커빌 경이 외쳤다. "보게, 저쪽에서도 불빛이 움직이고 있어! 자, 이 악당 같은 놈아, 이게 신호가 아니라고 발뺌할 셈인가? 어서 말해! 저 밖에 네 공범이 누구냐? 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남자의 얼굴에 노골적인 반항심이 서렸다. "이건 내 일이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 밑에서 물러나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해야 한다면 해야지요."

"결국 이런 불명예를 안고 떠나는군. 맙소사, 자네는 스스로가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자네 가문은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과 이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아왔네. 그런데 이제 와서 자네가 나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로 선생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문가에는 남편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공포에 질린 배리모어 부인이 서 있었다. 숄을 두르고 치마를 입은 그녀의 육중한 체구는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으나, 얼굴에 서린 격렬한 감정 때문에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떠나야 하네, 엘리자. 이제 다 끝났어. 어서 우리 짐을 챙기게." 집사가 말했다.

"오, 존, 존. 내가 당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군요. 헨리 바스커빌 경,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그분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부탁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럼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불행한 내 형제는 지금 황야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문앞에서 그가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저 불빛은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이고, 저 멀리서 비치는 불빛은 음식을 가져올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형제는—"

"탈옥한 죄수 말입니다, 선생님. 셀든이라는 범죄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인님." 배리모어가 말했다. "제 비밀이 아니기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들으셨으니 아시겠지요. 만약 어떤 음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주인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밤마다 몰래 움직이던 행적과 창가에서 새어 나오던 불빛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다. 헨리 바스커빌 경과 나는 경악한 채 그 여인을 빤히 바라보았다. 저토록 침착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과 피가 섞인 사이일 수 있단 말인가?

"네, 선생님. 제 이름은 셀든이고, 그분은 제 남동생입니다. 동생이 어릴 때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하며 모든 걸 다 들어주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동생은 세상이 온통 자기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더니, 악마가 씌었는지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놓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죄를 거듭할수록 동생은 점점 더 밑바닥으로 추락했고, 신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분명 교수대에서 목이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게 동생은 언제나 제가 누나로서 품에 안고 함께 놀아주던, 곱슬머리의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탈옥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가 동생을 도와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교도관들에게 쫓기며 지치고 굶주린 채 동생이 이곳으로 기어들어 왔을 때,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동생을 받아들여 먹이고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께서 돌아오셨지요. 동생은 수배령이 내려진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황야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저희는 이틀에 한 번꼴로 창가에 불을 밝혀 동생이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응답이 있으면, 제 남편이 빵과 고기를 가져다주었고요. 매일 동생이 떠나기만을 바랐지만, 동생이 거기 있는 한 저희는 결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만을 말합니다. 만약 이 일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입니다. 남편은 오로지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니까요."

여자는 아주 간절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이게 정말인가, 배리모어?"

"그렇습니다, 헨리 경.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실입니다."

"자, 자기 아내 편을 드는 걸 내가 나무랄 수는 없겠군.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리게. 두 사람 다 방으로 들어가서 쉬게나.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

그들이 떠나자 우리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탓에 차가운 밤바람이 우리 얼굴을 때렸다.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여전히 작은 노란 불빛 하나가 점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가 감히 그럴 수 있다니, 정말 놀랍군."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그것을 오직 여기서만 보이도록 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클레프트 토르 근처일 겁니다."

"길어야 1, 2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음, 배리모어가 음식을 직접 날라다 줘야 할 정도라면 그리 멀지는 않겠군. 저 악당 놈은 지금 촛불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맙소사, 왓슨! 당장 나가서 저놈을 붙잡아야겠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배리모어 부부가 우리를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비밀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밝혀진 것이었다. 그 남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었으며, 동정의 여지나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순전한 악당이었다. 그를 다시는 해를 끼칠 수 없는 곳으로 돌려보낼 기회를 잡은 것은, 단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다른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를 들어, 이웃인 스테이플턴 부부가 어느 날 밤 그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이번 모험에 그토록 열성적이었던 이유도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당장 리볼버를 챙기고 장화부터 신게.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 그놈이 불을 끄고 도망쳐 버릴지도 모르니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문을 나서 탐험을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낮게 신음하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이로, 우리는 어둑한 덤불 속을 서둘러 헤쳐 나갔다. 밤공기에는 습기와 부패한 냄새가 묵직하게 배어 있었다. 이따금 달빛이 잠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빠르게 흘러갔다. 황야로 막 접어들었을 때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앞에서는 등불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빛을 밝히고 있었다.

"무기를 지니고 계십니까?" 내가 물었다.

"사냥용 채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놈을 최대한 빨리 포위해야 하네. 아주 악랄한 자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놈이 저항할 틈도 주지 말고 기습해서, 우리 손아귀에 넣어야 하네."

"이보게, 왓슨,"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홈즈라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할까? 악의 힘이 드높아지는 그 칠흑 같은 시간대에 대해서 말이야."

마치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황야의 거대한 어둠 속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 이미 그림펜 늪 가장자리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밤의 정적을 뚫고 바람을 타고 날아온 그 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길게 중얼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울부짖음으로 높아졌고, 마지막에는 슬픈 신음 소리가 되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 소리는 반복해서 들려왔다. 날카롭고 거칠며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공기 전체를 진동시켰다. 바스커빌 경은 내 소매를 움켜쥐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세상에, 왓슨, 저게 대체 뭔가?"

"모르겠습니다. 황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전에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리는 잦아들었고, 이내 완전한 정적이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왓슨,"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그건 분명 사냥개의 울음소리였네."

내 혈관 속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기 때문이다. 그 떨림은 그를 집어삼킨 공포가 얼마나 갑작스럽고 거대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 소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가 물었다.

"누구십니까?"

"시골 사람들 말입니다."

"아,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당신이 왜 신경을 쓰나요?"

"말해 보게, 왓슨.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뭐라고들 하나?"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질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저 소리가 바스커빌 가의 개가 내는 울음소리라고들 하네."

그는 신음 소리를 내더니 잠시 동안 침묵에 잠겼다.

"개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놈은 아주 멀리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 너머, 아주 먼 곳에서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들려온 건지는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람을 따라 오르내리고 있군요. 저쪽이 바로 거대한 그림펜 늪이 있는 방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 저 위에서 들렸어. 자, 왓슨, 자네도 그게 사냥개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나도 어린애가 아니야. 그러니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스테이플턴이 내 곁에 있었네. 그는 그저 이름 모를 새가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더군."

"아니, 아니야. 그건 분명 사나운 개였어. 세상에, 이 모든 이야기에 정말 사실이 담겨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그토록 어두운 원한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왓슨, 자네는 믿지 않지? 그렇지?"

"아니, 아니오."

"런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 황야의 어둠 속에 서서 방금 같은 비명을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네. 게다가 우리 숙부님까지! 숙부님이 쓰러져 계시던 곳 옆에는 그 괴물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진단 말일세. 왓슨,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지는 않네만, 방금 그 소리는 정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 내 손 좀 만져보게!"

그의 손은 대리석 덩어리처럼 차가웠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걸세."

"그 비명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군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되돌아갈까요?"

"아니, 절대 안 되네. 우리는 우리 목표를 잡으러 나온 것이니, 반드시 해내고 말 걸세. 우리는 도망자를 쫓고 있고, 어쩌면 지옥의 사냥개 같은 놈이 우리를 뒤쫓고 있을지도 모르지. 자, 어서 가세! 설령 황야에 지옥의 악마들이 떼로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이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천천히 나아갔다. 사방에는 험준한 언덕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전방에는 노란 불빛 하나가 일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멀리 보이는 불빛의 거리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로는 그 희미한 빛이 지평선 너머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불과 몇 야드 앞까지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마침내 빛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스커빌 저택 방향에서만 보이도록, 양옆의 바위 틈새에 촛불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바위들이 바람을 막아주는 동시에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가려주고 있었다. 우리는 화강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너머로 신호용 불빛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황야 한가운데에 생명체의 흔적 하나 없이 촛불 하나만 외롭게 타오르는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했다. 오직 곧게 뻗은 노란 불꽃과 그 양옆을 비추는 바위의 광택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헨리 바스커빌 경이 속삭였다.

"여기서 기다리게. 분명 근처에 불을 켜두었을 거야. 그를 슬쩍이라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동시에 그를 목격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바위 틈새 사이로 사악한 노란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은 온갖 추악한 욕망이 주름지고 파인, 끔찍한 짐승의 얼굴이었다. 진흙으로 더러워진 얼굴에는 덥수룩한 수염과 엉킨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어, 마치 언덕 비탈의 구멍에 사는 고대 야만인 중 하나라고 해도 믿을 법했다. 아래에서 올라온 빛이 그 작은 눈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교활하고 사나운 짐승이 사냥꾼의 발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 눈은 어둠 속에서 좌우를 매섭게 살피며 번뜩였다.

무언가 분명히 그의 의심을 자극했음이 틀림없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배리모어만의 은밀한 신호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험상궂은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등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기세였다. 나는 즉시 앞으로 달려 나갔고, 헨리 바스커빌 경도 뒤따랐다. 그 순간, 죄수는 우리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돌을 던졌다. 돌은 우리가 몸을 숨기고 있던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죄수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의 짧고 다부진 체격을 아주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다. 마침 운 좋게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우리는 언덕 능선을 넘어 달려 내려갔다. 그는 산양처럼 날렵하게 앞길을 가로막는

돌들을 뛰어넘으며 반대편 언덕 아래로 무서운 속도로 달아나고 있었다. 내 리볼버로 운 좋게 먼 거리에서 쏘았다면 그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가져온 것이지, 무기도 없이 도망치는 사람을 쏘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 둘 다 발이 빠르고 평소 체력 단련도 꾸준히 해온 편이었지만, 그를 따라잡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달빛 아래에서 그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멀리 떨어진 언덕 비탈의 바위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던 그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한 점의 흔적처럼 보일 뿐이었다. 우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으나, 그와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벌어졌다. 결국 우리는 두 바위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멀리 사라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지극히 기이하고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가망 없는 추격을 포기하고 바위 위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던 참이었다. 오른쪽으로는 달이 낮게 떠 있었고, 화강암 암봉의 들쭉날쭉한 끝자락이 은빛 달의 아랫부분을 가로지르며 솟아 있었다. 그 빛나는 달을 배경으로, 마치 흑단으로 만든 조각상처럼 검게 실루엣이 드러난 한 남자의 형체가 암봉 위에 서 있었다.

홈즈, 이것이 환각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내 평생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본 것은 없었다고 단언하건대. 내가 판단하기로 그 형체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다리를 약간 벌리고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피트와 화강암의 거대한 황야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 남자는 이 무시무시한 장소 그 자체를 형상화한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죄수는 아니었다. 그 남자는 죄수가 사라진 곳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게다가 키도 훨씬 컸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바스커빌 경에게 그를 가리켰다. 하지만 내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몸을 돌린 찰나,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달의 아랫부분을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화강암 봉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꼭대기에는 조금 전 보았던 정적이고 미동도 없던 형체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나 역시 그 방향으로 가서 토르(tor)를 조사하고 싶었지만, 거리가 꽤 멀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가문의 어두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 비명 소리 때문에 여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새로운 모험을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토르 위에 서 있던 그 외로운 남자를 보지 못했기에, 그 기이한 존재감과 위압적인 태도가 내게 주었던 전율을 느끼지 못했다.

"보초겠지, 틀림없어." 그가 말했다. "그자가 탈옥한 뒤로 황야에는 보초들이 깔렸으니까."

글쎄, 그의 설명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보고 싶다. 오늘 우리는 프린스타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놓친 도망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줄 생각이다. 다만

우리가 그를 직접 생포하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어젯밤의 모험은 이와 같았다. 홈즈, 자네도 인정해야 할 걸세. 내가 이만큼이나 상세히 보고를 해준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내용 중 상당수는 분명 사건과 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자네에게 전달한 뒤, 자네가 결론을 내리는 데 가장 유용할 정보들을 직접 골라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분명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배리모어 부부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를 찾아냈고, 덕분에 상황이 아주 명확해졌다. 하지만 수수께끼와 기이한 거주자들로 가득한 황야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아마 다음 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빛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무엇보다 자네가 직접 이곳으로 내려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네. 어쨌든 앞으로 며칠 내에 다시 소식을 전하겠네.

제10장 왓슨 박사의 일기에서

제10장. 왓슨 박사의 일기 발췌록

지금까지는 사건 초기, 셜록 홈즈에게 전달했던 보고서들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풀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 대신 당시 기록해 두었던 일기에 의지하여, 내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이어가려 한다. 일기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그 장면들에 다다를 것이다. 그럼, 죄수를 쫓는 데 실패하고 황야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었던 그날 이후의 아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10월 16일.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흐리고 안개 자욱한 날이다. 집 주변은 낮게 깔린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 구름이 이따금 걷힐 때면 황야의 쓸쓸한 능선이 모습을 드러낸다. 언덕의 사면에는 은빛 줄기 같은 물줄기가 가늘게 흐르고, 멀리 떨어진 바위들은 젖은 표면에 빛이 닿을 때마다 번뜩인다. 바깥 풍경도, 집 안의 분위기도 모두 우울하기 짝이 없다. 바스커빌 경은 어젯밤의 흥분이 지나간 뒤 그 반작용으로 침울하

게 가라앉아 있다. 나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더욱 두려운, 늘 곁에 머무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나?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 불길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쭉 살펴보게나. 저택의 전 주인이 죽은 사건은 가문의 전설에 나온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게다가 황야에 기괴한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농민들의 보고도 끊이지 않고 있네. 나 역시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직접 두 번이나 들었다네. 이 모든 일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엔 도저히 믿기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지. 실체가 있는 발자국을 남기면서 공중에 울음소리를 퍼뜨리는 유령 개라니, 그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스테이플턴이나 모티머 박사는 그런 미신에 휘둘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내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재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식이라네.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 만약 내가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저 사나운 개일 뿐인 존재를 두고 입과 눈에서 지옥불이 뿜어져 나온다고 묘사하는 불쌍한 농민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니까. 홈즈라면 그런 망상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대리인이지.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라네. 나는 황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울음소리를 분명히 두 번이나 들었어. 만약 정말로 황야에 거대한 개 한 마리가 풀려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의문이 풀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개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으며, 먹이는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나타난 것이며, 어떻게 낮에

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인정할 수밖에 없군. 자연적인 설명으로 접근하려 해도 미신만큼이나 난관이 많다는 것을 말이야. 게다가 개 문제와는 별개로, 런던에서 벌어진 인간의 개입이라는 사실도 있지 않은가. 마차에 타고 있던 남자, 그리고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황야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편지 말일세. 적어도 이것만큼은 실재하는 사실이었네. 하지만 그 편지는 적의 소행일 수도 있지만, 보호하려는 친구가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그 친구나 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런던에 남아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따라 여기까지 내려온 걸까? 혹시 그자가—그자가 내가 토르에서 보았던 그 낯선 이였을까?

그를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만큼은 내가 단언할 수 있다. 그는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 나는 이미 이웃들을 모두 만났다. 그 형체는 스테이플턴보다 훨씬 컸고, 프랭클랜드보다 훨씬 말랐다. 어쩌면 배리모어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미 그를 뒤에 남겨두고 왔으며 그가 우리를 뒤쫓아왔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런던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낯선 이가 여전히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아직 그를 따돌리지 못했다. 만약 내가 그 남자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마침내 이 모든 난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모든 기력을 쏟아야 한다.

처음에는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내 계획을 전부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떠오른, 가장 현명한 생각은 나만의 방식을 따르며 누구에게도 말을 아끼는 것이었다. 그는 침묵에 잠겨 넋을

잃은 모습이었다. 황야에서 들려온 그 소리 때문에 그의 신경은 이상할 정도로 곤두서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을 가중할 말은 일절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만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오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작은 소동이 있었다. 배리모어가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허락을 구했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재에 단둘이 들어가 있었다. 당구장에 앉아 있던 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한두 번 들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논쟁 중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바스커빌 경이 서재 문을 열고 나를 불렀다.

"배리모어가 불만이 있는 모양이오."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그의 처남이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를 쫓아다니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는군."

집사는 안색이 몹시 창백했으나, 우리 앞에서는 아주 침착한 태도로 서 있었다.

"제가 너무 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만약 그랬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두 분이 돌아오셨을 때, 셀든을 뒤쫓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 불쌍한 친구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제가 굳이 그를 더 몰아세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스스로 직접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겁니다."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어쩔 수 없이 말

했을 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 부인이 당신의 입을 억지로 열게 해서 겨우 말한 것이었죠."

"헨리 바스커빌 경, 경께서 그 점을 이용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자는 공공의 적입니다. 황야 곳곳에는 외딴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그곳을 노린다면 큰일입니다. 그의 얼굴만 한 번 봐도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플턴 씨의 저택을 보십시오. 그곳엔 그를 지켜줄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습니다. 그자를 감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자가 남의 집에 침입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경. 그 점은 제가 엄숙히 약속드리지요. 하지만 그자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누구를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 장담하건대 며칠 내로 필요한 조치를 다 마칠 것이고, 그러면 그자는 남미로 떠나게 될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 그자가 아직 황야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경찰은 이미 그곳에서의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배가 준비될 때까지만 그자가 조용히 숨어 있게 해주십시오. 경께서 그자를 고발하신다면 저와 제 아내까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 경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가 확실히 외국으로 떠나버린다면, 납세자들의 짐을 하나 덜어주는 셈이 되겠군요."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누군가를 덮쳐 강도질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자는 결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자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음, 배리모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가 다시 잡혔더라면, 가여운 제 아내는 충격으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건가, 왓슨? 하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차마 그자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군. 그러니 이쯤에서 끝내지. 알았네, 배리모어. 이제 가봐도 좋네."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간신히 내뱉고는 몸을 돌렸다. 하지만 이내 망설이더니 다시 돌아왔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워낙 커서, 저도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헨리 경,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검시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살아있는 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불쌍한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바스커빌 경과 나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가 왜 그 시간에 대문 앞에 있었는지 압니다. 여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요? 그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함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름의 첫 글자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니셜은 L. L.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건가, 배리모어?"

"헨리 경, 그날 아침 삼촌께서는 편지를 한 통 받으셨습니다. 평소에는 편지가 아주 많이 왔었지요. 삼촌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셨고, 마음씨가 너그럽기로 워낙 유명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삼촌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

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는 이 편지 한 통뿐이었기에,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쿰 트레이시에서 온 편지였는데, 여성이 쓴 필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 일을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영영 잊고 살았을 겁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죠. 아내가 찰스 바스커빌 경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경이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아내는 벽난로 안쪽에서 타다 남은 편지 재를 찾아냈습니다. 편지의 대부분은 검게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종이 끝자락이 겨우 붙어 있는 작은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글씨가 회색으로 남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내용을 읽을 수는 있었지요. 저희는 그것이 편지 끝에 덧붙인 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신사분이시라면 이 편지를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열 시까지 대문 앞으로 와 주십시오.' 그 아래에는 'L. L.'이라는 이니셜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 가져왔나?"

"아닙니다, 선생님. 옮기려고 하자마자 형체도 없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같은 필체로 된 다른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선생님. 그분께 온 편지들을 특별히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편지도 그냥 지나쳤을 텐데, 마침 이것만 따로 온 덕분에 눈에 띈 것이지요."

"L. L.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더 아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리모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길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바로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저희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 둘 다 찰스 바스커빌 경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요.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가엾은 주인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사건에 여인이 연루되었을 때는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저희 중 누구라도—"

"그 일이 그의 명성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글쎄요, 선생님. 아무래도 소용없을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아는 사실을 전부 말씀드리지 않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 같군요."

"좋네, 배리모어. 이만 가보게." 집사가 물러가자 헨리 바스커빌 경이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자, 왓슨, 이 새로운 단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짙게 깔리는 것 같군."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지만 L. L.의 행방만 찾아낼 수 있다면 모든 의문이 풀릴 거야. 적어도 우리는 그만큼의 단서를 얻었네.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이제 그 여인만 찾아내면 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당장 홈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그러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서를 얻게 될 걸세. 이 소식을 듣고도 그가 이곳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 판단이 크게 틀린 것일 테고."

나는 즉시 내 방으로 돌아가, 오늘 아침에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홈즈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다. 최근 홈즈가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베이커가에서 온 쪽지들은 내용이 짧고 부실했기 때문이다. 내가 전달한 정보에 대한 피드백도 없었고,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없었다. 아마도 그가 매달리고 있는 협박 사건이 그의 모든 정신을 앗아간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새로운 변수만큼은 분명 그의 주의를 끌 것이고, 다시금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홈즈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0월 17일. — 오늘 하루 내내 비가 쏟아졌다. 담쟁이덩굴을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황량하고 차가운, 비바람을 피할 곳 하나 없는 황야를 헤매고 있을 그 죄수를 생각했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이미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은 듯했다. 그러다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다. 마차 안에서 보았던 얼굴, 달빛을 등지고 서 있던 그 형체 말이다. 그 정체 모를 감시자, 어둠 속의 사내도 지금 저 폭우 속에 있을까?

저녁에는 방수 외투를 걸쳐 입고 젖은 황야를 멀리까지 걸어 나갔다. 얼굴에는 비가 때리고 귓가에는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머릿속은 온갖 어두운 상상으로 가득했다. 지금 저 거대한 늪으로 발을 들이는 이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단단했던 고지대조차 이제는 진흙탕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홀로 서 있던 감시자를 보았던 그 검은 바위 언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험준한 정상에 올라 우울한 구릉지를 내려다보았다. 돌풍이 적갈색 구릉 위로 흩날렸고, 짙은 회색 구름은 낮게 내려앉아 기괴한 언덕 사면을 따라 회색 꽃무늬처럼 흘러내렸다. 왼쪽 멀리 안개에 반쯤 가려진 분지 위로, 바스커빌 저택의 가느다란 탑 두 개가 나무들 사이로 솟아 있었다. 언덕 사면에 빽빽하게 자리 잡은 선사 시대의 움집들을 제외하면, 그것이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흔적이었다.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보았던 그 외로운 사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돌아가는 길에 모티머 박사를 만났다. 그는 폴마이어 외딴 농가에서 이어지는 거친 황야의 길을 따라 개를 태우는 마차를 몰고 오고 있었다. 박사는 우리에게 무척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지

내는지 살피러 저택을 방문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박사는 내게 마차에 올라타라고 권하며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박사는 사라진 작은 스패니얼 때문에 무척 상심한 기색이었다. 강아지가 황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그림펜 늪에서 죽은 조그만 조랑말이 떠올라, 박사가 그 작은 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모티머,"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마차가 덜컹거리며 나아가는 동안 내가 물었다. "이 근처에서 마차로 갈 만한 거리 안에 사는 사람 중, 박사님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군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의 이니셜이 L. L.인 여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집단도 있긴 합니다. 집시들이나 노동자들 중에는 그런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농부나 지주들 사이에서는 이니셜이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로라 라이언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니셜은 L. L.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쿰 트레이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프랭클랜드의 딸이라네."

"뭐라고! 그 괴팍한 프랭클랜드 노인네 말인가?"

"맞아요. 그 여자는 라이언이라는 화가와 결혼했는데, 황야로 스케치를 하러 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주 질 나쁜 인간이었고, 결국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잘못이 온전히 여자 쪽만의 문제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딸이 허락도 없이 결혼했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그 외에 한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서 딸과 인연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그 못된 노인과 젊은 놈 사이에서, 그 여자가 참 고생도 많았겠네요."

"그 여자는 어떻게 먹고사는 건가요?"

"내 생각에 늙은 프랭클랜드가 그녀에게 쥐꼬리만 한 돈을 주긴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닐 걸세. 그 사람 본인 형편도 꽤 복잡하니까 말이야. 설령 그녀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곳 사람들 중 몇몇이 그녀가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네. 스테이플턴이 한몫했고, 찰스 바스커빌 경도 도와주었지. 나 역시 약간의 돈을 보탰다네. 그녀가 타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밑천을 마련해 준 것이라네."

그는 내가 무엇을 조사하려는지 알고 싶어 했으나,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대답해 그의 호기심을 달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이면 쿰 트레이시로 향할 것이다. 만약 평판이 미심쩍은 로라 라이

언스라는 여성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사슬 중 하나를 풀 수 있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확실히 뱀처럼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다. 모티머 박사가 곤란할 정도로 질문을 몰아붙이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프랭클랜드의 해골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물었다. 그 덕분에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는 해골학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셜록 홈즈와 수년간 함께 지낸 보람이 있는 셈이다.

이 격정적이고도 우울한 날에 기록할 사건은 이제 단 하나뿐이다. 방금 배리모어와 나눈 대화에 관한 이야기다. 이 대화 덕분에 나는 때가 되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패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

모티머 박사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 머물렀고, 식사 후에는 바스커빌 경과 에카르테(écarté) 카드 게임을 즐겼다. 이후 집사가 서재로 커피를 가져왔을 때, 나는 그 기회를 빌려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그 귀하신 친척분은 벌써 떠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 바깥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자가 제발 어디론가 가버렸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자가 온 뒤로 골치 아픈 일만 잔뜩 생겼거든요! 지난번에 먹을 것을 챙겨준 이후로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게 벌써 사흘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다시 그 길로 갔을 때는 음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나는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던 채로 멈춰 서서, 배리모어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럼, 다른 남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까?"

"예, 선생님. 황야에 다른 남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를 보았나?"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일주일 전쯤인가, 셀던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숨어 지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왓슨 박사님,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상황이 아주 불길합니다." 그는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간곡하게 말했다.

"자, 내 말을 잘 듣게, 배리모어! 나는 자네 주인님과 관련된 일 외에는 이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네. 오직 그분을 돕기 위해서만 이곳에 왔단 말일세. 그러니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보게. 자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가?"

배리모어는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방금 내뱉은 격한 감정을 후회하는 듯했고,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 모든 소동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는 황야를 마주한, 빗줄기가 몰아치는 창문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마침내 외쳤다.

"어딘가에 불길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명 사악한 악행이 꾸며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께서 무사히 런던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까?"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을 보세요! 검시관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황야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소리들은 또 어떻고요. 돈을 준다고 해도 해가 진 뒤에 그곳을 가로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기 숨어서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낯선 자를 좀 보세요!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스커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의 새 하인들이 저택을 맡게 되는 날, 저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 말입니다." 내가 물었다. "그에 대해 뭐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셀든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냈습니까?"

"그는 그를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지만, 상대가 워낙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아무런 단서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인 줄 알았으나, 곧 그에게도 그만의 독자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사 같았지만, 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산다고 했습니까?"

"언덕 비탈에 있는 옛 집들 사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옛사람들이 살던 돌집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놈 먹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셀던이 알아낸 바로는, 그자가 자기 밑에서 일하며 필요한 것을 다 가져다주는 소년을 하나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아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쿰 트레이시까지 가서 구해오는 모양입니다."

"아주 좋네, 배리모어.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나누도록 하지."

집사가 물러가자 나는 검은 창가로 걸어갔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몰아치는 구름과 바람에 휘몰아치는 나무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실내조차 이렇게 거친 밤인데, 황야 위에 세워진 돌집은 대체 어떠할까. 대체 어떤 증오심이 사람을 저런 곳에 숨어들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저토록 가혹한 시련을 감내해야 할 만큼, 그에게는 얼마나 깊고 간절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

황야의 저 오두막이야말로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수수께끼의 핵심이 자리한 곳처럼 느껴졌다. 맹세컨대, 이 미스터리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으리라.

제11장 토르 위의 사내

제11장. 토르의 사내

마지막 장을 구성하는 내 개인 일기의 발췌본은 이야기의 흐름을 10월 18일까지 이끌었다. 이 시점부터 기이한 사건들은 끔찍한 결말을 향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간 벌어진 일들은 내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 당시 적어둔 기록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모두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첫 번째 사실은 쿰 트레이시의 로라 라이언스 부인이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그가 사망한 바로 그 장소와 시간에 그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실은 황야를 배회하던 정체불명의 남자가 언덕 중턱에 있는 돌집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손에 쥐고 나니, 이 어두운 의문들을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한다면 내 지능이나 용기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된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전날 저녁에 라이언스 부인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바스커빌 경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다. 모티머 박사가 밤늦도록 그와 함께 카드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내가 발견한 사실을 그에게 알렸고, 쿰 트레이시까지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그도 아주 흔쾌히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차라리 내가 혼자 가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 둘 모두에게 들었다. 방문객의 격식을 너무 차릴수록 오히려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헨리 바스커빌 경을 뒤로한 채, 새로운 탐색을 위해 길을 떠났다.

쿰 트레이시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퍼킨스에게 말을 마구간에 들여두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내가 심문하러 온 그 여성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소문했다. 그녀의 숙소는 중심가에 위치한 데다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녀가 격식 없이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레밍턴 타자기를 앞에 두고 앉아 있던 한 여성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내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얼굴은 이내 어두워졌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었다.

라이언스 부인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낀 인상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눈동자와 머리카락은 모두 풍성하고 깊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

다. 뺨에는 주근깨가 꽤 있었지만, 갈색 머리 여인 특유의 화사한 생기가 돌았다. 마치 유황 장미의 중심부에 숨겨진 은은한 분홍빛 같은 색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첫인상은 감탄 그 자체였다.

하지만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비판적인 것이었다. 그 얼굴에는 미묘하게 어긋난 구석이 있었다. 표정에는 어딘가 거친 느낌이 있었고, 눈빛은 딱딱했으며, 입술은 다소 흐트러져 있었다. 그 결점들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나중에야 든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눈앞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내 방문 목적을 묻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했을 뿐이다. 내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나는 그 찰나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실은 제가 당신의 아버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내가 말했다.

서투른 자기소개였다. 숙녀는 은연중에 그 사실을 내게 느끼게 했다.

"제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아버지께 빚진 것이 없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제 친구가 될 수도 없죠. 만약 고인이 되신 찰스 바스커빌 경과 다른 친절한 분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저를 굶겨 죽게 내버려 두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고인이 된 찰스 바스커빌 경 때문입니다."

주근깨가 그 여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도드라져 보였다.

"그분에 대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초조한 듯 타자기 자판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를 알고 계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친절 덕분에 입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된 것도, 저의 불행한 처지에 관심을 가져준 그분 덕분이지요."

"그와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여인은 헤이즐색 눈동자에 분노를 번뜩이며 고개를 빠르게 치켜들었다.

"도대체 이 질문들의 목적이 뭐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목적은 공공의 스캔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곳에서 그들에게 직접 묻는 편이 낫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얼굴은 여전히 매우 창백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에는 무모하면서도 반항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다.

"좋아요, 대답해 드리죠."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무엇인가요?"

"찰스 바스커빌 경과 서신을 주고받으셨습니까?"

"그분의 세심함과 너그러움에 감사를 표하려고 한두 번은 분명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쓰인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오."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그분이 쿰 트레이시로 오셨을 때 말이죠. 워낙 내성적인 분이라,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쪽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그렇게 가끔밖에 못 보고 편지도 드물게 나누었다면서, 어떻게 당신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말이죠."

그녀는 내가 제기한 난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제 비극적인 사연을 알고 힘을 보태주려 했던 신사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웃이자 찰스 바스커빌 경의 절친한 친구였던 스테이플턴 씨였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한 분이었는데, 찰스 경이 제 사정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분 덕분이었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여러 차례 스테이플턴을 자신의 자선 관리인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부인의 말은 진실함이 느껴졌다.

"찰스 경에게 만나자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질문을 이어갔다.

라이언스 부인은 다시금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정말이지, 손님.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제 대답은 단호히,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이 사망한 바로 그날은 아니었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홍조가 가라앉더니, 눈앞에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메마른 입술은 차마 말을 내뱉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부정의 의미를 담은 그 몸짓을 눈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분명 기억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보낸 편지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을 정도니까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신사분이시라면 이 편지를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열 시까지 대문 앞으로 와 주십시오.'"

그녀가 기절한 줄 알았으나, 그녀는 엄청난 정신력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신사라는 존재가 세상에 아예 없단 말인가요?"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찰스 경을 너무 억울하게 몰아세우시는군요. 그가 편지를 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불에 타더라도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편지를 썼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쓴 게 맞아요!" 그녀는 쏟아지는 말들로 속마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제가 썼다고요. 왜 그걸 부정하겠어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분이 저를 도와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직접 만나 뵈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만나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지만 왜 이토록 늦은 시간에 오신 겁니까?"

"그가 바로 다음 날 런던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자리를 비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가 더 일찍 그곳에 갈 수 없었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집으로 찾아가는 대신 정원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까?"

"그 시간에 여자가 혼자서 독신 남자의 집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스 부인!"

"아니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방해하는 일이 생겨서 갈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찰스 바스커빌 경이 사망한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약속을 지키러 가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거듭 질문을 던졌지만, 도무지 그 지점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라이언스 부인," 길고 결론도 나지 않은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말했다. "부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아주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겁니다. 만약 제가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부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만약 부인의 입장이 정말 결백하다면, 애초에 왜 그날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부인하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 혹여 잘못된 결론이 내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칫 제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당신의 편지를 태워버리라고 그토록 강요한 겁니까?"

"편지를 읽어 보셨다면 아시게 될 겁니다."

"편지를 전부 다 읽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셨더군요."

"방금 읽은 건 추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편지는 이미 불에 타서 내용을 전부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당신은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그토록 강요했던 겁니까? 그가 죽던 날 받은 이 편지를 왜 반드시 태워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입니까?"

"이 일은 아주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공론화하여 조사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불행한 과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고 그 선택을 후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 삶은 증오하는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법은 그의 편이었고, 매일같이 그가 저를 강제로 함께 살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저는 어느 정도의 비용만 마련할 수 있다면 자유를 되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제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자존심까지, 제 삶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찰스 바스커빌 경의 관대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분이 제 입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면 분명 저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지 않았던 겁니까?"

"그사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편지를 써서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앞뒤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내 어떤 질문으로도 그 논리를 흔들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비극이 일어났을 무렵, 여자가 실제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바스커빌 저택에 갔었다면, 가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리는 없었다. 그곳까지 가려면 마차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새벽녘이 되어서야 쿰 트레이시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행적을 비밀로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적어도 진실의 일부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당혹감과 낙담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내 임무의 목적지에 다가가려 할 때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 다시금 들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과 태도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무언가 나에게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창백해졌을까? 왜 모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항했을까? 비극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녀는 왜 그토록 말을 아꼈던 것일까? 분명 이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은, 그녀가 믿게 하려는 것처럼 결코 순수할 리 없었다.

당장은 이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이제 황야의 돌집들 사이에서 찾아야 할 또 다른 단서로 눈을 돌려야만 했다.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지침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언덕마다 고대 인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배리모어가 준 정보라고는 그 낯선 남자가 이 버려진 오두막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황야의 구석구석에는 이런 오두막이 수백 채나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길잡이가 될 만한 경험이 있었다. 블랙 토르 정상에 서 있던 그 남자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곳이 수색의 중심지가 되어야 했다. 나는 그곳을 기점으로 황야의 모든 오두막을 샅샅이 뒤져 마땅한 곳을 찾아낼 작정이었다. 만약 그 남자가 오두막 안에 있다면, 필요하다면 리볼버를 들이대서라도 그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뒤쫓았는지 직접 입으로 말하게 만들 것이다. 리전트가의 인파 속에서는 그가 우리를 따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외딴 황야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터였다.

반대로 오두막을 찾아냈는데 정작 거주자가 없다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었다. 홈즈조차 런던에서 그를 놓쳤다. 나의 스승이 실패한 곳에서 그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나에게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운이 계속해서 우리를 외면했지만, 마침내 행운이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 그 행운을 가져다준 이는 다름 아닌 프랭클랜드 씨였다. 그는 회색 구레나룻에 붉은 얼굴을 하고서, 내가 지나가던 대로변과 맞닿은 정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왓슨 박사!"

그가 평소답지 않게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말들을 좀 쉬게 하고 어서 들어오시게나. 와인도 한잔하고, 내 경사를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가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전해 들은 터라, 그를 향한 내 감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퍼킨스와 마차를 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걸어서 가겠다고 전갈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프랭클랜드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제게는 정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요!" 그가 연신 껄껄 웃으며 외쳤다. "두 건의 사건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법은 법이며, 법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 줄 생

각입니다. 미들턴 씨의 공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통행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미들턴 씨의 현관문에서 채 백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을 말입니다,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 거물들이 평민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게다가 펀워스히 사람들이 소풍을 즐기던 숲도 폐쇄했습니다. 그 망할 인간들은 사유 재산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서류 뭉치와 술병을 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몰려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왓슨 박사님, 두 사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제 승리로 말입니다. 존 몰랜드 경이 자기 소유의 토끼 사냥터에서 총을 쐈다는 이유로 무단 침입죄로 고소당했을 때 이후로,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낸 건가요?"

"서적에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선생님. 읽어볼 가치가 충분할 겁니다. '프랭클랜드 대 모랜드' 사건입니다. 여왕 법원 재판 기록을 찾아보세요. 이 일을 위해 200파운드나 썼지만,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니까요."

"그게 도움이 좀 되었나?"

아닙니다, 선생님. 전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번 일에 조금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공적인 의무감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 퍼른워디 사람들이 저를 형상화한 인형을 불태우며 저주할 것이라는 사실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경찰에 이런 망측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생님, 현재 주 경찰의 상태는

실로 형편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랜드 대 여왕' 사건을 통해 이 문제는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찰 측에 저를 이렇게 대접한 것을 결국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해 두었는데, 제 말이 벌써 현실이 되고 있군요.

"어째서입니까?" 내가 물었다.

노인은 아주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죽도록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당들을 도울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그의 수다를 피해 자리를 뜨고 싶어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보려 애쓰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노련한 죄인이 얼마나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겪어보았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가는 그가 곧바로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밀렵 사건 같은 거겠지?" 내가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하하, 이보게 친구,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네! 황야에 숨어든 탈옥수는 어떻게 됐나?"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설마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만큼은 확신합니다. 그자를 잡

으려면 그가 어디서 먹이를 구하는지 알아내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분명 진실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선 듯 보였다.

"그렇겠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황야 어딘가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심부름꾼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리모어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 심술궂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노인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이어 그가 건넨 말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그가 아이를 통해 음식을 배달받는다는 사실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지붕 위에서 망원경으로 매일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죄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에게 가는 것이겠습니까?

정말이지 운이 좋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척 태연하게 굴었다. 아이라니! 정체 모를 인물이 소년이라는 건 배리모어가 말해 준 내용이었다. 프랭클랜드가 우연히 마주친 건 죄수가 아니라 바로 그 소년이었다. 만약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길고 지루한 추적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무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분명했다.

"내 생각엔 황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릴 저녁 식사를 가져다주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 노련한 독재자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나를 악의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회색빛 구레나룻은 화가 난 고양이처럼 빳빳하게 곤두섰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는 드넓게 펼쳐진 황야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보이는 블랙 토르가 보이십니까? 그럼 그 너머에 가시덤불이 뒤덮인 낮은 언덕도 보이시나요? 저곳은 황야 전체를 통틀어 돌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양치기가 저런 곳에 자리를 잡을 리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 말을 내뱉었다며 순순히 대답했다. 나의 이런 태도에 그는 만족한 듯 보였고, 덕분에 그는 나에게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함부로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소년이 짐 보따리를 들고 오가는 모습을 몇 번이고 지켜봤거든요. 매일같이, 때로는 하루에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는— 아, 잠시만요, 왓슨 박사님. 제 눈이 잘못된 건가요? 지금 저 언덕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칙칙한 녹색과 회색빛 배경 사이로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 어서요!" 프랭클랜드가 계단 위로 급히 뛰어 올라가며 외쳤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해 보시지요."

삼각대에 거치된 거대한 망원경이 저택의 평평한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프랭클랜드는 망원경에 눈을 바짝 대더니 만족스러운 듯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서둘러요, 왓슨 박사! 그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어서요!"

그곳에 그 아이가 있었다. 예상대로 어깨에 작은 보따리를 멘 어린 부랑아였다. 아이는 언덕 위를 느릿느릿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아이가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차가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남루하고 투박한 실루엣이 잠시 나타났다. 아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러더니 이내 언덕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자, 내 말이 맞지?"

"분명히 어떤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하는 듯한 소년이 있군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지방 경관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단 한 마디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왓슨 박사, 당신에게도 엄중히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단 한 마디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욕했습니다.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대우를 했단 말입니다. '프랭클랜드 대 여왕'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게 될 겁니다. 나는 경찰을 도울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저 악당들이 화형대에 올린 것이 내 인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설마 정말로 가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이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며, 저와 함께 이 디켄터를 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의 간곡한 권유를 모두 거절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집까지 걸어가겠다는 그의 결심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그가 나를 계속 지켜보는 동안에는 길을 따라 걸었으나, 그가 시선을 돌리자마자 나는 곧장 황야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소년이 사라졌던 그 돌산 쪽을 향해서였다. 모든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운명이 내 앞에 던져준 이 기회를, 결코 나의 게으름이나 인내심 부족 때문에 놓치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다.

언덕 정상에 올라섰을 때 태양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발아래로 길게 뻗은 비탈길은 한쪽은 금빛이 도는 초록색이었고, 반대쪽은 회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먼 지평선 너머에는 옅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벨리버와 빅슨 토르의 기괴한 형상들이 솟아 있었다.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 위에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갈매기인지 도요새인지 모를 커다란 회색 새 한 마리만이 푸른 하늘 위를 높이 날아다닐 뿐이었다. 거대한 하늘의 아치와 그 아래 펼쳐진 황량한 땅 사이에는, 저 새와 나만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황량한 풍경과 밀려오는 고독감, 그리고 내가 맡은 임무의 신비로움과 긴박

함이 한꺼번에 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덕 사이의 갈라진 틈 아래로 오래된 돌집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중 한 채는 지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듯했다. 그 집을 발견하는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저곳이 분명 낯선 이가 숨어든 은신처일 것이다. 마침내 나는 그의 은신처 문턱에 발을 디뎠다. 그의 비밀이 이제 내 손안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오두막에 다가갈 때, 나는 스테이플턴이 그물을 들고 나비에게 조심스레 다가갈 때처럼 아주 신중하게 발을 뗐다. 그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바위들 사이로 희미한 오솔길이 나 있었고, 그 길은 문 역할을 하는 허물어져 가는 입구로 이어졌다.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체 모를 누군가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고, 혹은 황야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모험심에 신경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나는 피우던 담배를 던져 버리고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재빨리 문 앞까지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단서를 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곳은 분명 그 남자가 머물던 곳이었다. 신석기 시대 인류가 잠을 잤을 법한 바로 그 돌판 위에는 방수 천에 말아 둔 담요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조잡하게 만든 화로에는 타다 남은 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조리 도구 몇 점과 물이 절반쯤 담긴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빈 통들을 보니 이곳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한 모양이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점차 빛에 적응하자, 구석에 놓인 작은

냄비와 술이 반쯤 남은 병도 보였다. 오두막 한가운데에는 평평한 돌이 탁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작은 천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망원경으로 소년의 어깨 너머에서 보았던 바로 그 꾸러미임이 틀림없었다. 꾸러미 안에는 빵 한 덩이와 통조림으로 만든 혀 요리, 그리고 복숭아 통조림 두 개가 들어 있었다. 내용을 살펴본 뒤 꾸러미를 다시 내려놓으려던 찰나, 나는 꾸러미 아래에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종이를 들어 올리자 연필로 휘갈겨 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났다.

"왓슨 박사는 쿰 트레이시로 떠났다."

나는 한동안 손에 그 쪽지를 든 채 그곳에 서서, 이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는 쪽은 헨리 바스커빌 경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그가 직접 나를 뒤쫓은 것은 아니었다. 대신 대리인을 붙여 내 뒤를 캐게 한 모양인데, 아마 그 소년일 것이다. 이 쪽지는 그 대리인이 보고한 내용이었다. 황야에 들어선 이후로 내가 한 행동 중 관찰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은 일은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그물을 우리 주변에 쳐 놓은 것 같았다. 그 그물은 너무나 가볍게 우리를 휘감고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물망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었다.

보고서가 하나 있다면 다른 것도 더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두막 안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보고서는커녕 아

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 기묘한 곳에 사는 남자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도 전혀 없었다. 그저 그가 매우 검소한 습관을 지녔으며, 삶의 안락함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만 짐작할 뿐이었다. 쏟아지는 폭우와 뻥 뚫린 지붕을 보니, 이토록 불친절한 거처에서 그를 버티게 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확고한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우리를 해치려는 악의적인 적일까, 아니면 우연히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일까? 나는 정체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오두막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는 해가 낮게 기울어 있었고, 서쪽 하늘은 진홍빛과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펜 늪 사이에 흩어져 있는 먼 연못들은 그 빛을 받아 붉은 얼룩처럼 반사해 냈다. 저 멀리 바스커빌 저택의 두 탑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그림펜 마을을 알리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지점 사이, 언덕 뒤편에는 스테이플턴의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황금빛 저녁 노을 속에서 모든 풍경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 영혼은 대자연의 평온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매 순간 다가오는 그 모호하고도 공포스러운 만남을 생각하며 온몸을 떨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신경을 다잡으며 단단한 결심을 품고, 오두막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이곳에 머물 이가 나타나기를 침울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그의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장화가 돌을 때리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렸다. 뒤이어 또 다른 소리가,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권총을 장전했다. 낯선 이의 정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동안 발소리가 멎었다. 그가 걸음을 멈췄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다시 발소리가 다가왔고, 오두막 입구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참으로 아름다운 저녁이군, 왓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쾌적할 것 같네."

제12장 황야에서의 죽음

제12장. 황야에서의 죽음

나는 한동안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감각과 목소리가 돌아왔고, 동시에 영혼을 짓누르던 막중한 책임감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 차갑고 예리하며 냉소적인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홈즈!" 내가 외쳤다. "홈즈!"

"나오게." 그가 말했다. "그리고 부디 리볼버를 다룰 때 조심하게나."

나는 투박한 문설주 아래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가 바깥쪽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내 얼굴을 마주한 그의 회색 눈동자가 즐거움으로 반짝였다. 그는 수척하고 지쳐 보였으나, 눈빛만은 명료하고 기민했다. 날카로운 인상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

고 바람에 거칠어져 있었다. 트위드 정장에 헝겊 모자를 쓴 모습은 황야를 찾아온 여느 관광객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고양이 같은 깔끔함으로, 마치 베이커가에 있는 것처럼 매끄러운 턱과 정갈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있었다.

"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반가웠던 적은 처음이라네." 나는 그의 손을 꽉 움켜쥐며 말했다.

"아니면 더 놀랐다고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장담컨대,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 스무 걸음 거리까지 다가갈 때까지도 저는 당신이 제가 가끔 찾는 은신처를 알아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심지어 당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줄은 더더욱 몰랐으니까요."

"제 발자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네, 왓슨. 세상에 널린 수많은 발자국 사이에서 자네 발자국만 골라내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네. 만약 자네가 진심으로 나를 속이려 한다면 담배 가게부터 바꿔야 할 거야. 옥스퍼드 가의 브래들리네 가게에서 만든 담배꽁초를 보는 순간, 내 친구 왓슨이 근처에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말일세. 저기 길가 옆을 보게나. 자네가 저걸 떨어뜨렸군. 분명 빈 오두막으로 돌진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심코 던져버린 것이겠지."

"정확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그 대단한 집요함을 잘 알기에, 세입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무기까지 손에 쥐고 매복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훌륭해, 왓슨! 그런데 내 위치를 어떻게 알아낸 건가? 혹시 죄수를 쫓던 그날 밤이었나? 내가 너무 경솔하게도 달을 등지고 서 있는 바람에 자네 눈에 띄기라도 한 건가?"

"네, 그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분명, 이 오두막에 닿을 때까지 다른 오두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뒤져 보았겠군?"

"아니요, 당신이 부리는 소년이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있었지요."

"분명 망원경을 든 노신사겠지. 처음 렌즈에 빛이 번쩍이는 걸 봤을 때는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었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하, 카트라이트가 보급품을 좀 가져왔군. 이건 무슨 종이야? 자네, 쿰 트레이시에 다녀왔나 보군?"

"네."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만나러 간다고요?"

"정확합니다."

"잘됐군! 우리의 조사가 분명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니, 이제 각자의 결과를 합치기만 하면 사건의 전말을 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걸세."

"정말이지 당신이 여기 와 주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책임감과 미스터리가 동시에 몰려오니 제 신경이 버티질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당신이 베이커가에서 그 협박 사건을 해결하느라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용만 하고, 정작 믿지는 않으시는군요!" 나는 약간의 울분을 담아 외쳤다. "홈즈, 당신에게 저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보게, 이번 일도 다른 여러 사건에서 그랬듯이 자네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네. 혹시라도 내가 자네를 속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부디 용서해주게나. 사실 이건 자네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네. 자네가 처한 위험을 생각하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상황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만약 내가 헨리 바스커빌 경과 자네 곁에 있었다면, 나 역시 자네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네. 게다가 내가 옆에 있었다면 우리의 아주 강력한 적들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저택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야. 덕분에 나는 이 사건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친 상태라네."

"하지만 왜 저를 아무것도 모르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정체를 들킬 위험만 커졌겠지요. 당신은 저에게 무언가 말해주고 싶었을 테고, 그 선한 마음으로 저를 위로하려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카트라이트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 익스프레스 사무소에서 일하던 꼬마 녀석 기억하시지요? 그 아이가 제 소소한 필요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빵 한 덩이와 깨끗한 칼라 정도 말입니다. 사람이 그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아이는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는 제 두 발에 더해, 눈 역할을 해줄 또 다른 눈 하나를 보태준 셈이니 참으로 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보고서들은 전부 헛수고가 된 거군요!"

그동안 공을 들여 정성껏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떠올리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보고서가 왔네, 여보게. 내가 보증하건대 아주 꼼꼼히 읽어본 것들이라네.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었으니, 오는 길에 하루 정도 지체

된 것뿐이야. 자네가 이 유례없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려고 보여준 열정과 명석함에는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네."

속임수를 당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마음이 쓰라렸지만, 홈즈가 건네는 따뜻한 찬사에 분노는 어느덧 눈 녹듯 사라졌다. 또한 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다. 홈즈가 황야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일이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표정이 좀 나아졌군." 내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는 것을 본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만나고 온 결과가 어떤지 말해주게. 자네가 그녀를 만나러 갔다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네. 쿰 트레이스에서 이번 사건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그녀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사실 자네가 오늘 가지 않았더라도, 아마 내일은 내가 직접 갔을 걸세."

해가 저물고 황야 위로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기에 우리는 온기를 찾아 오두막 안으로 몸을 피했다. 황혼이 깃든 그곳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홈즈에게 그 부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홈즈는 어찌나 흥미로워하던지, 나는 그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같은 말을 두어 번씩 되풀이해야만 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정보군."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이 복잡한 사건에서 도무지 메울 수 없었던 빈틈을 마침내 채워주었어. 자네도 혹시 알고 있나? 이 부인과 스테이플턴이라는 남자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만나고 편지도 주고받으며, 서로 완벽하게 뜻이 맞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그의 아내를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의 부인 말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준 모든 것에 보답하고자, 이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스테이플턴 양으로 행세해 온 그 여인은 사실 그의 아내입니다."

"세상에, 홈즈! 정말 그 말이 확실한가? 그가 어떻게 헨리 바스커빌 경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단 말인가?"

"헨리 바스커빌 경이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그분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당신도 직접 보셨다시피, 그는 헨리 바스커빌 경이 그 여자에게 마음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여자는 그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정교하게 속이려 드는 거지?"

"그녀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본능과 막연한 의심이 갑자기 형체를 갖추더니, 자연학자를 향해 집중되었다. 밀짚모자를 쓰고 나비채를 든 저 무표정하고 생기 없는 사내에게서, 나는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했다. 그것은 웃는 얼굴 뒤에 살의를 품은 채, 끝없는 인내와 교활함으로 무장한 괴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바로 그자란 말인가? 런던에서 우리를 끈질기게 뒤쫓던 자가 바로 그자란 말인가?"

"그렇게 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네."

"그리고 그 경고 말이야. 분명 그녀가 보낸 게 틀림없어!"

"정확합니다."

오랫동안 나를 옥죄어 온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악행의 형체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반쯤은 보였고, 나머지 반은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홈즈, 정말 확실한가? 그 여자가 그의 아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경솔하게도 자신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그 사실을 수없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는 한때 영국 북부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교사만큼 행방을 찾기 쉬운 직업도 없지요. 교육계에는 전직 교사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으니까요.

조사를 조금 해보니, 어떤 학교가 아주 비참한 사건에 휘말려 폐교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그 학교의 주인은 지금과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아내와 함께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인상착의도 일치했고요. 그 실종된 남자가 곤충학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나니,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이 여전히 많았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로 그의 아내라면, 로라 라이언스 부인은 대체 어떤 관계인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 점이야말로 당신의 조사가 빛을 발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부인과 면담한 덕분에 상황이 아주 명확해졌군요. 저는 그 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은 스테이플턴을 미혼 남성으로 여기고, 분명 그와 결혼할 생각이었겠군요."

"그녀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쩌려고요?"

"그렇다면 그 부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 내일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그녀를 만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겠어. 왓슨, 자네는 맡은 임무를 떠나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바스커빌 저택이라네."

서쪽 하늘을 물들였던 마지막 붉은 줄기들이 사라지자, 황야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보랏빛 하늘 위로 희미한 별 몇 개가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네, 홈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말했다. "자네와 나 사이에 굳이 비밀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자가 노리는 게 무엇인가?"

홈즈가 대답하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이건 살인이야, 왓슨. 아주 정교하고 냉혹하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자세한 내막은 묻지 말게. 그놈이 헨리 경을 옥죄어 오듯, 나 역시 그놈을 향해 그물을 좁혀가는 중이니까. 자네가 도와준 덕분에 그놈은 이미 내 손아귀에 거의 다 들어왔네.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은 단 하나뿐이야. 우리가 준비를 마치기 전에 그놈이 먼저 공격해 오는 것이지.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자네가 맡은 사람을 지켜주게. 병든 아이를 살피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말이야. 오늘 자네가 한 일은 충분히 가치 있었네. 사실 자네가 그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마저 드는군. 잠깐, 저 소리 좀 들어보게!"

황야의 정적을 깨고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그 길고 처절한 절규는 황야의 고요를 단번에 찢어놓았다. 그 소름 끼치는 비명을 듣는 순간, 내 혈관 속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세상에!" 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홈즈가 벌떡 일어났다. 오두막 문가에 선 그의 검고 탄탄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어둠 속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쉿!" 그가 속삭였다. "쉿!"

비명은 워낙 격렬해서 소리 자체는 컸으나, 어딘가 어둑한 황야 저 멀리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비명이 이전보다 훨씬 가깝고도 크게, 그리고 절박하게 우리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게 어디 있지?" 홈즈가 속삭였다.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그가 영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만으로도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왓슨?"

"저기인 것 같군." 나는 어둠 속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 저기다!"

고통에 찬 비명이 다시 한번 정적에 잠긴 밤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이었다. 그 비명 사이로 새로운 소리가 섞여 들었다. 낮게 웅얼거리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 소리는 음악처럼 들리기도 했으나 동시에 위협적이었고, 마치 바다의 낮은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다.

"그 개다!" 홈즈가 외쳤다. "어서, 왓슨, 어서 가세! 세상에, 우리가 너무 늦는 건 아니겠지!"

그는 황야를 가로질러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나도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펼쳐진 울퉁불퉁한 지면 어딘가에서 마지막 절규가 들려왔다. 뒤이어 둔탁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 외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홈즈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마를 손으로 짚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발을 구르며 땅을 세게 짓밟았다.

"우리가 졌네, 왓슨. 너무 늦었어."

"아니, 아니요, 설마 그럴 리가요!"

"내가 어리석었네. 손을 뻗어 붙잡았어야 했는데! 왓슨, 자네도 보게나. 맡은 임무를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하지만 하늘에 맹세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그를 위해 복수하고 말겠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무작정 달렸다.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오르고 경사면을 내달리는 내내,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그 끔찍한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홈즈는 간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황야에는 짙은 그림자만이 깔려 있을 뿐, 황량한 대지 위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뭐 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들어보게. 저게 무슨 소리지?"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왔다. 왼쪽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그쪽 방향으로는 바위 능선이 이어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끝났고, 그 아래로는 돌무더기가 흩어진 경사면이 내려다보였다. 들쭉날쭉한 절벽 면에는 어둡고 불규칙한 형체 하나가 팔다리를 벌린 채 붙어 있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자, 흐릿하던 윤곽이 점차 뚜렷한 형체로 변했다.

그것은 땅을 향해 엎드려 쓰러진 한 남자의 몸이었다. 머리는 끔찍한 각도로 꺾여 몸 아래로 말려 들어갔고, 어깨는 둥글게 말린 채 마치 공중제비를 돌다 멈춘 듯 몸이 잔뜩 웅크려 있었다. 자세가 너무나 기괴해서, 방금 들린 신음이 죽어가는 이의 마지막 숨결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즉시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가 몸을 굽혀 살핀 그 검은 형체에서는 이제 아무런 속삭임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홈즈가 그에게 손을 얹더니, 경악 섞인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떼어냈다. 홈즈가 그어 올린 성냥불이 피떡이 된 손가락과, 짓이겨진 해골에서부터 천천히 번져 나가는 소름 끼치는 핏물 위를 비추었다. 그리고 불빛은 우리의 마음을 창백하게 만들고 구역질이 치밀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비추었다. 바로 헨리 바스커빌 경의 시신이었다!

그 특이한 붉은빛 트위드 슈트를 우리 둘 중 누구도 잊을 리 없었다. 베이커가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 아침, 그가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우리는 그 옷을 아주 잠깐, 단 한 번 선명하게 목격했을 뿐이었다. 마치 우리의 영혼에서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성냥불마저 깜빡이다가 이내 꺼져 버렸다. 홈즈가 신음 소리를 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외쳤다. "오, 홈즈. 그를 그런 운명에 내버려 두고 떠나다니, 내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야."

"자책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요, 왓슨.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다 의뢰인의 목숨을 버리고 말았으니 말이오. 내 경력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 큰 타격은 없을 거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았겠소? 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그가 홀로 황야에서 목숨을 걸고 나설 줄을, 내가 대체 어떻게 알았단 말이오!"

"그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세상에, 그 처절한 비명을 듣고도 그를 구하지 못하다니!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짐승 같은 개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위 틈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지. 그리고 스테이플턴, 그놈은 어디에 있나? 반드시 이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죠. 삼촌과 조카가 살해당했습니다. 한 명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괴물을 본 것만으로 공포에 질려 죽었고, 다른 한 명은 그 괴물로부터 도망치려 필사적으로 달리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과 괴물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제외하면,

헨리 바스커빌 경이 분명 추락사한 것이기에 괴물의 존재 자체를 확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맹세코, 그놈이 아무리 교활할지라도 내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내 손아귀에 넣고 말겠습니다!"

우리는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 양옆에 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길고 고단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이토록 비참한 결말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갑작스럽고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우리를 짓눌렀다. 달이 떠오를 무렵, 우리는 불쌍한 친구가 추락했던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다. 정상에 서서 바라본 황야는 은빛과 어둠이 뒤섞인 채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멀리 수 마일 밖, 그림펜 방향에서 노란 불빛 하나가 일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빛은 스테이플턴의 외딴 저택에서 새어 나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빛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당장 그를 붙잡지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사건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놈은 마지막 순간까지 극도로 경계심이 강하고 교활한 자야.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잘못 움직인다면, 악당을 놓치고 말지도 몰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일은 우리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걸세. 오늘 밤은 그저 불쌍한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 전념하세나."

우리는 함께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 시신에 다가갔다. 은빛으로 빛나는 돌들 사이에서 시신은 검은 형체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뒤틀린 채 굳어버린 사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내 가슴을 찔렀고, 눈앞은 눈물로 흐릿해졌다.

"홈즈,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이 사람을 저택까지 계속 업고 갈 수는 없다고요. 세상에, 제정신이에요?"

그는 비명을 지르더니 시신 위로 몸을 굽혔다. 그러더니 이제는 춤을 추고 웃으며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엄격하고 냉철한 친구란 말인가? 그의 내면에는 참으로 뜨거운 불꽃이 숨겨져 있었다!

"수염이라니! 수염이라니! 그 사람, 수염이 있었어!"

"수염 말입니까?"

"바스커빌 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제 이웃인 그 죄수예요!"

우리는 다급히 시신을 뒤집었다. 젖은 수염이 차갑고 맑은 달을 향해 솟아 있었다. 툭 불거진 이마와 움푹 들어간 짐승 같은 눈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바위 너머 촛불 아래서 나를 매섭게 노려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범인, 셀든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바스커빌 경이 자신의 오래된 옷장을 배리모어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배리모어

는 셀던의 탈출을 돕기 위해 그 옷을 건네준 것이었다. 장화와 셔츠, 모자까지, 모두 헨리 바스커빌 경의 물건이었다. 비극적인 사건임은 변함없었으나, 적어도 이 남자는 자국의 법에 따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홈즈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그 불쌍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옷이었군." 그가 말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의 물건을 이용해 사냥개를 풀어놓은 게 분명해. 호텔에서 도난당한 그 장화가 아마도 그 수단이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쫓기게 된 거야. 하지만 아주 기이한 점이 하나 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셀던은 어떻게 사냥개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사냥개 소리를 들었겠지요."

"황야에서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이 죄수처럼 강인한 사내가 도움을 요청하려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를 만큼 공포에 질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포획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소리를 질렀을 테니까요. 그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 걸 보면, 짐승이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나서 한참을 달아난 게 분명합니다.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추측이 모두 옳다고 가정한다면, 내게 더 큰 의문은 대체 왜 이런 사냥개가 나타났느냐 하는 점이라네."

"짐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 밤 이 사나운 개가 풀려난 것일까. 내 생각에 이 개가 항상 황야를 돌아다니는 건 아닐세. 스테이플턴이 헨리 바스커빌 경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결코 개를 풀어놓지는 않았을 거야."

"내 고민은 두 가지 중 더 까다로운 쪽이라네. 자네가 가져온 문제는 머지않아 설명이 나올 것 같지만, 내 문제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르거든. 이제 문제는 이 불쌍한 희생자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네. 여우나 까마귀 밥이 되도록 이곳에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경찰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일단 저 오두막 중 하나에 넣어 두는 게 좋겠소."

"정확해. 자네와 내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어이, 왓슨, 이게 대체 뭐야? 세상에, 이토록 놀랍고 대담한 일이 있다니! 이건 바로 그 사람이야! 자네, 의심스러운 기색을 조금이라도 내비쳐선 안 되네. 단 한 마디라도 입을 놀렸다간 내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 테니까."

황야 너머에서 어떤 형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가에서 피어오르는 둔탁한 붉은 빛이 보였다. 달빛을 받은 그 형체는 자연학자 특유의 말쑥한 체격과 경쾌한 걸음걸이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서더니, 이내 다시 다가왔다.

"아니, 왓슨 박사님, 당신 아니오? 이 깊은 밤에 황야에서 당신을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런데,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다친 건가요? 설마—설마 우리 친구인 헨리 바스커빌 경은 아니겠지요!"

그는 내 곁을 급히 지나쳐 죽은 남자 위로 몸을 숙였다. 그가 숨을 헉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 시가가 툭 떨어졌다.

"누, 누구십니까?" 그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프린스타운에서 탈옥한 셀던이야."

스테이플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경악과 실망감을 억누르고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홈즈와 나를 번갈아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말했다.

"세상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군요! 대체 어떻게 죽은 겁니까?"

"이 바위들에 걸려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친구와 함께 황야를 산책하던 중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지요. 헨리 바스커빌 경이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왜 하필 헨리 바스커빌 경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그분을 오시라고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오지 않으시니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황야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자, 당연히 그분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아, 참."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홈즈의 얼굴로 다시 옮겨갔다. "비명 소리 말고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홈즈가 말했다. "당신은 그랬습니까?"

"아니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마을 사람들이 떠드는 유령 개 이야기 같은 거 말입니다. 밤마다 황야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괴담 말이죠. 혹시 오늘 밤에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증거가 있을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이 가여운 분의 죽음에 대해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안감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황야를 헤매다 결국 이곳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진 것이지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이론 같군요."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는데, 나는 그 소리에서 그가 안도하고 있음을 느꼈다. "셜록 홈즈 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친구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신원을 알아보시는 솜씨가 참으로 빠르시군요.” 그가 말했다.

“왓슨 박사가 이곳에 내려온 뒤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기에 딱 좋은 때에 오셨군요.”

“그렇고말고요. 제 친구의 설명이라면 모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이면 불쾌한 기억을 뒤로한 채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겠군요.”

“아, 내일 돌아가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이번 방문이 우리가 그토록 골머리를 앓던 그 사건들을 파헤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이 언제나 바라는 대로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지. 조사관에게 필요한 건 전설이나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네. 이번 사건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어.”

내 친구는 더할 나위 없이 솔직하고 태연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스테이플턴은 여전히 그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불쌍한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지만, 그러면 누이가 너무 놀랄 것 같아 차마 그럴 수가 없구려. 대신 얼굴을 무언가로 가려둔다면 아침까지는 안전할 것 같소."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다. 홈즈와 나는 스테이플턴의 환대를 정중히 거절하고 바스커빌 저택으로 향했다. 자연학자인 그는 홀로 돌아가게 두었다. 뒤를 돌아보니, 광활한 황야를 가로질러 천천히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편, 은빛으로 빛나는 경사면 위에는 검은 얼룩 하나가 남아 있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남자가 쓰러져 있던 자리였다.

"드디어 놈을 코앞까지 몰아붙였군."

황야를 함께 가로질러 걸어가던 중 홈즈가 말했다.

"그 친구, 배짱 하나는 정말 대단해! 자신의 음모가 엉뚱한 사람에게 먹혀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분명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말이야.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왓슨, 내가 런던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떤 적보다도 우리 검을 받아낼 자격이 있는, 아주 대단한 적수를 만난 거야."

"그가 당신을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더군요."

"그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그를 더 신중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극단적인 수단을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리한 범죄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그는 자신의 지략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우리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그를 체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보게, 왓슨. 자네는 행동파로 태어났군. 본능적으로 무언가 활기차게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야. 하지만 논의를 위해 가정해 보세. 만약 우리가 오늘 밤 그를 체포한다 한들, 대체 무엇이 좋아지겠나? 그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바로 그 점이 아주 악랄한 수법이지! 만약 그가 인간을 앞세워 움직이는 자라면 증거라도 잡을 수 있겠지만, 이 거대한 개를 억지로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고 한들 그 주인의 목에 밧줄을 거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분명 우리에겐 입증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추측과 짐작뿐이지요. 이런 이야기와 증거를 들고 갔다간 법정에서 비웃음만 사고 쫓겨날 겁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이 있습니다."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가 순전히 공포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이 그를 겁에 질리게 했는지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열두 명의 무덤덤한 배심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개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짐승의 송곳니 자국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개가 죽은 시체를 물지 않는다는 것과, 찰스 바스커빌 경이 그 짐승에게 붙잡히기도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밤인가요?"

"오늘 밤도 별반 나아진 게 없군. 다시 말하지만, 그 괴물 같은 개와 남자의 죽음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우리는 개를 보지도 못했네. 소리만 들었을 뿐, 그놈이 이 남자의 뒤를 쫓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지. 범행 동기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 아니, 이보게. 지금으로선 사건을 성립시킬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러니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쓸 가치가 충분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라 라이언스 부인이 명확히 알게 된다면, 그녀가 우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거라 믿네. 나에게는 나만의 계획도 따로 있고 말이야.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법이지만, 오늘이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승기를 잡기를 바라고 있네."

그에게서 더는 아무런 정보도 끌어낼 수 없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터벅터벅 걸어가 바스커빌 저택의 정문 앞에 이르렀다.

"올라오시겠습니까?"

"그래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군요. 하지만 왓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죠.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는 그 사냥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셀던의 죽음은 스테이플턴의 말대로 일어난 사고라고 믿게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그가 겪어야 할 시련을 견딜 용기가 생길 테니까요. 당신의 보고가 맞다면, 그는 내일 이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리를 비켜주어야겠군요. 그분이 혼자 가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다면, 우리 둘 다 식사를 할 준비가 된 것 같군요."

제13장 그물을 치다

제13장. 그물을 손질하며

헨리 바스커빌 경은 셜록 홈즈를 보고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반가워했다.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홈즈가 런던을 떠나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며칠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친구가 짐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고, 왜 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해했다. 우리는 곧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바스커빌 경이 알아야 할 만큼의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전에 나는 배리모어 부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불쾌한 임무를 먼저 수행해야 했다. 배리모어에게는 이 소식이 그저 전적인 안도감으로 다가왔을지 모르나, 그의 아내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 같은 폭력적인 사내로 통했다. 하지만 아내에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어린 시

절, 손을 꼭 붙잡고 따르던 고집 센 꼬마 소년일 뿐이었다. 슬퍼해 줄 여인 한 명조차 곁에 없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법이다.

"왓슨이 아침에 떠난 뒤로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우울하게만 지냈습니다."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약속을 지켰으니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활기찬 저녁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스테이플턴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당신이라면 분명 훨씬 더 활기찬 저녁을 보냈겠지요." 홈즈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나저나, 우리가 당신이 목이 부러져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상심했었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헨리 바스커빌 경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불쌍한 자는 당신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건네준 하인이 경찰에게 문책을 당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군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들 중 어느 것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행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법을 어긴 셈이니까요. 양심적인 탐정으로서 내 첫 번째 임무가 이 집안 식구 전부를 체포하는 일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겠군요. 왓슨의 보고서들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물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스커빌 경이 물었다. "그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좀 풀었나요? 우리가 내려온 뒤로 왓슨과 저 모두 상황이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머지않아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이라 시간이 좀 걸렸군요. 아직 밝혀내야 할 점이 몇 가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왓슨이 분명 말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황야에서 그 개 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게 그저 근거 없는 미신만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부 지역에 있을 때 개를 다루는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놈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사슬에 묶어낼 수만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탐정이라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놈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사슬로 꽁꽁 묶어버릴 작정입니다."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만 따라 주었으면 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대로만 해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내 머리 너머 허공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등불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으나, 그는 너무나도 집중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경계와 기대를 온몸으로 구현해낸, 선이 선명한 고전 조각상 같았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 둘은 동시에 외쳤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 내 눈에는 그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였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으나, 눈빛만큼은 즐거운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전문가의 감탄이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게."

그는 맞은편 벽을 가득 채운 초상화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왓슨은 내가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몰아세우곤 하지만, 그건 그저 예술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질투일 뿐이라네. 자, 보게나. 이 초상화들은 정말이지 아주 훌륭한 연작이라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내 친구를 약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이런 쪽으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그림보다는 말이나 소를 보는 게 훨씬 자신 있거든요. 홈즈 씨가 이런 일에 시간을 내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작품은 보기만 해도 딱 알 수 있지요. 지금 제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저기 푸른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 초상화는 분명 크넬러의 작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발을 쓴 풍채 좋은 신사분은 레이놀즈의 그림일 테고요. 제 짐작이 맞다면, 이 그림들은 모두 가문의 초상화들이겠군요?"

"모두 다요."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까?"

"배리모어가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배운 내용을 제법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있는 저 신사는 누구입니까?"

"저분은 로드니 제독 휘하에서 서인도 제도 근무를 했던 바스커빌 해군 소장이라네. 그리고 푸른 코트를 입고 서류 뭉치를 든 남자는 피트 총리 시절 하원 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윌리엄 바스커빌 경이고."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은 저 기사 말입니다. 검은 벨벳에 레이스를 두른 사람요."

"아, 그에 대해 아실 권리가 충분합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바로 그 악한 휴고 때문입니다. 바스커빌 가의 개를 불러온 장본인이 바로 그자지요. 우리는 결코 그를 잊지 못할 겁니다."

나는 흥미와 약간의 놀라움을 느끼며 그 초상화를 응시했다.

"이런!" 홈즈가 말했다. "겉보기에는 아주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 같지만, 눈빛 속에 악마를 숨기고 있었을 게 분명해. 나는 그가 훨씬 더 건장하고 거친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것이 진품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캔버스 뒷면에 이름과 1647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요."

홈즈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호탕했던 노신사의 초상화에 마음을 빼앗긴 듯, 저녁 식사 내내 그의 시선은 줄곧 그림에 머물러 있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방으로 돌아간 뒤에야 나는 홈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홈즈는 침실용 촛불을 손에 든 채 나를 다시 연회장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초상화 앞으로 촛불을 가까이 가져갔다.

"저기서 뭐라도 보이는 게 있습니까?"

나는 넓은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하얀 레이스 칼라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드러난 곧고 엄격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었으나, 단정하면서도 딱딱하고 냉혹한 느낌을 주었다. 얇은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날카로웠다.

"혹시 아는 사람과 닮았습니까?"

"턱 언저리가 어딘가 헨리 바스커빌 경을 닮은 데가 있군."

"그저 제 제안일 뿐입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는 의자 위로 올라섰다. 왼손에는 등불을 높이 들고, 오른팔은 넓은 모자 위로 굽혀 길게 늘어진 곱슬머리 주위를 휘감았다.

"세상에!" 나는 경악하며 외쳤다.

캔버스 너머에서 스테이플턴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하, 이제야 알겠군. 내 눈은 겉치레가 아니라 얼굴 그 자체를 살피도록 훈련되어 있거든. 변장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범죄 수사관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자질이라네."

"하지만 이건 정말 놀랍군요. 어쩌면 그의 초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형질이 되돌아온 아주 흥미로운 사례군요. 가문의 초상화들을 연구하다 보면 윤회설을 믿지 않던 사람도 결국 믿게 될 겁니다. 그 친구는 분명 바스커빌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점은 아주 명백해요."

"후계 자리를 노리고 말입니다."

"정확해. 이 그림 덕분에 아주 명백한 연결 고리 하나를 찾아냈어. 왓슨, 드디어 그를 잡았어. 장담컨대 내일 밤이 지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수집하던 나비처럼 우리 그물에 걸려 무력하게 파닥거리고 있을 거야. 핀과 코르크, 그리고 카드만 있으면 돼. 그럼 그를 베이커가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지!"

홈즈는 그림에서 고개를 돌리며 드물게 터져 나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가 웃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그가 웃을 때면 언제나 누군가에게 불길한 징조가 되곤 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홈즈는 그보다 더 일찍 움직이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 오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겠군." 그는 일을 시작한다는 즐거움에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물은 이미 다 설치해 두었으니 이제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알 수 있겠지. 우리가 그 크고 턱이 가느다란 강꼬치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놈이 그물코를 빠져나가 버렸을지 말이야."

"벌써 황야에 다녀오셨습니까?"

"셀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림펜에서 프린스타운으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이 번거로워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죠. 그리고 충직한 카트라이트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약 제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려 마음을 놓게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마치 주인의 무덤 곁을 지키는 개처럼 제 오두막 문앞에서 속이 타들어 가며 죽어갔을 겁니다."

"다음 수는 무엇인가?"

"헨리 경을 뵙기로 했습니다. 아, 마침 오셨군요!"

"좋은 아침이네, 홈즈." 바스커빌 경이 인사를 건넸다. "자네 모습이 마치 참모장과 전투 계획을 짜고 있는 장군 같군."

"정확히 그런 상황이라네. 왓슨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듣기로는 오늘 저녁 스테이플턴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셨다면서요?"

"당신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친절한 분들이라, 당신이 오면 분명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아무래도 왓슨과 내가 런던으로 가야 할 것 같네."

"런던으로 말입니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더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스커빌 경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이번 일 내내 당신이 곁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혼자 있기에 저택과 황야는 그리 유쾌한 곳이 아니거든요."

"여보게,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친구들에게는 우리도 함께 가면 참 좋았겠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런던

을 떠날 수 없었다고 전해주게. 조만간 꼭 데번셔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이야.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줄 수 있겠나?”

“정 그러시다면야.”

“다른 방도는 없다고 확언하겠습니다.”

그의 미간에 어린 그늘을 보니, 그는 우리가 자신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며 깊은 상처를 받은 모양이었다.

"언제 떠나고 싶으십니까?" 그가 차갑게 물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네. 쿰 트레이시까지는 차를 타고 가겠지만, 왓슨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담보로 짐을 여기 남겨두기로 하지. 왓슨, 자네는 스테이플턴에게 못 가게 되어 유감이라는 쪽지를 보내주게.”

“당신과 함께 런던으로 갈 생각입니다.”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내가 왜 여기서 혼자 머물러야 합니까?”

“그건 자네의 임무니까.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내게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니 지금은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걸세.”

“좋소, 그럼 머무르겠소.”

“지시를 하나 더 내리지요! 메리핏 저택까지 마차를 몰아주십시오. 다만, 마차는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걸어서 돌아갈 생각이라고 전해주십시오.”

"황야를 가로질러 걷겠다고요?"

"네."

"하지만 그건 당신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행동 아닙니까?"

"이번에는 안심하고 수행해도 좋네. 자네의 담력과 용기를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이런 제안조차 하지 않았을 걸세.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자네가 해내야만 하네."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목숨이 아깝다면 황야를 가로질러 어디로든 함부로 다니지 마십시오. 메리핏 하우스에서 그림펜 도로로 이어지는 곧은 길, 즉 집으로 돌아가는 평소의 길로만 다니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출발하고 싶군요. 그래야 오후에는 런던에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계획이라니, 나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물론 홈즈가 스테이플턴에게 전날 밤, 이번 방문은 내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은 났다. 하지만 홈즈가 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홈즈 스스로가 매우 중대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던 시기에, 우리 둘

다 자리를 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홈즈의 말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아쉬워하는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두 시간쯤 지나 우리는 쿰 트레이시 역에 도착했고, 타고 온 마차는 돌려보냈다. 승강장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시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카트라이트, 자네는 이 기차를 타고 시내로 가게. 도착하는 즉시 내 이름을 빌려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전보를 보내게나. 내가 떨어뜨린 지갑을 찾게 되면, 베이커가로 등기 우편을 보내달라고 전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 사무실에 들러서 나한테 온 메시지가 있는지 꼭 물어봐 주게."

소년이 전보를 들고 돌아왔다. 홈즈는 그 전보를 내게 건네주었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보 수신함. 서명 없는 영장 들고 내려가는 중. 5시 40분 도착 예정. 레스트레이드.

"오늘 아침 내가 보낸 전보에 대한 답장이라네. 내 생각에 그는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이니, 우리가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군.

자, 왓슨. 이제 자네의 지인인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네."

그의 작전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홈즈는 헨리 바스커빌 경을 이용해 우리가 정말로 떠났다고 스테이플턴 일가를 안심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맞춰 몰래 돌아올 계획이었다. 만약 헨리 바스커빌 경이 스테이플턴 측에 런던에서 온 전보 내용을 언급한다면, 그들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마치 턱이 가느다란 강꼬치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 물이 점점 좁혀져 오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로라 라이언스 부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셜록 홈즈는 그녀를 마주하자마자 매우 솔직하고도 거침없이 본론을 꺼냈는데, 그 태도가 어찌나 단도직입적인지 그녀는 적잖이 당황했다.

"저는 고(故) 찰스 바스커빌 경의 사망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있는 제 친구 왓슨 박사가 당신이 전해준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숨기고 있는 사실까지 모두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숨겼다는 말인가요?" 그녀가 당당하게 되물었다.

"당신은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열 시에 정문 앞에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그가 사망한 지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군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이지 기막힌 우연이군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이언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에 따라 당신의 친구인 스테이플턴 씨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까지도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아내라고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누이동생으로 알려졌던 사람은 사실 그의 아내였습니다.”

라이언스 부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톱의 분홍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아내라고요!” 그녀가 다시 외쳤다. “그의 아내라니요! 그는 유부남이 아니에요.”

셜록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증명해 봐! 내게 증명해 보란 말이야! 만약 네가 해낼 수만 있다면—!”

그녀의 눈에서 번뜩인 강렬한 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할 준비를 마쳤네." 홈즈가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 4년 전 요크에서 찍은 부부의 사진이 있네. 뒷면에는 '밴델루어 부부'라고 적혀 있지만, 자네는 이 남자를 알아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테고,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면 그녀 또한 알아볼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여기, 당시 세인트 올리버 사립학교를 운영하던 밴델루어 부부에 대해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이 작성한 세 가지 인상착의 기록도 있네. 이것들을 읽어보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란 말일세."

그녀는 그들을 슬쩍 훑어보더니, 절망에 빠진 여인 특유의 굳게 굳은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은 제게 남편과 이혼한다는 조건으로 청혼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 악당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속였어요. 단 한 마디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고요! 저는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죠. 저는 그저 그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자신은 저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으면서, 제가 왜 그를 믿어야 하죠? 그가 저지른 사악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제가 왜 그를 감싸야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숨기는 것 없이 다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맹세할 수

있어요. 제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저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였던 그 노신사에게 해가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전적으로 믿습니다, 부인." 셜록 홈즈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게 무척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가 사건의 경위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편이 낫겠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잘못 말한다면 그때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편지를 보내라고 제안한 사람이 스테이플턴인가요?"

"그가 불러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혼 소송에 드는 법적 비용을 찰스 바스커빌 경이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럼 편지를 보낸 뒤에, 그가 약속을 취소하도록 당신을 설득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위해 돈을 마련하게 된다면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한 처지일지라도,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일관된 성격인 것 같군요. 그러고 나서 신문에 사망 기사가 실릴 때까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아니오.”

“그럼 찰스 바스커빌 경과 만났다는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그가 당신에게 맹세까지 시켰단 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그 죽음이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밝혀지면 분명 저도 용의선상에 오를 거라고 했지요. 결국 그가 저를 겁박해서 입을 다물게 만든 겁니다.”

“그렇고말고요. 하지만 의심은 하고 계셨던 거죠?”

그녀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분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이 저와의 신의를 지켰더라면, 저 또한 언제나 그분께 신의를 지켰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 좋게 위기를 모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당신은 그의 약점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고 그 사실 또한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낭떠러지 끝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라이언스 부인, 이제 이만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아마 조만간 저희에게서 다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건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네. 눈앞을 가로막던 난관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시내에서 오는 급행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중, 홈즈가 말했다.

"조만간 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게 될 걸세.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1866년 리틀 러시아의 고드노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들을 기억하겠지. 노스캐롤라이나의 앤더슨 살인 사건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네. 아직은 이 아주 교활한 자를 단죄할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 같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주 놀랄 정도일 테니까."

런던행 급행열차가 굉음을 내며 역으로 들어왔다. 곧이어 1등석 객차에서 작고 단단한 체구의, 마치 불독을 연상시키는 사내가 뛰어내렸다. 우리 세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레스트레이드가 내 동료를 경외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이 처음 함께 일하던 시절에 비해 레스트레이드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음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당시 논리적인 추론을 즐기던 홈즈의 이론이 실무를 중시하던 레스트레이드에게 얼마나 큰 경멸을 불러일으켰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뭐 좀 재미있는 거라도 있나?" 그가 물었다.

"지난 몇 년간 마주한 사건 중 가장 거대한 건이군." 홈즈가 말했다. "출발하기 전까지 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네. 그동안 저녁이라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지. 레스트레이드 경위, 그 후엔 다트무어의 신선한 밤공기를 마시게 해주겠네. 자네 목에 낀 런던의 안개를 싹 씻어내 줄 수

있을 거야. 다트무어는 가본 적 없나? 뭐, 처음 가보는 길이라 쉽게 잊지는 못할 걸세."

제14장 바스커빌 가의 개

제14장. 바스커빌 가의 개

셜록 홈즈의 결점 중 하나를 꼽자면—물론 그것을 결점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그는 계획이 실행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자신의 구상을 타인에게 결코 전부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분명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놀라게 하길 즐기는 그의 지배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면이 있었다. 또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직업적 신중함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의 대리인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들은 무척이나 애를 먹어야 했다. 나 역시 그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어둠 속을 달리는 그 긴 여정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거대한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마침내 최후의 결전을 앞둔 순간이었음에도 홈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길 양옆으로 펼쳐진 어둡고 텅 빈 공간과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자, 우리가 다시

황야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나는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말의 발걸음과 수레바퀴가 구를 때마다, 우리는 운명을 건 위대한 모험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다.

대절한 마차의 마부가 곁에 있는 바람에 대화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감정과 기대감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음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이야기나 나누어야 했다.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상황이 지나고, 마침내 프랑클랜드의 저택을 지나 바스커빌 저택과 사건의 현장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저택 문 앞까지 가지 않고 가로수길 입구 근처에서 내렸다. 마부에게 요금을 지불한 뒤 즉시 쿰 트레이시로 돌아가라고 일러두고, 우리는 메리핏 하우스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무기를 지참했나, 레스트레이드 경위?”

꼬마 탐정은 미소를 지었다. “바지가 있는 한 주머니도 있는 법이고, 주머니가 있는 한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기 마련이죠.”

“좋습니다! 제 친구와 저 역시 비상사태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홈즈 씨,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아주 굳게 다물고 계시는군요. 이번엔 무슨 꿍꿍이입니까?"

“기다림의 싸움이군.”

“세상에, 전혀 유쾌한 곳 같지가 않군요.”

경위가 몸을 떨며 말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둑한 언덕의 경사면과 그림펜 늪 위로 거대하게 깔린 안개 호수를 훑어보았다.

"저 앞에 집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가 메리핏 저택입니다. 이제 여정도 끝났군요. 부탁인데, 발소리는 죽이고 목소리도 속삭이듯 낮춰 주십시오."

우리는 마치 저택으로 향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저택에서 약 200야드쯤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홈즈가 우리를 멈춰 세웠다.

"이 정도면 됐어." 그가 말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바위들이 아주 훌륭한 차폐막이 되어주겠군."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까?"

"그래요, 여기서 잠복근무를 준비합시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이 움푹 파인 곳으로 들어오세요. 왓슨 박사, 당신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었지요? 방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 끝에 있는 격자무늬 창문들은 무엇입니까?"

"주방 창문인 것 같군요."

"그 너머에서 저토록 밝게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식당이 맞군요."

"블라인드는 올려두었네. 지형은 자네가 가장 잘 알 테니,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가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게.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하네!"

나는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레 길을 따라 내려가, 키 작은 과수원을 둘러싼 낮은 담장 뒤로 몸을 굽혔다. 그러고는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살금살금 움직여,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창문 안을 곧장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다다랐다.

방 안에는 헨리 바스커빌 경과 스테이플턴, 두 사람뿐이었다. 두 사람은 원형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를 마주 본 채 옆얼굴을 드러내며 앉아 있었다. 둘 다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커피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스테이플턴은 활기차게 말을 이어갔지만, 바스커빌 경은 안색이 창백하고 정신이 딴 데 팔린 듯 보였다. 아마도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황야를 홀로 가로질러 걸었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을 지켜보는 사이 스테이플턴이 일어나 방을 나갔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잔에 술을 다시 채우고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시가에 연기를 내뿜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갈을 밟는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내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담장 너머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담장 너머를 살피니, 자연학자 스테이플턴이 과수원 구석에 있는 부속 건물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보였다.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건물 내부에서 무언가 뒤

척이며 부스럭거리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안으로 들어간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그는 내 곁을 지나 본채로 다시 들어갔다. 스테이플턴이 손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내가 본 것을 동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조용히 기어갔다.

"그러니까 왓슨, 그 여인이 거기 없었다는 말인가?"

내가 보고를 마치자 홈즈가 물었다.

"아니오."

"주방 말고는 다른 방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데, 그럼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거대한 그림펜 늪 위로 짙고 하얀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고 이미 말했다. 안개는 우리 쪽을 향해 천천히 흘러오더니, 우리 앞쪽에서 마치 거대한 벽처럼 쌓였다. 높이는 낮았지만 두껍고 경계가 뚜렷했다. 달빛을 받은 안개는 마치 거대하게 일렁이는 얼음 벌판처럼 보였고, 멀리 보이는 토르(tor)의 봉우리들은 그 표면 위에 떠 있는 바위처럼 보였다. 홈즈는 안개가 느릿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초조한 듯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네, 왓슨."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요?"

"정말 심각한 일이군. 내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니. 이제 곧 도착하겠지. 벌써 열 시라네. 안개가 길을 덮어버리기 전에 그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공은 물론, 그의 목숨까지도 달려 있을지도 몰라."

머리 위로 맑고 화창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별들은 차갑고 밝게 빛났고, 반달은 온 세상을 부드럽고도 불확실한 빛으로 적시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저택의 어두운 형체가 자리했다. 은빛 별들이 뿌려진 하늘을 배경으로, 들쭉날쭉한 지붕과 삐죽하게 솟은 굴뚝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래층 창문에서 흘러나온 황금빛 줄기들이 과수원과 황야를 가로질러 길게 뻗어 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그 빛줄기 중 하나가 끊겼다. 하인들이 주방을 떠난 것이다. 이제 식당에 켜진 등불만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살의를 품은 주인과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 두 남자가 여전히 시가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황야의 절반을 뒤덮은 하얀 양털 같은 평원이 매 순간 저택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밀려들고 있었다. 벌써 가느다란 안개 줄기들이 빛이 새어 나오는 황금빛 창가로 말려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과수원의 먼 쪽 벽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고, 나무들은 소용돌이치는 흰 증기 속에서 겨우 형체만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 안개 고리들은 저택의 양쪽 모퉁이를 타고 기어와 천천히 하나로 뭉쳐졌다. 이내 안개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마치 어두운 바다 위에 떠 있는 기이한 배처럼

저택의 지붕과 위층을 집어삼켰다. 홈즈는 눈앞의 바위를 격정적으로 내리치더니,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서성였다.

"15분 안에 그가 나오지 않으면 길 전체가 안개로 뒤덮일 걸세. 30분만 지나면 눈앞의 손조차 보이지 않게 될 거야."

"좀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뒤로 물러날까요?"

"그래, 그러는 편이 좋겠군."

안개가 밀려오자 우리는 안개를 피해 뒤로 물러났다. 저택에서 0.5마일 정도 떨어진 곳까지 물러나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달빛을 받아 윗부분이 은빛으로 빛나는 그 짙은 흰색 바다는, 여전히 느릿하면서도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들고 있었다.

"너무 멀리 나갔어." 홈즈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붙잡힐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있는 이곳을 지켜야 해."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땅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다행이군.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황야의 정적을 깨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바위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눈앞에 보이는 은빛 둑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발소리는 점점 커졌고, 안개가 마치 커튼처럼 걷히며 우리가 기다리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별빛이 쏟아지는 맑은 밤공기 속으로 걸어 나온 그는 깜짝 놀란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어 그는 길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더니,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바로 옆으로 지나쳐 우리 뒤편의 긴 경

사면을 향해 올라갔다. 그는 마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처럼, 걷는 내내 끊임없이 양옆을 살폈다.

"쉿!" 홈즈가 외쳤다. 곧이어 권총의 공이가 맞물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게! 무언가 오고 있어!"

기어가는 듯한 안개 덩어리 중심부 어딘가에서 가늘고 바삭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안개 구름은 우리가 누워 있는 곳에서 50야드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저 안개 속에서 어떤 공포가 튀어나올지 몰라 눈을 부릅뜬 채 응시했다. 나는 홈즈의 곁에 바짝 붙어 있었기에 잠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환희에 찬 기색이었고, 달빛을 받은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눈동자가 굳어지며 한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경악한 듯 입술이 벌어졌다.

그와 동시에 레스트레이드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나는 안개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향해 튀어나온 그 끔찍한 형체에 정신이 아득해진 채, 무의식적으로 권총을 움켜쥐며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사냥개였다. 칠흑같이 검고 거대한 사냥개였으나, 인간의 눈으로 본 적 있는 그런 개가 아니었다. 벌어진 입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눈은 타오르는 듯한 안광을 내뿜었다. 주둥이와 목덜미, 그리고 늘어진 목 가죽의 윤곽은 일렁이는 불꽃에 휩싸여 있었다. 안개 벽을 뚫고 우리에게 달려든 그 검은 형체와 야수 같은 얼굴은, 제정신이 아닌 자가 몽롱한 꿈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잔혹하고 소름 끼치며 지옥 같은 모습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다.

거대한 검은 괴물은 커다란 보폭으로 길을 따라 껑충껑충 뛰어 내려오며, 우리 친구의 발자국을 바짝 뒤쫓았다. 유령 같은 형상에 압도당한 나머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놈이 우리 앞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말았다. 그제야 홈즈와 나는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다. 괴물은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고, 적어도 총알 한 발은 명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 나갔다. 멀리 길 위에서 헨리 바스커빌 경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보였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공포에 질려 두 손을 치켜든 채 자신을 사냥하려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속수무책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냥개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리자 우리의 두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놈이 상처를 입는다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이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홈즈처럼 달리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나 또한 발이 빠른 편이라 자부하지만, 홈즈는 내가 그 작은 전문 탐정보다 앞서 나갔던 것처럼 나를 따돌리고 달려 나갔다.

우리가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려가는 동안, 앞쪽에서는 헨리 바스커빌 경의 비명과 사냥개의 깊은 포효가 연이어 들려왔다. 나는 짐승이 희생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목덜미를 물어뜯는 장면을 간신히 목격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홈즈가 리볼버의 총알 다섯 발을 괴물의 옆구리에 쏟아부었다. 괴물은 마지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향해 이빨을 악물었고, 이내 등을 바닥에 대고

뒤집어졌다. 네 발을 격렬하게 휘저으며 발버둥 치던 놈은 이내 옆으로 쓰러져 축 늘어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숙여 권총을 그 끔찍하고 번들거리는 머리에 갖다 대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필요조차 없었다. 거대한 사냥개는 이미 죽어 있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쓰러진 자리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우리는 그의 옷깃을 헤치며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상처는 보이지 않았고, 제때 구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홈즈는 안도의 기도를 올렸다. 곧 친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는 몸을 움직이려 힘겹게 애를 썼다. 레스트레이드가 브랜디 병을 바스커빌 경의 치아 사이에 밀어 넣자, 겁에 질린 두 눈이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세상에!" 그가 낮게 읊조렸다. "그게 대체 뭐였지? 도대체,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그게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게 무엇이든 이미 죽었네."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가문에 떠돌던 유령을 영원히 잠재웠어."

우리 앞에 길게 뻗어 있는 그 생명체는 크기와 힘만으로도 실로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순종 블러드하운드도, 그렇다고 순종 마스티프도 아니었다. 두 종이 뒤섞인 듯한 그 짐승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야생적이었으며, 작은 암사자만큼이나 거대했다. 죽음이 찾아와 정적이 감도는 지금도, 그 거대한 턱에서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뚝뚝 떨어지는 듯 보였고, 깊게 파인 잔인한 눈매는 불길에 휩싸인 듯했다. 내가

그 달아오른 주둥이에 손을 얹어 들어 올리자, 어둠 속에서 내 손가락 마저 불꽃에 그을린 듯 번뜩였다.

"인(燐)이군요." 내가 말했다.

"교묘하게 준비했군요." 홈즈가 죽은 동물의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놈의 후각을 방해할 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 이런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나운 개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괴물 같은 짐승일 줄은 몰랐습니다. 안개까지 끼는 바람에 놈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먼저 그걸 위험에 빠뜨려 놓고 말이지. 자, 일어설 기운은 좀 있나?"

"브랜디 한 모금만 더 주게. 그러면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될 테니. 자, 이제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게나. 자네는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인가?"

"자네를 여기 두고 가야겠네. 오늘 밤 자네는 더 이상 모험을 즐길 상태가 아니야. 잠시만 기다리게. 우리 중 한 명은 반드시 자네와 함께 저택까지 동행할 테니까."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고, 온몸을 사정없이 떨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바위 위로 부축해 앉혔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몸을 떨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 홈즈가 말했다. "남은 일들을 마저 처리해야 하거든. 일 분 일 초가 급한 상황이야. 사건의 실체는 이미 파악했으니, 이제 범인만 잡으면 돼."

"그가 저택 안에 있을 확률은 천 분의 일도 안 될 걸세."

우리가 길을 되짚어 빠르게 내려가는 동안 그가 말을 이었다.

"총성이 들리자마자 상황이 끝났다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

"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데다, 안개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개를 쫓아갔을 겁니다. 녀석을 떼어놓으려고 말이죠. 그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니, 아니, 이미 떠났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집 안을 샅샅이 뒤져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우리는 곧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방마다 급히 훑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우리와 마주친 노쇠한 늙은 하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식당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홈즈는 등불을 낚아채듯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우리가 쫓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자 침실 문 하나가 굳게 잠겨 있었다.

"이 안에 누군가 있어!"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당장 문을 열어!"

안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가 발바닥으로 문 잠금장치 바로 윗부분을 강하게 걷어차자 문이 벌컥 열렸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권총을 손에 쥔 채 방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토록 무모하고 오만한 악당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다. 대신 우리 앞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뜻밖인 물체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잠시 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방 안은 작은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면에는 유리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나비와 나방 표본들이 가득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성격의 남자가 유일하게 마음을 달래던 취미가 바로 이 수집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하나 있었다. 언젠가 지붕을 가로지르는 낡고 벌레 먹은 들보를 받치기 위해 세워둔 것이었다.

그 기둥에는 어떤 형체가 묶여 있었다. 몸을 결박할 때 쓴 시트로 꽁꽁 싸매고 두른 탓에,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순간적으로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수건 한 장이 목을 감싸 기둥 뒤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또 다른 수건이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그 위로 두 개의 검은 눈동자가 우리를 응시했다.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질문을 가득 담은 눈빛이었다.

우리는 곧바로 입을 막은 수건을 떼어내고 결박을 풀었다. 그러자 스테이플턴 부인이 우리 앞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고개가 가슴팍으로 떨궈졌을 때, 나는 그녀의 목에 채찍에 맞은 선명하고 붉은 줄이 남은 것을 보았다.

"이 짐승 같은 놈!" 홈즈가 외쳤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여기 브랜디 병 좀 가져오게! 그녀를 의자에 앉혀! 학대와 탈진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

그녀가 다시 눈을 떴다.

"그가 안전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탈출이라도 한 건가요?"

"그는 저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인."

"아니요, 아니에요. 남편을 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 말씀인가요? 그분은 무사한가요?"

"네."

"그렇다면 그 사냥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 악마 같은 인간!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좀 보세요!" 그녀는 소매 밖으로 팔을 뻗어 보였다. 우리

는 그녀의 팔이 온통 멍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가 고문하고 더럽힌 건 바로 내 마음과 영혼이에요. 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온갖 부당한 대우와 외로움, 기만으로 가득한 삶까지도 모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죠. 그 사랑마저도 내가 그저 그의 속임수에 놀아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격정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그를 향한 마음이 곱지 않으시군요, 부인."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예전에 그가 악행을 저지를 때 도우셨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도와 그 죄를 씻으십시오."

"그가 도망쳐 숨었을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늪 한가운데 있는 섬에 오래된 주석 광산이 하나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사냥개를 키웠고,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도 미리 마련해 두었죠. 분명 그곳으로 달아났을 거예요."

창밖에는 안개 덩어리가 마치 하얀 양털처럼 깔려 있었다. 홈즈는 등불을 창가로 가져가 안개 쪽을 비추었다.

"보게나."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아무도 그림펜 늪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걸세."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다. 눈과 치아에는 격렬한 즐거움이 서려 번뜩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다시는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오늘 밤 그가 길을 안내할 지팡이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늪을 가로지르는 길을 표시하려고 그와 내가 함께 심어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 오늘 내가 그것들을 다 뽑아버릴 수만 있었어도! 그랬다면 당신은 분명 그를 손쉽게 붙잡았을 텐데!"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추적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명백했다. 그동안 우리는 레스트레이드 경위에게 집을 맡겨두고, 홈즈와 나는 바스커빌 경을 모시고 바스커빌 저택으로 돌아갔다. 스테이플턴 일가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그에게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 얽힌 진실을 마주하고도 용기 있게 그 충격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밤새 이어진 모험의 충격으로 그의 신경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결국 그는 아침이 오기도 전에 고열로 헛소리를 하며 쓰러졌고, 모티머 박사의 간호를 받게 되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그 불길한 저택의 주인이 되기 전처럼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두 사람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해야만 했다.

이제 이 기이한 이야기의 결말을 서둘러 맺으려 한다. 나는 독자들이 우리 삶을 오랫동안 뒤덮었던 그 어두운 공포와 막연한 추측들을 함께 나누길 바랐다. 그 모든 일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다.

사냥개가 죽고 난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걷혔다. 우리는 스테이플턴 부인의 안내를 받아 그들이 늪지 사이로 난 길을 찾아냈던 지점까지 갔다. 부인이 남편의 흔적을 찾도록 우리를 이끄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열망과 기쁨을 보며, 나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넓게 펼쳐진 늪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흙이 섞인 얇은 반도 같은 땅 위에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 반도의 끝에서부터, 여기저기 꽂혀 있는 작은 지팡이들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표시해 주었다. 초록색 이끼가 낀 웅덩이와, 낯선 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불결한 진흙탕 사이로, 길은 갈대 뭉치에서 뭉치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이어지고 있었다. 악취 나는 갈대와 무성하고 미끈거리는 수생 식물들은 부패한 냄새와 함께 무겁고 불길한 증기를 우리 얼굴로 내뿜었다. 발을 잘못 디딜 때마다 우리는 어둡고 출렁이는 진흙 속에 허벅지까지 빠지곤 했다. 발밑의 진흙은 수 미터 앞까지 부드러운 물결을 일으키며 흔들렸다. 늪은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꿈치를 끈질기게 붙잡았다. 진흙 속으로 빠져들 때면, 마치 사악한 손이 우리를 그 추잡하고 깊은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는 것 같았다. 우리를 붙잡는 그 힘이 너무도 엄혹하고 집요했기 때문이다.

그 위험한 길을 우리보다 먼저 지나간 흔적을 단 한 번 발견한 적이 있다. 진흙 위로 솟아오른 솜풀 뭉치 사이로 검은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다. 홈즈는 그것을 잡으려고 길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가 허리까지 진흙에 빠지고 말았다. 만약 우리가 곁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는 단단한 땅을 밟지 못했을 것이다. 홈즈가 공중으로 들어 올린 것은 낡고 검은 장화 한 짝이었다. 가죽 안쪽에는 '메이어스, 토론토'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진흙 목욕을 할 가치가 있겠군." 그가 말했다. "우리 친구 헨리 바스커빌 경이 잃어버린 장화가 여기 있네."

"스테이플턴이 도망치면서 거기 내팽개친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는 사냥개를 추적에 투입한 뒤에도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걸 깨닫고 도망칠 때도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죠. 그러다 도주하던 중 이 지점에서 그것을 내던진 겁니다. 적어도 그가 이 지점까지는 무사히 도망쳐 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진실은 결코 알 수 없었다. 비록 짐작할 만한 정황은 많았지만 말이다. 늪에서 발자국을 찾아낼 가능성은 없었다. 차오르는 진흙이 발자국을 빠르게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침내 늪을 지나 단단한 땅에 다다랐을 때,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자국을 찾았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만약 땅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스테이플턴은 그 마지막 밤, 안개를 헤치며 사투를 벌이던 그 안식처 같은 섬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거대한 그림펜 늪의 심장부 어딘가, 그를 집어삼킨 거대한 늪의 더러운 진흙 속 어딘가에, 이 차갑고 잔인한 남자는 영원히 묻혀 있다.

그가 야만적인 동료를 숨겨두었던, 늪에 둘러싸인 섬에서는 그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거대한 구동륜과 쓰레기가 절반쯤 차 있는 수직 갱도를 보니, 그곳이 버려진 광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광산 옆에는 광부들이 살던 오두막이 허물어진 채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주변 늪지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 때문에 광부들이 떠나버린 모양이었다. 오두막 중 한 곳에서는 갉아먹힌 뼈들이 잔뜩 나뒹구는 꺾쇠와 사슬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짐승을 그곳에 가두어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잔해들 사이에는 갈색 머리카락이 뒤엉킨 채 놓인 해골 하나가 있었다.

"개로군!" 홈즈가 말했다. "세상에,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스패니얼이야. 불쌍한 모티머 박사는 다시는 이 반려동물을 보지 못하겠어. 글쎄, 우리가 이미 파악한 것 외에 이 장소에 숨겨진 비밀이 더 있을 것 같지는 않네. 그는 사냥개를 숨길 수는 있었겠지만, 그 울음소리까지 잠재울 수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대낮에 들어도 듣기 거북한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지. 비상시에는 메리핏에 있는 외딴 창고에 개를 가둬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늘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어. 그가 모든 노력이 끝나는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나 감히 시도할 수 있는 일이었지. 통 안에 든 이 반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괴물을 뒤덮었던 발광 물질이야. 가문의 저주받은 사냥개 전설을 이용해 늙은 찰스 바스커빌 경을 겁주어 죽이려 했던 계획에서 나온 것이겠지. 그 불쌍한 죄수가 우리 친구처럼, 혹은 우리 자신이라 해도 황야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쫓아 뛰어오는 그런 괴물을 보았다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을 거야. 아주 교묘한 수법이야. 희생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지만, 황야에서 그런 괴물을 목격했을 때 그 정체를 너무 깊이 파헤치려 들 농부가 어디 있겠나? 왓슨, 내가 런던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하겠네. 저기 누워 있는 자보다 더 위험한 인물을 쫓는 데 힘을 보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 홈즈는 긴 팔을 휘둘러, 황야의 적갈색 경사면과 맞닿을 때까지 끝없이 펼쳐진 얼룩덜룩한 초록빛 늪지대를 가리켰다.

제15장 회상

제15장. 회상

11월 말이었다. 으스스하고 안개가 자욱한 밤, 홈즈와 나는 베이커가 거실에 놓인 타오르는 벽난로 양옆에 앉아 있었다. 데번셔를 방문했을 때 겪었던 비극적인 결말 이후, 홈즈는 매우 중요한 두 사건에 몰두해 있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그는 유명한 '논파렐 클럽'의 카드 스캔들과 관련하여 업우드 대령의 잔인한 행태를 폭로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불운한 몽팽시에 부인을 변호했다. 그녀는 의붓딸인 카레르 양의 죽음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젊은 숙녀는 6개월 뒤 뉴욕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

내 친구는 연이어 해결한 어렵고 중요한 사건들의 성공 덕분에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덕분에 나는 그를 설득해 바스커빌 가의 미스터리스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는 이 기회가 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 왔다. 홈즈는 결코 사건들이 서로 뒤섞이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명석하고 논리적인 정신은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벗어나 과거의 기억에 머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마침 헨리 바스커빌 경과 모티머 박사가 런던에 머물고 있었다. 헨리 경은 무너진 신경을 회복하기 위해 권고받은 긴 여행을 떠나려는 참이었다. 그들이 바로 그날 오후 우리를 방문했으니,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대화의 장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홈즈가 말했다. "스테이플턴이라 자칭한 그 남자의 관점에서는 모든 일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네. 비록 처음에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도 알 수 없었고 사실관계도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이 무척 복잡하게만 보였지만 말이야. 나는 스테이플턴 부인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행운이 있었고, 이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우리에게 비밀로 남은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 내 사건 색인 목록의 B 항목을 찾아보면 이 일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걸세."

"기억나는 대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사실을 머릿속에 다 담아두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군요. 정신을 극도로 집중하다 보면, 지나간 일들이 묘하게도 머릿속에서 지워지곤 하니까요. 사건의 모든 내용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으며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전문가와 논쟁할 수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 머릿속의 내용이 다시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

니다. 저 역시 매번 새로운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전 사건은 밀려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카레르 양의 사건 때문에 바스커빌 저택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작은 문제가 저에게 맡겨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은 다시 그 아름다운 프랑스 여인과 악명 높은 업우드를 밀어내겠지요. 하지만 개에 관한 사건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한 최대한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조사 결과, 가문의 초상화는 틀리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내는 정말로 바스커빌 가문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는 찰스 바스커빌 경의 남동생인 로저 바스커빌의 아들이었습니다. 로저는 불미스러운 평판을 남긴 채 남미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독신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하지만 사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를 두었는데, 바로 이 사내입니다. 이 사내의 본명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로저는 코스타리카의 미인 중 한 명인 베릴 가르시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막대한 공금에 손을 대자, 이름을 반델루어로 바꾸고 영국으로 도망쳐 요크셔 동부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가 이런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귀국하는 항해 중에 만난 폐병 환자 가정교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 사업을 성공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가정교사였던 프레이저가 죽으면서, 순조롭게 시작했던 학교는 명성을 잃고 결국 악명 높은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반델루어 가문은 이름을 스테이플턴으로 바꾸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재산과 미래를 위한 계획, 그리고 곤충학에 대한 열정을 품은 채 영국 남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대영박물관에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그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크셔에 머물던 시절 그가 처음으로 기재한 특정 나방의 이름에는 반 델루어라는 이름이 영구히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저지른 일 중 우리에게 가장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 대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자는 분명히 사전에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신과 막대한 유산 사이를 가로막는 생존자가 단 두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지요. 그가 데번셔로 향했을 당시의 계획은 아마도 매우 막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내를 누이로 위장해 데려간 방식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세부적인 음모를 어떻게 실행할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아내를 미끼로 쓰겠다는 생각만큼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은 저택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찰스 바스커빌 경과 이웃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스커빌 경 본인이 직접 가문의 사냥개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도리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스테이플턴이라 부를 이 남자는, 노인의 심장이 약해서 충격을 받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티머 박사에게서 들은 정보가 바로 그것이었죠. 또한 그는 찰스 바스커빌 경이 미신을 믿으며, 이 불길한 전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악한 스테이플턴의 머릿속에는 즉시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

다. 바스커빌 경을 죽게 만들면서도, 정작 진짜 범인에게는 죄를 묻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운 뒤, 아주 정교한 수법으로 실행에 옮겼다. 평범한 음모가라면 그저 사나운 개 한 마리를 이용하는 데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그 짐승을 악마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는 실로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그가 개를 구한 곳은 런던 풀럼 로드에 있는 로스 앤 맨글스 상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상인이 보유한 개들 중 가장 힘이 세고 사나운 놈을 골랐다. 그는 북데본 노선을 타고 내려온 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황야를 한참이나 걸어서 개를 집으로 데려왔다. 곤충을 채집하러 다니며 이미 그림펜 늪을 누비는 법을 익혔던 그는, 그곳에 짐승을 숨겨둘 안전한 은신처까지 찾아내었다. 그는 그곳에 개를 가두어 두고 기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를 밤중에 저택 밖으로 유인해 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플턴은 사냥개를 데리고 몇 차례나 주변을 배회했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헛된 시도 중에 그,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동료인 사냥개가 농부들에게 목격되었고, 악마의 개에 관한 전설은 새로운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플턴은 아내를 이용해 찰스 바스커빌 경을 파멸로 이끌 궁리를 했으나, 아내는 예상외로 주관이 뚜렷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신사가 적에게 넘어가게 될지도 모를 감상적인 애정 관계로 그를 얽매어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은 물론이고, 유감스럽게도

폭력까지 동원했으나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에 결코 관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이로 인해 스테이플턴은 한동안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찰스 바스커빌 경의 호의를 이용해 난관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냈다. 찰스 경은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고, 덕분에 그는 불행한 여인인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돕는 자선가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독신남으로 속여 그녀를 완전히 휘어잡았다. 그러고는 만약 그녀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자신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며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계획은 찰스 경이 저택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찰스 경은 모티머 박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떠날 예정이었는데, 그는 마치 자신도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상황을 살폈다.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목표물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라이언스 부인을 압박해 편지를 쓰게 만들었다. 편지 내용은 찰스 경에게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자신을 꼭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뒤, 그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그녀가 직접 찾아가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그는 저녁 무렵 쿰 트레이시에서 마차를 몰고 돌아오던 중, 제 사냥개를 데려올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그는 그 끔찍한 페인트를 개에게 칠한 뒤,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그 대문 앞까지 짐승

을 데리고 갔다. 주인의 부추김을 받은 개는 작은 쪽문을 뛰어넘어 불운한 준남작을 뒤쫓았고, 준남작은 비명을 지르며 주목(yew)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도망쳤다. 그 어두컴컴한 터널 같은 길에서, 불타는 듯한 입과 번뜩이는 눈을 한 거대한 검은 생명체가 희생자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준남작은 심장병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길 끝에서 쓰러져 숨졌다.

준남작이 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사냥개는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기에, 길 위에는 남자의 발자국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남자를 보고 개가 냄새를 맡으러 다가갔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선 듯했다. 바로 그때, 모티머 박사가 실제로 목격하게 된 발자국이 남겨졌다. 사냥개는 불러들여져 그림펜 늪에 있는 굴로 급히 사라졌고, 수사 당국을 당혹게 하고 시골 마을을 공포에 떨게 만든 미스터리만이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은 우리가 주목하게 된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이 사건에 얼마나 악마 같은 교묘함이 숨어 있는지 당신도 눈치챘을 겁니다. 사실 진짜 범인을 상대로 사건을 구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범인의 유일한 공범은 결코 그를 배신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수법 자체가 워낙 기괴하고 믿기 힘든 방식이라 그 효과를 더욱 높여주었을 뿐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두 여성, 스테이플턴 부인과 로라 라이언스 부인 모두 스테이플턴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플턴 부인은 그가 노인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나운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반면 라이언스 부인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그녀는 오직 범인만이 알고 있던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채 죽음이 발생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에, 범인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의 전반부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스테이플턴은 캐나다에 후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곧 친구인 모티머 박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테지요. 모티머 박사는 헨리 바스커빌이 도착했다는 상세한 정보까지 스테이플턴에게 전해주었으니까요. 스테이플턴이 처음 떠올린 생각은 이랬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이 젊은 이방인이 데번셔까지 내려오지도 못한 채 런던에서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노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돕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후로 아내를 불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 아내를 눈앞에서 오래 떼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스테이플턴이 아내를 런던까지 데려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들은 크레이븐 가에 있는 멕스버러 개인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대리인이 증거를 찾기 위해 방문했던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테이플턴은 아내를 방 안에 가두어 둔 채, 자신은 수염을 붙여 변장하고 모티머 박사를 뒤쫓았습니다. 그는 박사를 따라 베이커가로 갔고, 이후 역과 노섬벌랜드 호텔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하는 잔혹한 학대 때문에 그녀는 남편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남자를 돕기 위해 경고 편지를 쓰는 것조차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편지가 스테이플턴의 손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녀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메시지가 될 단어들을 신문 등에서 오려 내고,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필체를 바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스커빌 경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덕분에 자신이 처한 위험을 처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플턴에게는 헨리 바스커빌 경의 의복 중 무언가를 반드시 손에 넣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만약 그가 개를 부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언제든 개를 풀어 경의 뒤를 쫓게 할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유의 기민함과 대담함을 발휘해 즉시 이 일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호텔의 구두닦이 사환이나 객실 하녀에게 상당한 뇌물을 주어 자신의 계획을 도왔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그가 처음 손에 넣은 신발은 새 신발이었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쓸모가 없었다. 결국 그는 그 신발을 돌려보내고 다른 신발을 구해냈다. 이 사건은 내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낡은 신

발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서 새 신발에는 무관심했던 이유는, 우리가 진짜 살아 있는 사냥개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가설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어떤 사건이 기이하고 괴상할수록, 그 사건은 더욱 세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 제대로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다루기만 한다면 사건을 명쾌하게 풀어 줄 열쇠가 되기 마련이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지만 스테이플턴은 마차를 타고 우리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우리 방의 구조와 내 외모를 꿰뚫고 있는 점, 그리고 그의 전반적인 행동을 미루어 볼 때, 스테이플턴의 범죄 이력이 결코 이번 바스커빌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년 동안 서부 지역에서 네 건의 중대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단 한 건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중 마지막 사건인 5월 포크스톤 코트 절도 사건은 특히 잔혹했다. 가면을 쓴 괴한을 목격한 페이지(심부름꾼)를 범인이 냉혹하게 권총으로 쏴 죽였기 때문이다. 스테이플턴은 이런 방식으로 줄어드는 자금을 충당해 왔을 것이며, 수년 동안 무모하고 위험한 범죄자로 살아왔음이 분명하다.

그날 아침, 그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따돌리며 기지를 발휘했다. 게다가 마차꾼을 시켜 내 이름을 다시 나에게 되돌려 보내는 대담함까지 보여주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런던에서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런던에서 활약할 기회는 이제 없다는 사실도

말이다. 그는 다트무어로 돌아가 바스커빌 경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잠시만요!" 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사건의 경과를 틀림없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런던에 있는 동안 그 사냥개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스테이플턴에게 심복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공유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메리핏 저택에는 앤서니라는 이름의 노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이플턴 가문과 수년 전, 그들이 교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기에 주인 내외가 실제로는 부부 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라졌고, 지금은 나라를 떠나 도망친 상태입니다. 앤서니라는 이름은 영국에서 흔치 않은 반면, 안토니오는 스페인이나 스페인계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남자는 스테이플턴 부인처럼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묘하게 혀 짧은 소리가 섞인 말투를 썼습니다. 저는 이 노인이 스테이플턴이 미리 표시해 둔 길을 따라 그림펜 늪을 가로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인인 스테이플턴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짐승을 돌본 이도 아마 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그가 그 짐승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을지라도 말입니다."

"스테이플턴 일가는 데번셔로 내려갔고, 곧이어 헨리 바스커빌 경과 당신도 그 뒤를 따랐지요. 여기서 당시 제 심경이 어땠는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인쇄된 글자가 붙어 있던 종이를 조사할 때 워터마크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이를 눈앞 몇 인치 거리까지 가까이 가져갔을 때, 화이트 재스민이라 불리는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범죄 전문가라면 일흔다섯 가지나 되는 향수 종류를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제 경험상 향기를 즉각 알아차린 덕분에 사건을 해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향기는 어떤 여인이 근처에 있음을 암시했고, 제 생각은 벌써 스테이플턴 일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개'의 존재를 확신했고, 우리가 서부 지방으로 떠나기도 전에 이미 범인이 누구일지 짐작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스테이플턴을 감시하는 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과 함께 있었다면 그를 감시할 수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가 잔뜩 경계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포함해 모두를 속였습니다. 런던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몰래 내려왔지요. 고생이 당신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소한 문제는 사건 수사에 결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저는 주로 쿰 트레이스에 머물렀고, 사건 현장 근처에 있어야 할 때만 황야에 있는 오두막을 이용했습니다. 카트라이트도 저와 함께 내려왔는데, 시골 소년으로 변장한 그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음식과 깨끗한 린넨은 그에게 의지했지요. 제가 스테이플턴을 감시하는 동안 카트라이트가 자주 당신을 살폈기에, 저는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내주신 보고서는 베이커가에서 쿰 트레이스까지 즉시 전달되어 제게 아주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플턴에 대해 우연히 사실대로 적힌 그 전기 한 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남녀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마침내 제가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탈옥수 사건과 그가 배리모어 부부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지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 부분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비록 저 역시 제 나름의 관찰을 통해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황야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 앞에 내놓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지요. 그날 밤 스테이플턴이 헨리 바스커빌 경을 습격했다가 불행한 죄수를 죽게 만든 사건조차, 범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인을 현장에서 직접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헨리 바스커빌 경을 보호 장치도 없이 홀로 내버려 두어 미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큰 충격을 받는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완벽히 확보하여 스테이플턴을 파멸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킨 점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사건을 맡은 관리자로서 제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그 괴물이 보여준 그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모습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괴물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칠 수 있게 만든 그 안개까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큰 대가를 치렀으나, 전문가와 모티머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 상처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긴 여행을 다녀오면 우리 친구는 충격받은 신경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그 여인을 향해 품었던 사랑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검은 음모 속에서 그를 가장 슬프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사건 내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플턴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든, 공포였든, 혹은 두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든 말입니다. 사랑과 공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 영향력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플턴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그의 누이 노릇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살인 공범으로 만들려 했을 때, 그녀를 휘두를 수 있는 자신의 권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연루시키지 않는 선에서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경고하려고 애썼고, 몇 번이고 그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본인 또한 질투심이 강한 인물이었던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 중 일부로 두 사람의 친분을 부추겼음에도, 바스커빌 경이 그 여인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고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평소의 침착한 태도로 교묘히 숨겨왔던 불같은 성미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깝게 유도함으로써 헨리 바스커빌 경이 메리핏 저택을 자주 방문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날, 그의 아내는 갑자기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죄수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알아냈고, 헨리 바스커빌 경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기로 한 날 저녁에 그 괴물이 외양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저지르려는 범죄를 몰아세웠고, 격렬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테이플턴은 아내에게 자신의 사랑에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지독한 증오로 변했고, 스테이플턴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경고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훗날 온 마을 사람들이 바스커빌 경의 죽음을 가문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게 될 때, 아내가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입을 다물도록 설득하여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없었더라도 그의 파멸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페인 혈통을 이어받은 여인이 그런 모욕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리 없으니까요.

자, 이제 친애하는 왓슨, 제 노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이 기묘한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렵겠군요. 핵심적인 내용 중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괴물 개로 숙부를 겁주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헨리 바스커빌 경 또한 겁주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 짐승은 사납고 굶주린 상태였다. 그 흉측한 모습에 겁을 집어먹고 희생자가 즉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네. 이제 남은 난제는 단 하나뿐이야. 만약 스테이플턴이 상속권을 이어받게 된다면, 그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상속인이라는 자가 정체를 숨긴 채 다른 이름으로 저택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 말일세. 의심을 사고 조사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저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매우 까다로운 문제군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신다면, 과한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제 조사 범위 안에 있지만, 한 사람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니까요. 스테이플턴 부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미에서 직접 재산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영국 당국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함으로써, 영국 땅을 밟지 않고도 막대한 유산을 손에 넣는 것이죠. 둘째는 런던에 머물러야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정교하게 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범에게 증거와 서류를 넘겨주어 그를 상속인으로 세운 뒤,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챙기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성격상, 분명 어떤 식으로든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냈을 겁니다.

자, 이제 왓슨, 우리는 몇 주 동안 아주 고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만큼은 좀 더 즐거운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위그노> 공연 특별석(박스석)을 하나 잡아 두었습니다. 드 레즈케 형제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괜찮다면 30분 뒤에 준비해 주십시오. 가는 길에 마르치니 식당에 들러 가볍게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말입니다."

끝